

AUTHOR 이상규

TITLE 종교개혁사

IN 월간고신

109호 (10, 1990): 99-105.

114호 (3, 1991): 84-90.

115호 (4, 1991): 44-49.

116호 (5, 1991): 46-49.

118호 (7, 1991): 190-195.

119호 (8, 1991): 36-43.

120호 (9, 1991): 45-49.

121호 (10, 1991): 88-91.

122호 (11, 1991): 74-77.

124호 (1, 1992): 83-87.

126호 (3, 1992): 48-53.

127호 (4, 1992): 50-54.

128호 (5, 1992): 48-51.

130호 (7, 1992): 96-100.

132호 (9, 1992): 76-80.

133호 (10, 1992): 65-69.

134호 (11, 1992): 44-47.

135호 (12, 1992): 44-49.

137호 (2, 1993): 42-46.

138호 (3, 1993): 32-37.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정교회 사제의 아들이 교회들을 파괴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직에서 해임됐다. 1971년 14명의 신부들이(그중 세명은 주교) 투옥됐다. 그 가운데 수도사 필립 마즈레쿠와 P. 메시칼라가 1985년과 1988년에 각각 옥사했다. 최근 니콜 트로샤니 주교가 15년만에 출옥해서 친지들과 같이 지금 살고 있다. 1985년 당시까지만 해도 11명의 남은 성직자들이 옥중에 갇힌 채였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알바니아 천주교에 관한 정기보고서'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늙어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강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나타나 있다. 천주교의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은 사제가 뭐하는 사람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일부 사제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난민들이 말한다. 한 여인은 중간에 사람들을 통해 사제에게 기도부탁을 했는데 그 사제가 그녀를 대신해서 기도해줬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역의 사제를 찾아가 사망한 혈육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한다.

지난 7월 서독대사관에서 망명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루짐 불구리씨는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었다. 그는 올해 서른아홉 살로 13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죄목은 버려진 교회의 강단에 촛불을 밝혔다

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알바니아에서 악명 높은 탄광에서 8년을 강제노동했으며, 일년간 91m×183m의 독방에서 지냈다. 마룻바닥에 배변하고 잠도 자야 했다.

“우리는 동물처럼 살았어요” 그가 하는 말이다. 점심과 저녁은 한 그릇의 국물이었으며, 벽에 기대면 사정없이 매질이 가해졌다. 불구리의 얼굴과 등은 흉터자국이 남았다. 그의 두 손목은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바짝 수갑을 조여 병신이 됐다. 어느 헨가 모진 고문에 견디다 못하여 그의 감방 동료들 중 다섯 명이 목을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간수들은 시체들을 하루종일 매달아 놓았다. 죄수들은 아무도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불구리는 2년전에 석방됐다.

종교의 자유 요원해

올해들어 민주화시위와 더불어 종교의 자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 온다. 하는 수 없이 알바니아 정부는 형법 제 55조의 종교적 선동죄에 관한 처벌조항을 폐지키로 했다고 “디벨트”지(1990. 5. 11자)가 보도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인권그룹에서는 지금도 4만 명이 감옥에 있다는 보고이고, 알바니아인 세명 중 한 사람이 비밀경찰 시구리미의 꼬나플로서 감시를 당하는 사회이고 보면 종교의 자유는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卍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95개조 사건은 루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이라는 세계사적 변혁을 가져오고 말았다.

이 상 규 교신대교수 교회사

교회개혁은 역사의 필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젊은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그곳의 대학교회(Schloskirche)의 문앞에 95개항(Die 95 Thesen)을 내걸고 부패한 당시 카톨릭 교회에 도전했던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10월을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부른다.

사실 루터는 이 당시 관례대로 면죄부 판매 등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 학문적인 토론을 열 계획이었지 그는 결코 종교개혁이라는 세계사적인 거사(?)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10월 31일, 그날을 하나의 분명한 시발점으로 하여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으로 발전되어 갔다. 헤겔(Hegel)은 그의 책 역사철학강의에서 종교개혁을 “중세기 끝에 여명을 띄우고 솟아나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어두운 중세를 퇴각시키고 근세의 새벽을 밝히는 시대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한 표현으로 종교개혁을 정신사적(Geistes-geschichtlich)으로 정리해 준다. 사실 루터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개혁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노력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는데 15세기의 후스(John Hus)가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교황의 지상권(至上權)을 부인하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

위임을 주장했다가 체포되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문끝에 화형을 당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후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 “그대들이 지금은 작은 새를 불사르지만 이제 100년 후에는 큰 황새가 날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그를 처형할 수 없을 것이다”는 예언적인 선언이 있는지 꼭 102년만에 루터는 유럽의 역사 한 가운데로 인도되었던 것이다.

사실 루터 자신은 결코 종교개혁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10월 31일의 95개조 사건은 루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이라는 세계사적 변혁을 가져오고 말았다. 개혁의 때는 성숙되었으므로 교회개혁은 역사의 필연이었기 때문이다. 이 역사의 물줄기란 중세 로마 천주교회의 영적, 도덕적 부패와 타락, 국가주의(Nationalism)의 대두, 그리고 인문주의의 발흥, 중세교회의 이론적 뒷받침이었던 스콜라 철학의 붕괴 등 복합적인 것이었다. 종교개혁은 이루어져야만 했고 루터는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었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랑케(L.von Ranke)는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루터의 출현은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었으므로 “그는 마땅히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면 안되었다”라고 했다. 결국 루터의 95개조를 통한 파문은 불과 2주가 못되어 전 유럽에 파급되었고 당시 민중의 목시적 동의를 얻으면서

확산되어 갔다. 티르나겔(T. S. Tjeragel)의 ‘종교개혁시대’(The Reformation Era)에 의하면 종교개혁 당시 독일의 신분계층은 귀족이 10%, 성직자가 5% 그리고 민중이라 할 농민, 노동자 등 피지배층이 85%였다고 한다. 후에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85% 이상을 차지하는 소위 민중들은 역사의 변혁을 기대했던 바 이들은 교회개혁의 일조를 담당하였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역사, 아니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대 변혁이 된 것이다.

20세기 전반기 독일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라고 불리는 마이네케는 서구 역사에서 가장 큰 정신적 혁명을 역사주의(Historismus)와 종교개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서양세계에서는 종교개혁이라 할 때 구태여 ‘종교’란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다만 ‘그 개혁’(The Reformation)이라고 한다. 개혁(Reformation)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추상명사인데도 1517년 10월 31일 이후 발전된 교회개혁운동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된 것은 종교개혁의 세계사적 의의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 의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영향 또한 종교생활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서구문명 전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개혁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정

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16세기 당시 구라파의 종교는 천주교였으므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서양사학 혹은 서양사 교제는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으므로 ‘리포메이션’을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한 일본식 표현을 따랐음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

종교개혁의 의미

그러면 종교개혁이란 무엇이며 종교개혁이 보여준 의의는 무엇인가? 종교개혁이란 원시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이었고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본래적인 신앙과 생활에서 이탈한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의 형식화된 의식적 생활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로마카톨릭의 성례전적인 제도(Sacramental System)와 공적사상등 교회적 율법주의(Ecclesiastical legalism)와 같은 비복음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근본의 기독교,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이며, 한 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종교개혁은 결코 어떤 새로운(New) 신학운동이 아니었고 종교개혁 신학은 어떤 새로운 신학(A New Theology)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종교개혁을 통한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은 결코 16세기에 형성된 신학이 아니라 이미 있어 왔으나 오랜 세월동안

천주교의 교권과 미신과 비복음적인 전통속에 가리워졌던 것이 다시 부흥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어거스틴(Augustine)의 은총의 신학을 보여 사도바울의 이신득의(以信得義)교리의 부흥을 보게 된다.

그 동안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의 본질을 오해해 왔는데 즉 종교개혁을 단순히 교리적(신학적) 개혁운동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신학이나 의식, 제도등 중세적 오류에 대한 비판과 거부로 시작된 교회의 신학적 개혁운동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복음주의적 개혁운동만이 아니라 영적 갱신운동 혹은 영적 부흥운동의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리해서 말하면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Reform)과 부흥(Revival)이라는 교리적 혹은 신학적 측면과 영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영적부흥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

먼저 영적부흥운동으로서 종교개혁에 대해 생각해 보자.

종교개혁은 은혜의 교리를 재발견하고 성경적인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진 오랜 역사의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 부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런 점에서 켈브릿지 대학의 피터 뉴만 브룩스(Peter Newman Brooks)교수는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목회적 성격을 띤 운동이었다”고 평하였다. 즉 개혁활동은 의식과 제도의 강보에 쌓여 냉랭한 스콜라주의적 이성으로 오도된 교리에 맹종하던 당시의 백성들에게 영적 소생의 빛을 주었다. 루터나 칼빈등 개혁자들의 저술과 성경강해, 성경주해와 설교는 다 목회적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이었고 이 영적 갈망은 교회개혁운동의 내적 동기였다. 당시 사람들은 스콜라철학으로 무장된 제도화된 교회와 의식적 종교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영적 부흥을 회구했던 바 종교개혁을 통해 구체화되어 갔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부흥 없는 개혁은 공허한 것이며, 신학적 개혁 없는 부흥은 맹목적이었다. 진리에 대한 고통스러운 정도의 재검토없이, 그리고 진리에 복종할 각오 없이는 영적 부흥은 있을 수 없다. 교회사상에 있어서 부흥운동은 항상 시대적, 제약성과 한계성 그리고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없는 약점을 지니지만 종교개혁은 신약교회의 부흥운동과 가장 가까운 영적부흥이었음(Jeremy C. Jackson)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교리적 요소가 영적 갱신의 측면보다 더욱 분명하게 부각됐던 이유는 당시 천

종교개혁의 의의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첫째 구호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주교의 신학과 의식과 성경에서 지나치게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적 원리들이 재규명, 재진술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박한 현실때문에 영적부흥의 측면은 정당한 평가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복음주의 신학적의의

두번째로 종교개혁의 복음주의 신학적 의의를 생각해 보자.

종교개혁의 의의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첫째 구호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의 권위나 모든 세속적 제 전통에 항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내 세웠다. 중세교회의 부패의 원인을 성경에 대한 무지로 파악했던 개혁자들이 성경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성경의 절대우위성을 주장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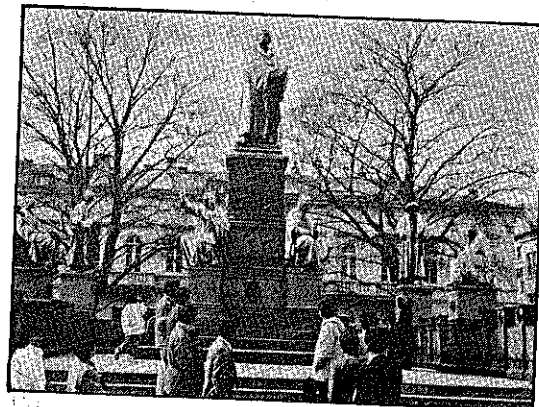
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선시 될 때 교회개혁은 불가능하게 되며 성경의 절대권위는 종속적 권위로 화하고 만다. 개혁자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했던바 이는 교회개혁의 토대였다. 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는 ‘오직 성경’의 원리와 오랫동안 교회에 만연되어 왔던 문자주의적(여자적) 해석이나 우의적(풍유적)해석, 경건주의적(신비주의적)해석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성경해석원리를 확립하였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또 한가지 신학적 성취는 ‘오직 믿음’(Sola Fide)의 원리였다.

종교개혁의 내용적 원리는 신앙의 인(信仰義認)의 교리, 더 정확히 말하면 은총을 통해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인(義認)교리의 재발견이다. 구원은 당시 천주교의 주장처럼 인

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인간의 행위(Works)나 공로(Merits)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원리가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며 이 신학은 교회내에 오랫동안 있어왔던 소위 ‘신인협동설’(神人協同說)을 극복하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선포하였다. ‘오직 믿음’과 함께 ‘오직 은혜’(Sola Gratia)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며 양자는 다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것(Arminian의 입장)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종교개혁을 통한 복음주의 신학적 성취를 말함에 있어서 단 한가지 중요한 성취는 ‘만인 사제직’(Universal priesthood of Believers)의 발견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한 교권체제를 부인하는 것이며 천주교의 사제주의



독일에 있는 루터의 동상

성직자와 평신도를 지나치게 구분하고 성직자를 평신도보다 우월한 특권층으로 보려는 사고는 천주교적이다.

를 극복한 것이다. 종교개혁의 큰 의의는 바로 사제주의 곧 신부(성직자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신자(평신도)의 영혼을 책임지고 신자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는 그릇된 가르침을 극복한 것이다. 사실 칼빈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도 천주교의 사제주의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은—그가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실 성직자와 평신도를 지나치게 구분하고 성직자를 평신도보다 우월한 특권층으로 보려는 사고는 천주교적이

목회어담

신앙의 종류

- 를 열거해 보면
1. 리어카 신앙
앞에서 끌면 오고, 가만히 두면 그대로 정지 상태에 있는 자.
 2. 쳇바퀴 신앙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서 제자리만 맴도는 것처럼 진보, 향상이 없는 자.
 3. 냄비 신앙
남비가 불 위에 있을 때는 보글보글 끓지만 내려 놓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것과 같이 흥분적이며 일시적인 신앙의 소유자.
 4. 자라목 신앙
책망하면 쑥 들어가는 자.
 5. 미꾸라지 신앙
교회에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물레 빠져 나가는 자.
 6. 박쥐 신앙
교회에서는 신앙인인 체하나 사회에

임 중 만 물금교회목사 본지는설위원

이력 저력 목회생활을 40년쯤 하고 보니 교인들의 신앙상태가 여러가지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신앙의 종류

다.

로마 카톨릭은 7성례를 동반한 사제주의로 교권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개혁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마리아도, 성자도 교황(신부)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바 이것이 바로 만인사제적의 발견이다.

종교개혁은 독일에서는 루터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스위스에서는 쾰링글리(Zwingli 1484~1531 주로 독일어 사용지역)와 칼빈(Calvin. 1509~1564 주로 불어 사용지역)등에 의해

추진 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개혁자들에 의해 독일, 스위스, 화란, 불란서, 영국, 스코틀랜드 등지로 확산되어 갔다. 종교개혁사에 있어서 루터, 쾰링글리, 칼빈의 개혁운동이 주류이며 정통이라고 한다면, 재침례파(Anabaptists), 신령파(Spiritualists), 복음주의적 합리론자(Evaagelical Rationalists)들은 비주류 혹은 잠류(潛流)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스(G. H. Williams)교수는 전자를 행정적(Magisterial) 개혁이라고 하고 후자를 급진적(Radical)개혁이라고 명명하였다. (계속)

- 서는 신자 아닌 생활을 하는 자.
7. 당나귀 신앙
귀가 높아 웬만한 설교에 반응이 없는 자.
 8. 앉은뱅이 신앙
말뿐이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
 9. 고슴도치 신앙
자기만 알고 남을 해치는 가시 돌린 자.
 10. 오토바이 신앙
떠들기만하고 실속이 없는 자.
 11. 염소 신앙
아무나 들이받는 안하무인격인 자.
 12. 소금가미니 신앙
비오면 녹을까봐 못나오는 약삭빠른 자.
 13. 양파 신앙
이성 판단으로 성경을 까버리는 파괴적인 비평가.
 14. 신타크로스 신앙
성탄절에만 나와서 국밥이나 얻어 먹고 가는 염치없는 자.
 15. 흉내 신앙
앵무새나 구관조가 사람 말을 따라하고, 원숭이가 사람 행동을 따라 하듯이 남의 음성과 모습을 흉내내는 자.
 16. 오뚝이 신앙
칠전팔기 백절불굴의 신앙자.
 17. 불도우저 신앙
웁은 줄 알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
 18. 감사 신앙
구원받은 은혜를 밤낮 감사하는 예수 제일의 신앙자.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주님만 믿는 자를 말한다.
- 이 열 여덟가지 중에 오뚝이, 불도우저, 감사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이 상 규

때가 찬 경륜

1400 년대를 마감하는 새로운 세기 곧 1500년대가 시작되는 한 시대의 변혁기에 구라파에서는 실로 엄청난 정신적 변화가 조용한 혁명을 예비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었다. 정치질서나 문화현상뿐 만 아니라 교회중심의 구조 (ecclesiastical structure)는 새로운 개편을 요청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천주교회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던 중세문화가 붕괴되고 서구문명의 새로운 단계의 중요한 양상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이전 시대와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등이 유럽의 들판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지식을 매개로 한 것으로써 이 변화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인물은 콜럼부스(col-

umbus), 바스코 다 가마(vasco de Gama), 그리고 코페르니쿠스(copernicus)였다.

콜럼부스는 1492년 10월 12일, 신대륙을 발견하므로 구라파 중심의 세계질서에 충격을 주었고,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인도양으로 와서 1498년 인도와 중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지리상의 발견은 세계관의 변화를 주기에 충분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폴란드인으로서 교회법학자이자 의사였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地動說)은 천동설 중심의 우주관에 매여 있던 중세의 마당에 떨어진 폭탄이었다. 그의 천체의 움직임과 지동설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물리학자의 발견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업과 무역, 도시화와 새로운 사회 계급(bourgeoisie)의 대두, 그리고 사상적 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혁을 가져왔다. 니콜라우스 카자누

스(Nikolaus Casanus, 1401-1464)와 야콥 뵘메(Jacob Böhme)같은 학자들의 자유로운 학리이론 역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역사의 새로운 단계의 중요한 양상들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16세기 초, 유럽의 언덕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같은 세계사적인 사건들은 후론하게 될 교회 내외의 변화의 동인들과 더불어, 소위 '중세'(the middle age)라고 불러주는 장구한 교황중심의 질서를 서부 유럽의 서편으로 퇴각시키는 역사의 동력이 되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종교개혁은 우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었다. '때가 차매'(갈4:4) 그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교회개혁의 때가 충만했을 때 루터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불러내신 것이다. 당시 루터는 작센지방의 한 작은 도시였던 비텐베르크의 무명의 교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곳은 겨우 2000명의 인구를 가진 한적한 지방도시로서 루터자신의 표현대로 '문명세계의 끝'에 지나지 않았다. 비록 루터는 종교개혁을 의도하거나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시대의 변혁을 이끌어 간 사건들을 태동시킨 첫 인물이 되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실 루터가 제기한 95개의 항의는 한 달이 못되어 유럽의 주요도시에서 알려지게 되었고 이 때로 부터 유럽을 격동시킨 힘들은 한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비견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점들은 종교개혁은 바로

비록 루터는 종교개혁을 의도하거나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시대의 변혁을 이끌어 간 사건들을 태동시킨 첫 인물이 되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개혁의 때가 성숙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예이다. 말하자면 교회개혁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역사적 필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역사에 있어서 모든 동인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음을 고백할 때 교회개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시대시대마다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 오신 하나님께서 16세기에도 오도되고 거짓된 신앙과 미신, 인간중심의 조직체로 전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었던 바, 개혁을 위한 여러 현실적 여건들이 개혁운동의 기원과 발전을 가능케 해 주었다.

이상에서 말한 개혁운동의 수직적 차원외에도 수평적 차원에서 개혁운동의 원인과 배경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종교개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실 종교개혁의 원인에 대한 토론은 오늘날까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이미 볼크하르트(Jacob Burckhardt)가 말한 바 처럼 그 어느 설명으로도 종교개혁의 원인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다음의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중세교회의 부패

종교개혁의 원인일뿐만 아니라 가능을 가능케 했던 직접적인 요인이었던 것은 중세교회의 부패였다. 특히 중세 후기의 교회는 세속권력과 야합, 제물에 대한 탐욕으로 크게 속화되어 있었고 성직자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는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오도된 신학과 교리적 탈선, 불의한 제도와 이교적 의식과 더불어 성직매매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타락과 종교생활의 폐해는 심각했으므로 개혁은 불가피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천주교 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 한가지 예를 든다면 개혁운동의 초기 교황이었던 아드리아누스 6세(Adrianus VI, 1522-1523)는 신성로마제국의 니른베르크 국회(1522-1523)에 파견한 교황사절 프란체스코 치에레가띠(Francesco Chiericati) 추기경에 보낸 훈령에서 "루터 이단으로 교회가 받은 어려움의 책임은 성직자들, 특히 교황청과 그 성직자들에게 있다."고 시인하였다. 이 훈령은 1523년 1월 3일 국회에서 공개되었는데, ".....교회안에는 가증할 만한 폐습이 많이 있었으며, 이러

한 병폐들은 교황을 포함하여 성직자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의 타락은 1305년부터 1378년 사이, 곧 교황청의 바벨론 포로시대로부터 더욱 심각해졌는데, 이것은 로마교회의 재산이 이태리 귀족의 손에 넘어 간 후 아비뇽에 위치한 교황청이 심각한 재정적 결핍을 겪었기 때문이다.

소위 "돈 만드는 천재"(financial genius)로 알려진 교황 요한 22세(John XXII, 1316-1334)는 각종의 징세제도를 창안하여 돈을 모았고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가 창안한 징세제도는 교회질서를 극도로 문란시켰고 교황청의 사치를 가중시켰다. 교황 비오 2세(Pius II, 1458-1464)나 이노첸티우스 8세(Innocentius VIII, 1484-1492) 등은 도덕적으로 방종하여 사생아까지 두어 세인의 지탄을 받았던 교황이었다. 종교개혁 직전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Alexander VI, 1492-1503)의 타락은 그 이전의 교황과는 비견할 바가 못된다. 그는 당시 교회의 관행과 규율을 무시하고 방종한 생을 살았던 악명높은 교황이었다. 그는 교황이 되기 전에 이미 몇사람의 정부와 3남 1녀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었다(그후에 7명의 자식을 두었음). 1492년에 교황이 되었는데, 이 때도 그는 경쟁자들을 끊임으로 매수하였다. 그의 폭식, 음란은 극에 달하였고 일단 파티를 열면 녹초가 되기까지 먹고 마시고 즐겼다가 하여 역사가는 그의 '살인적 파티

우리가 중세교회의 부패를 말할 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타락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보다 심각하고도 근원적인 문제는 천주교의 오도된 신학과 교리적 탈선,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신학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lethal dinner parties)를 유명한 일화로 기록하고 있다(A.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Basil Blackwell, 1988, p. 3 참고). 그의 아들들도 '천재적인 난봉꾼'들(virtuosen des Verbrechens)로 알려져 있다. 프로렌스에서 교황청의 부패를 통박하고 교회개혁을 주장했던 도미니칸 수도사 사바나롤라(Savonarola)를 처형한 것도 알렉산더 6세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루터가 95조를 게재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Leo X, 1513-1521)는 사냥과 오락을 즐겼던 인물로서 매우 세속적인 교황이었다. 그는 교회내의 여러 개혁의 요구, 곧 에라스무스(Erasmus, 1466-1536), 로이힐린(J. Reuchlin, 1455-1522), 훗텐(Ulrich von Hutten, 1488-1523)의 개혁요구를 묵살하고 교황권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발행, 판매케 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발단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니콜라스 5세(Nicholas V, 1447-1455)에서 레오 10세에 이르는 10명의 교황을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를 그대로 르네상스시대에 그 영향을 받았던 자들로서 교회의 재산과 영토를

사유화하고 교회의 주요한 직책을 즉 별체제화한 과오를 범하였다. 즉 이들은 교회의 영적, 도덕적 지도자라기 보다는 불의한 세속군주였다.

우리가 중세교회의 부패를 말할 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타락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보다 심각하고도 근원적인 문제는 천주교의 오도된 신학과 교리적 탈선,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신학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주의(민족주의)의 대두와 교회체제의 붕괴

종교개혁의 역사적, 혹은 정치적 배경으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를 들 수 있다. 이미 14세기 무렵부터 민족국가(Nation state)들이 교황청과 제국하에서 이룩된 서부 유럽의 통합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중세는 하나의 국제적인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국가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교회가 하나의 국가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대두는 중세의 보편적 교회중심체제에 균열을 가져왔다. 즉 중세 말에 이르러 국가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점차로 발달하게 되자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등 서유럽 국가들은 인종, 언어 역사적 배경을 공유

하는 민족적 연대감을 기초로 왕권의 확립을 가져왔고 이러한 양상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대두를 촉진시켜 주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 한 가지 경우를 든다면 불란서 왕 필립 4세(Philip IV)와 교황 보니페이스 8세(Boniface VIII)의 대립을 들 수 있다.

필립4세가 전쟁비용 수급을 위해 교회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교황은 1296년(Clericis Laics)과 1302년(Unam Sanctam) 교서를 발표하고 교황의 허가 없는 징세를 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교황의 위협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필립왕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였다. 이것은 국가주의의 대두로 말미암아 불란서 의회가 필립왕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황권은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드디어는 불란서왕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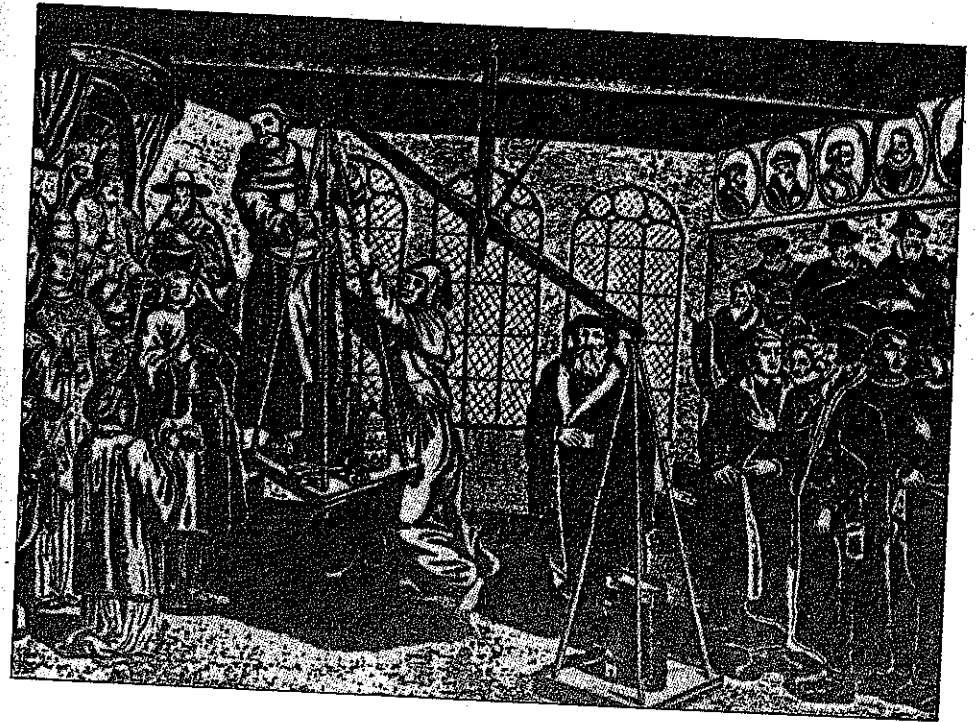
1305년 교황에 취임한 클레멘스 5세(Clemens V, 1305-1314)는 불란서 출신으로서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불란서의 아비뇽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 때로부터 1377년까지 70년간 아비뇽에 머물렀다. 이것은 교황이 불란서왕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 동안의 일곱명의 교황, 곧 클레멘스 5세, 요한 22세(John XXII, 1316-1334), 베네딕토 12세(Benedictus XII, 1334-1342), 클레멘스 6세(Clemens VI, 1342-1352),

이노첸스 3세(Innocens III, 1352-1362), 우르바누스 5세(Urbanus V, 1362-1370), 그레고리오 11세(Gregorius XI, 1370-1378)는 다 불란서인이었다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당내의 지식인이었던 단테(Dante, 1266-1321)와 인문주의자 페트라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는 아비뇽교황들을 불란서왕의 포로라고 하면서 "교황의 바벨론포로"라고 비꼬아 표현하였다.

이와같은 점들은 민족주의의 발흥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교황권의 퇴보와 중세질서의 붕괴, 곧 종교개혁의 한 원인을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1377년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돌아감으로써 아비뇽시대는 끝났으나 그의 사후 추기경단이 분열되어 후임교황선출이 지연되다가 1378년 우르바누스 6세(Urbanus VI, 1378-1389)를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교황 우르바누스가 추기경들과 불화를 빚게 되자 불란서와 에스파니아 추기경들은 교황선거의 무효를 선언하고 불란서왕의 사촌인 제네바 대주교 로베르(Robert) 추기경을 다시 교황으로 선출(클레멘스 7세, 1378-1394)하였고, 그가 아비뇽에서 취임하게 되자 교황청은 분열되었다. 이때로 1417년까지 40년을 교황청의 대분열기라고 부르는데 교황의 권위가 극도로 실추되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1409년 이탈리아 피사(Pisa)에서 열린 공의회는 당시 로마교황인 그레고리오 12세(Gregorius XII,



1406-1415)와 아비뇽교황 베네딕토 13세(Benedictus XIII, 1394-1422)의 퇴임을 전제로 하고 알렉산더 5세(Alexander V, 1409-1410)를 선출하였으나 곧 사망하였으므로 다시 요한 23세(John XXIII, 1410-1419)를 선출하였는데 전기 두 교황이 퇴임을 거부하므로 결국 교황은 세사람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교회는 극도로 분열되었고 세 교황은 각기 정통성을 주장하여 반대자들을 서로 파문함으로써 당시교회는 대부분 파문 상태로 있었다.

이상과 같은 민족주의의 대두 등 정치적 상황은 극도의 혼란과 분열 가운데 실추된 교황권과 더불어 개혁의 필요성을 확신시켜 주고 있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또 한가지 요인으로 인문주의운동을 들 수 있다. 흔히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문화운동은 1350년 북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15-16세기 영국, 에스파니아, 헝가리, 폴란드 네델란드 등 구라파전역으로 확산된 운동인데 중세적 인간관(Rational being)과는 달리 인간성을 고양하는 새로운 인간관(emotional being)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인본주의라고도 불리운다.

그래서 볼크하르트는 르네상스를 한마디로 '인간의 발견'(discovery of man)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 때의 르네상스운동을 다른 인문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르네상스 인문주의

특히 발라는 어거스틴연구에 몰두하였는데, 당시 읽혀지는 어거스틴의 작품 중 40% 정도는 후대의 첨삭으로 변조되어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충격을 주었다

(Renaissance Humanism)라고 일컫는다. 이 운동은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고전문학, 곧 희랍, 로마문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특히 이들은 1세기의 라틴어체, 곧 키케로(cicero)의 라틴어를 복구하려고 했다).

이러한 관심은 고전어 연구를 촉진시켰고 고전어연구는 성경원전에 대한 연구와 함께 문헌학(philology)를 발전시켰다. 이 점은 종교개혁을 예비하는 값진 봉사를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 1407-1457)였다. 그는 문헌비평학을 도입하여 오랜 세기동안 교황권을 지원해 주는 자료로 사용되었던 소위 '콘스탄틴 기증서'(Donation of Constantine)가 콘스탄티 황제시 생산된 문서가 아니라 8세기에 조작된 위조문서임을 고증함으로써 천주교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한 절씩 고백한 문서라는 전설의 허구성을 규명하였다. 특히 발라는 어거스틴연구에 몰두하였는데, 당시 읽혀지는 어거스틴의 작품 중 40%정도는 후대의 첨삭으로 변조되어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충격을 주었다. 말하자면 르

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중세는 '역사적 관점'(Historical Perspective)를 갖지 못했다. 문헌학 자체가 '역사적'학문임을 생각해 볼 때 르네상스운동은 새로운 과학적 방법, '역사적·비평적 방법'을 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원천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바 *ad fontes*, 곧 '원천에로의 복귀'(back to the Source)는 인문주의 운동의 중요한 이념이었다.

결국 인문주의자들은 고전연구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위해서도 기초적 공헌을 제공하였다. 인문주의가 중세교회와 스콜라신학을 정면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들의 역사 비평적인 문헌학 연구는 교황권과 스콜라신학의 붕괴를 촉진시켰으며 종교개혁을 위한 예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이들이 교황과 교직자들의 부도덕과 사치함을 비판하고 풍자한 일은 개혁의 대중적 동의를 가능케 했다. 이 당시 인구의 90%가 인문주의의 영향에 있었다는 보고를 참고해 볼 때 인문주의자들은 루터에 앞서 개혁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루터는 물론, 당시 개혁자들이 인문주의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신



교신대학부교수
(역사신학)

성경의 핵심교훈 2

원시시대의 십자가 I

박정택 / 본지주간 제일영도교회 목사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난 십자가

창세기 3:15에 나타난 '여인의 후손'은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며 약속이다. 최초의 복음이고 최초의 십자가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첫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 한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십자가를 생각해 보자.

첫째,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오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최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된 구원자 예수님과 십자가란 말이다. 그래서 구원의 설계자와 시발자(참시자)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다.

둘째,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와 원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구원자 예수님과 마귀의 사이는 물론이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도 마귀와 원수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마귀를 절대로 친구로 보면 안된다. 하나님과는 가까이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였다(약4:7).

셋째,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것인데(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사람은 여자이고, 처녀 마리아이다. 이사야7:14과 마태복음 1:18, 누가복음1:34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신학자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의심하고 부인 내지 불신하는 자들이 있으니 가소롭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리적 탈선

우리는 이미 종교개혁의 원인을 몇가지로 지적하였지만 여기서 좀더 부연해 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 불리우는 교회개혁의 불가피성을 15~16세기 당시의 중세교회의 부패에서 찾는데 이것은 결코 지나친 설명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되는 점은 교회의 부패를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당시교회의 신학적 혹은 교리

태를 감지할 수 있다. 더욱이 가관이었던 것은 당시 교회는 사생아를 둔 성직자들에게 취첩과 아이 양육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세금(concubinage fee)을 물게하여 성직자들의 비행을 묵과하였고 동시에 부를 축적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교회는 이와 같은 도덕적, 윤리적 부패와 더불어 교리적 혼란의 와중에 있었고 교회에는 각종 미신과 잡다한 이교적 풍습이 행해지고 있었다. 루이스 스피츠(Lewis Spitz)에 의하면 교회의 각종 신조들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가 시행하는 미사나 예배의식은 이교적 관습과 혼합되어 있었다고 했다.

특히 신학적 혼란과 탈선은 새로운 신학운동, 곧 비아 모데르나(Via Moderna)라고 불리는 윌리엄 옥캄(William of Occam, 1300-1349)을 따르는 유명론자들(唯名論, nominalists)과 비아 안티쿠아(Via Antiqua)라고 지칭되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를 따르는 실재론자들(實在論, realists)간의 대립으로 더욱 가중되었다.

신앙과 이성을 융합하려는 토마스의 합리주의적 신학은 13세기 이래 당시 교회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14세기에서 부터 프란체스코 신학자들은 토마스의 이성주의(理性主義), 곧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 최고의 기능이라는 견해에 대립하여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던스 스코투스(Duns Scotus, 1265-1308)의 신학을 주창하였다.

스코투스는 토마스의 이성에 대해

의지의 우위성을 강조했는데 이 견해는 프란체스코 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들은 후에 신앙과 이성을 완전히 분리해 놓음으로써 합리주의적 스콜라 사상의 기초를 붕괴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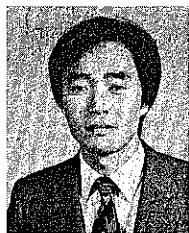
실재론자인 토마스는 실재론적 철학에 근거하여 신학과 교회의 구조를 설명하였던 바 개체(個體 individuals)는 우주적 실재(宇宙的實在, Universals)에 근거한다고 주장하고 교회나 국가는 다수의 개체의 집합체가 아니라 이보다 우선하는 보편적 실재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프란체스코 신학자들의 전통 속에서 성장한 옥캄은 장구한 세월동안 천주교회의 이념적 기초였던 토마스의 스콜라신학(Scholasticism)에 반기를 들고 참으로 실재하는 것은 개체뿐이며 보편은 이름뿐이라고 하여 소위 유명론(nominalism)을 주장하였다. 당시 교회는 토마스의 철학에 근거하여 개체보다 우선하는 보편의 실재를 믿는 보편교회를 주장해 왔으나 옥캄과 그 추종자들은 보편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당시 교회, 곧 전구라파를 포용하는 거대한 조직체는 이론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중세교회의 붕괴에 기여하였다.

루터는 옥캄의 유명론을 따랐던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 1420-1485)의 저서를 통해 비아 모데르나 신학을 공부하였다. 비록 그는 옥캄의 개인주의적 유명론 철학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보편은 이름뿐이며 실재하는 것은 개체라고 주장했던 옥캄의 신학(via moderna)에

성직자의 부패가 원인이 된 개혁

종교개혁의 원인을 말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종교적 각성, 곧 구라파 전역에 범람하는 물처럼 흘러 들어간 영적인 갈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 상 규
고신대교수
고신대와 대학원을 나왔다.

적 탈선(doctrinal deviation)이 교회개혁의 동기를 부여한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당시 교회, 특히 교직자들의 도덕적 상태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맡고 그 수입과 성직록을 독점하였던 소위 '겸직제도'(pluralism)나,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성당)에 있을 수 없으므로 겸직제도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었던 '부재직임제도'(不在職任制度, absenteeism) 등과 같은 제도적인 불의속에 잘 나타나 왔고, 15세기 말 이탈리아의 콘스탄츠 교구의 경우 연간 1500명에 이르는 사제(신부)들의 사생아가 태어났다는 기록만 보아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상

여러가지 외적인 요인이 종교 개혁의 원인이 되었고 또 종교 개혁을 이끌어간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영적인 갈망만큼 강력한 동력이 되지 못했다

많은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프란젠(A.Franzen)과 돌란(J.Dolan)이 공동집필한 **교회사요론** (*A Concise History of The Church*, New York, 1969)에서는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사상은 육감의 신화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p. 259) 쓰고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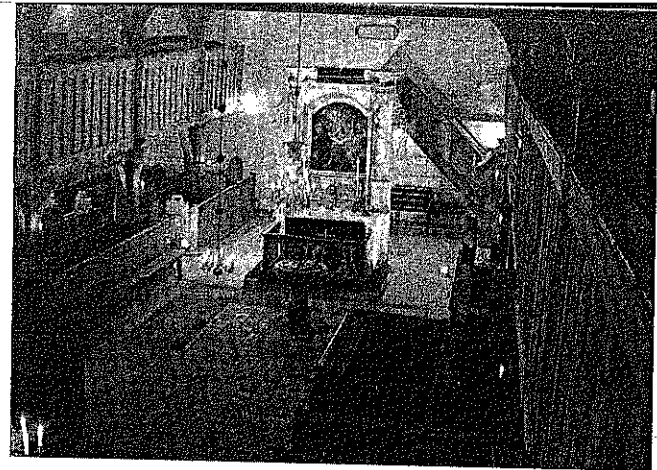
사회 경제적 배경

종교개혁의 발생에 대해 말할 때 비록 주 원인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당시의 경제적 상황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삶과 새로운 사회구조, 변화된 경제체제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켰던 바 이 점은 후일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국민적 기반형성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와 지도자들의 현실인식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12, 3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상업과 도시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던 바 15세기 말엽에는 부르주아집단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하였다. 또 중세의 중세 봉건제도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던 교회는 기득권 곧 기존의 계급체제 및 행정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수단을 사

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500년대의 유럽에는 6천500만 내지 8천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약 60명 이상의 왕들과 귀족들, 그리고 대주교등 교회지도자들이 지배계급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었고 농민과 노동자들은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 앞서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티르나젤(T.S. Tiernagel)에 의하면 15세기 말엽에는 적어도 85% 이상의 백성들이 피지배계급으로 심각한 경제적 빈곤 가운데 있었다고 했다.

스피츠에 의하면 당시 유럽토지의 3분의 1은 교회의 소유이거나 교회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산물중에서 70~80%를 지대와 세금, 헌금 등으로 영주나 교회에 바쳐야 했으므로 농민들의 생활상은 비참할 지경이었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은 1524년 폭발된 농민전쟁 때 루터의 동정을 구하기 위해 루터에게 제출한 12개 신조(1525)에 잘 반영되어 있다. 루터는 부(소유)는 분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핍절된 이웃을 위해 분배되지 않는 재물은 '소유하는 본성'(Nature of possession)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설교했으나 이기적인 악덕자본가들의 고리대금업은 그치지 않았고 소유하지 못한 계층을 더욱 깊은 가난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당시 교회 또한 탐욕의 화신이 되어 배금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배금사상, 곧 황금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상에서 면죄부라는 가공할만한 거짓이



1732년 43개 루터교회마을 신자들이 모여서 6개월동안 꾸민 교회실내

통용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런 형편에서 설교가 존 게일러 폰 카이저스베르크(Johannes Geiler von Kaysersburg, 1445-1510)의 "성직자들이 영혼을 낚는 어부 대신 영지를 낚는 어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적절한 것이었다.

결국 농민들과 노동자 등 대부분의 백성들은 정치적, 사회적 혹은 종교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요구는 종교개혁 운동의 확산에 소위 민중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남부지역보다 더 후진적이고 가난했던 독일 북부지역에서 더욱 큰 호응을 받았던 점은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영적 갈망

종교개혁의 원인을 말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종교적 각성, 곧 구라과 전역에 범람하는 물처럼 흘러들어간 영적인 갈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가지 외적인 요인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고 또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영적인 갈망만큼 강력한 동력이 되지 못했다. 특히 14세기 이후 중세는 여러가지 사

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빈번한 기근, 유럽인구의 5분의 2 가량의 생명을 앗아간 14세기 중엽(1347-8)의 흑사병, 1453년에 이르러 끝난 영국과 프랑스간의 100년전쟁, 후스전쟁(1419-1435)과 장미전쟁(1455-1485) 등과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회교도들의 지속적인 위협 등과 같은 정치적 불안은 경제적 빈곤과 짝이 되어 사회불안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는 앞서 이미 언급한 바처럼 도덕적, 영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영적 운동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속화된 교권적 체제나 의식주의적 종교에서 영적 기갈을 채울 수가 없었다.

이러한 종교적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소위 '마술적인 경건'(Magical piety)이라고 불리우는 성자숭배, 성물 혹은 성자들의 유품 숭배, 성지순례 등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신앙부흥 운동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오도된 경건 추구였으므로 정당한 의미에서 영적 기갈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종교적 열정은 뜨거웠으나 이것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영적 계도력은

상실되어 있었고 불란서 교회사자인 델루메오(Delumeiax)의 말처럼 성직자의 수는 많았으나 성직자의 질적 수준은 한없이 낮았다.

14세기에 나타난 신비주의운동 혹은 신비신학은 일면 종교적 갈망의 표현이었다. 교권적 체제를 벗어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추구했던 이 일련의 신앙운동은 교회개혁적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예크

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7), 타올러(Johann Tauler, 1300-1361) 등에 의해 기원된 신비주의는 독일, 특히 라인강 지역에서 크게 전파되었고 후에 불란서, 네델란드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신령한 영적 생활을 갈망하던 노력은 네델란드에서 헤에르트 흐로테(Geert Groote, 1340-1384)에 의해 '오늘의 헌신'(Devotio Moderna)운동으로 나타났고 후일 '공동생활 형제단'

(Fratres communis vitae)으로 발전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은 바로 영적 갈망의 표현들이었다.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15세기 유럽에서는 영적 갈망, 곧 새롭고도 참된 종교적 부흥을 고대하였었다. 당시 교회가 이 범람하는 영적 갈망을 해결해 주는데 실패했다는 이 점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고 종교개혁 운동의 확산과 지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유럽

의 들판에 영적 기쁨으로 인한 기갈이 심화되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복음주의적 신앙은 유럽의 대지를 축축히 적셔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16세기 개혁자들은 그 이전 시대부터 미미하게나마 계속되어 오던 교회개혁의 의지들을 유산으로 하여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거룩한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시

목회어담

안성맞춤인

90년 10월 21일 주일 밤, 미국 필라델피아 재1장로교회(김만우 목사)에서 어버이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밤예배 참석자가 200명 가량이고 어버이회원(재적 50명)이 21명이었다. 호명하면 대답 대신 일어나서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라고 시편 1편을 암송하는데 그 중 91세의 노권사님이 포박도박 암송하여 교우들로부터 부끄러움과 부러운 눈치를 샀다.

이야기인즉 교회 내에서 성경암송대회를 하면 어느 부서보다 많이 출전하는 팀이 어버이회이며 삼도 독차지하는 등 지난 여름 영여성경암송대회 때에는 80에 가까운 어느 노권사가 당당 입상, 전교인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

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부지런한 어르신들이 교회 내의 넓은 땅 약 1,500평의 황무지를 개간 무우, 배추, 상치, 파, 들깨, 수박, 참외, 토마토, 고추, 토란, 호박, 도라지, 쌀기, 부추 등을 재배하여 89년에는 약 만불의 순익으로 예배당 건축헌금을 했고, 금년도는 15,000불 수입예산을 세워 성지순례할 꿈에 부풀고 있다는 것이다. 농장 채소로 김치를 담고 바자회를 열기도 하고 매일 아침 회원들이 농장에 나와서 두세 시간 일하는 재미로 세월가는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가을 배추와 무우가 워낙 크고 좋길래 비료와 농약을 썼느냐고 물었더니 땅이 비옥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

백발의 강사

나 옛날 젓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오늘의 미국인가 싶다.

그리고 매월 한번씩 월례회가 있는데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대접을 하고 봄 가을은 워싱턴이나 뉴욕 등지에 나가 관광도 즐긴다는 것이다. 노인대접을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필라델피아 노인회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고 신문에 나기도 하니 외로운 노인들이 부러워서 교회에 찾아오고 자녀들도 함께 나와 믿게 된다는 것이다.

토요일마다 노권사님들 중 철야기도회를 갖는데 뜨거운 기도에 80에 가까운 임앵래 모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약 한달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완치되어 출석을 한다고 한다. 이것이 이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회장인 변찬순 장로는 70이 넘었으나 차를 몰고 다니며 권총이 난무하는 흑인가에서 내외가 사업체 두 개를 경영하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은 분명히 주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두 시간 반이나 걸린 예배에 지루한 줄 모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는 감탄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들은즉 새벽에 한 시간, 낮예배 두 시간 반, 오후 선교특강 한 시간 반, 월례회 성경문답집 공부 한 시간 반, 그리고 저녁예배 두 시간 반이니 이 어찌 은혜가 아니고야 감당하겠는가!

아무튼 60세가 넘는 어버이들의 헌신예배에 백발인 내가 감사노릇을 했으니 그들과 나는 안성맞춤이었다.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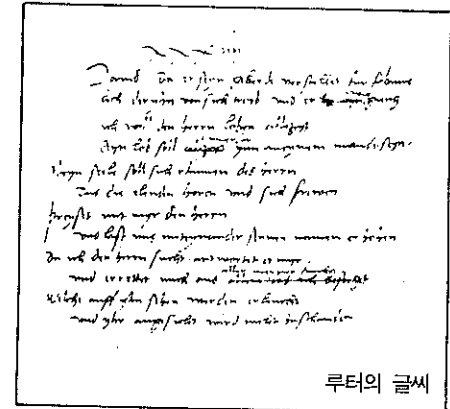
비록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변혁을 의도하지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개혁운동은 1517년 루터의 '95개조 사건'으로 부터 시작되었고, 루터는 이때로부터 거의 30여년간 이 개혁운동의 주도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에 관한 논의를 루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아이스레벤(Eisleben)이란 곳에서 7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날, 곧 성마틴(st.Martin)일 피터교회(Peter's

(Brüder vom Gemeinsamen Leben)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01년 5월에 에르푸르트(Erfurt)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 대학은 1392년에 설립된 명문대학으로 특히 문과와 법과, 그리고 신학부는 독일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었다. 당시 이 대학은 유명론철학(Occamism, 곧 via Moderna)으로 유명했는데 루터는 이대학에서 옥캄의 후예인 비엘(G. Biel)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또 비엘의 제자들로부터 학문을 터득하여 루터의 지성은 유명론철학에 의해 형성되었다. 1502년에는 이 대학으로부터 학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당시 57명중 13등으로 졸업했다고 한다(그러나 루이스 스피츠는 42명중 30등이었다고 쓰고 있다). 3년뒤인 1505년에는 문학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때는 17명중 제2위의 성적이었다고 한다. 문학석사과정을 마친 루터는 그해 5월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에르푸르트대학에서 법률공부를 시작했으나 그리 만족스러운 연구가 되지 못했고 얼마후에는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어거스틴과 수도원에 들어갔다.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1505년 7월 2일 에르푸르트 근방 스토턴하임(Stottternheim)이라는 곳에서 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이때로부터 이주일 후인 7월 17일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이다. 루터가 법률공부를 포기한 것은 죄의식 때문이었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죄의식과 더불어 죽



루터의 글씨

음의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짧은 견습의 과정을 마치고 1506년 수도(修道)의 맹세를 했고, 그 이듬해 곧 1507년 2월 27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때에 루터 자신이 읽었던 서약문은 천주교회의 예배 의식, 교리, 교회의 제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루터 자신도 "이 서약문에 너무도 감동된 나머지 가슴이 벅차 올랐다"고 술회했다. 천주교회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쳐 헌신하기로 서약하고 신부가 되었으나 후일 이 교회를 사악한 교회로 규정하고 교회개혁의 봉화를 들게 됐다. 이 사건은 그의 생애에서 크나큰 전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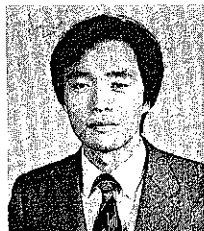
수도원에서 루터의 생활은 신학수업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교리사, 교회사, 그리고 조직신학공부에 몰두하였고, 이때에 주로 탐독했던 책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 1100~1160)의 저작 센텐치아(Sententia)와 아퀴나스의 제자로 유명한 학자였던 에기디우스 로마누스(Aegidius Romanus)의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 관한 연구서 그리고 비엘(G.

루터와 독일에서의 개혁운동 I

루터가 법률공부를 포기한 것은 죄의식 때문이었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죄의식과 더불어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church)에서 영세를 받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루터의 가족은 1484년 봄 만스펠트(Mnsfeld)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루터의 학교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루터는 대학에 입학하기전 세 곳, 곧 만스펠트(Mansfeld, 1488~), 마그데부르크(Magdeburg, 1497~), 그리고 아제나흐(Eisenach, 1498~)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세 학교는 루터에게 중세교회의 경건과 함께 라틴어 등 기본교육을 제공하였는데, 루터가 14살 되던 해인 1497년 그의 사촌형과 함께 마그데부르크로 옮겨갔는데 비록 이곳에서 1년간 체류하며 교육을 받았지만 이른바 '공동생활 형제단'



이 상 규
고신대 신학과 교수

Biel)의 신학서적들이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루터는 비엘을 통해 옥감의 유명론철학을 배웠는데, 비엘과 옥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구원을 위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탐구할 때 인간이성의 제한성을 강조하면서 교리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권위를 중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간에게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은 조건적인 공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비적 은혜(prevenient grace)에 힘입어 거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였다(Lewis Spitz, 종교개혁사, etc. p. 60참고). 정리해서 말하면 성화된 생활과 선한 행위, 즉 온전한 공로의 기초 위에서 인간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이론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수도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고해성사를 드려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번민할 때 그에게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수도원 원장이자 비텐베르크대학 교수였던 스타우피츠(J. Staupitz)였다.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스타우피츠는 루터의 이런 번민의 날들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스타우피츠는 루터를 뛰어난 지력과 종교적 열심을 갖춘 유능한 청년으로 인정하고 비텐베르크대학에 교수가 되도록 선제후 프레데릭에게 천거하였

그러나 루터는 온전한 공로의 기초 위에서 인간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이 이론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다. 비텐베르크대학은 1502년 설립된 신설대학으로 당시는 소규모의 대학이었다. 루터는 1508년부터 이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것이다.

1508년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강의를 시작으로 하여 1509년 3월 신학사(Baccalaureus Biblicus) 학위를 수여받은 후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센텐치아 등을 강의하였고 1509년에서 1511년 어간 에르푸르트에 잠시 거주한 일 외에 루터는 그의 대부분의 생애를 비텐베르크에서 보냈다.

1512년 10월 루터는 비텐베르크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또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Licentia Magistralis)을 얻은후 비텐베르크대학에 정식으로 교수가 되었다. 이제 루터는 성경을 교수할 수 있는 자유와 의무를 지니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루터의 대부분의 강의는 성경신학분야였다.

루터는 대학 동쪽에 위치한 어거스틴과 수도원의 작은 연구실에서 연구와 숙식을 하였던 바 이 작은 공간은 루터의 생애를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간 개혁의 선구자로 인도해 갔던 교회개혁의 진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수동적인 의로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덧입는 의'(imputed grace)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원지가 됐던 것이다. 루터는 이곳에서 구원에 관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였고, 이 고민을 성경연구를 통해 복음적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소위 '탐색의 경험'(Turmerlebnis)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루터가 언제 오랜 번민과 갈등의 터널을 통과하고 종교개혁신학의 핵심인 복음적 구원관을 터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견(異見)이 상존하고 있지만, 1515년에서 1516년 어간에 저술한 로마서 강의에 보면 1519년에 쓴 갈라디아서 강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복음주의신학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루터의 '탐의 경험'은 적어도 1515년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비텐베르크대학의 교수로서 루터는 처음에는 시편을 강의하였고(1513~1515), 1515년에서 1516년에는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강의를 위한 연구를 통해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과 통찰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지만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은 로마서 1장 17절을 주해하면서 일어났다. 이제까지 루터는

'하나님의 의(義)'를 능동적이고 보복적이며, 인간들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도록 본질적인 의(essential righteousness)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수동적인 의로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덧입는 의'(imputed grace)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루터의 이 사상적 우산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혁명적 진실이었다. 루터는 후일 이 새로운 발견의 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과 같은 감격을 체험하였으며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루터는 1516~1517년에는 갈라디아서를, 1517~1518년에는 히브리서를, 1519년에는 다시 시편을 강의하고 주해했는데 이제 루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명확한 논리로 그의 신학을 전개했던 바, 이 새로운 진리의 발견은 수많은 학생들과 동료들을 매료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1516년 루터는 시편 강해와 로마서 주석을 끝냈는데 이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들의 성경연구와 어거스틴 연구는 대학 전체의 관심사였으며 하나님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전개되어 갔다. 이제 스킨라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러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정말 이때는 가까이 오고 있었다.

루터와 독일에서의 개혁운동 II

이 상 규 / 고신대학교수

1517년 10월 31일은 루터 개신교에겐 물론 서구 역사에서의 커다란 변혁의 시작이었다. 루터는 이날 소위 '95개조'(The Ninety-five theses)라고 불리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신학적 토론을 제안하는 문서를 그가 봉직하는 비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에 부착한 것이다.

당시 교황 레오10세(Leo. X)는 로마의 성 베드로성당 증축을 위해 전임 교황이었던 율리우스2세(Julius II, 1503-1513) 때 공포된 면죄부 판매령을 시행하여 1515년부터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다. 사실 면죄부의 역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십자군 전쟁, 교황 클레멘트 6세의 칙서(Unigenitus, 1343) 등을 통해 강조되어 왔고, 교황 칼릭투스(Calixtus)는 1457년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면죄부에 의해 구원이 가능하다고 선언하였고, 교황 식스투스 4세(Sixtus IV)는 1476년 공포한 칙서를 통해 연옥의 고통해제의 대상을 죽은자만이 아니라 산자에게도 확대시켰다. 이러한 배경

에서 면죄부 판매는 종교개혁 당시 거의 유럽전역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당시 교회는 1343년 교황 클레멘스 6세가 내린 칙서에 근거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무한한 피의 공로, 마리아의 공로, 그리고 많은 성자들의 공로는 마치 은행에 예치된 무한한 자본과 같아서 다른사람의 형벌을 보상해 주고도 남는다고 하는 소위 '잉여공로설'을 믿고 있었다. 이 잉여공로설의 요지는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자들의 선행(善行)이 자기자신을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벌(Poena)을 속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점차로 돈이 개재되었는데 처음에는 가난하자, 병든자들이 돈을 냄으로써 형벌을 면케 되었으나 급기야는 세속화되어 면죄부의 공개적인 판매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당시 교황 레오10세는 독일지역에서의 면죄부 판매를 위해 마인쯔(Mainz)의 대주교였던 알브레히트(Albrecht, 1490-1545)에게 위임하였는데 그는 여러 성직을 겸임한 자로서

면죄부 판매 수입으로 교황에게 진 빚을 갚도록 내락 받았다. 루터가 활동하고 있던 비텐베르크와 인접한 지방에서는 요한 테첼(Johann Tetzel)이라는 도미니코 수도사가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 앞에서 루터는 면죄부의 부당성을 설교하였고 마인쯔의 대주교 알브레히트와 브란덴부르크의 대주교 슐츠(Schultz)들에게 편지하여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나 변화가

타당성을 결의하는 대규모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95개조의 내용은 라틴어로 작성된 것이었는데 면죄부가 신자의 영혼구원과 성화(聖化)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과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는 면죄부 없이도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면죄부제도의 해악을 지적한 기념비적인 문서가 되었다.

루터의 95개조는 불과 2주안에 독일

“
잉여공로설의 요지는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자들의 선행(善行)이 자기자신을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벌(Poena)을 속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점차로 돈이 개재되었는데 처음에는 가난하자, 병든자들이 돈을 냄으로써 형벌을 면케 되었으나 급기야는 세속화되어……”

“
없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성격, 효과, 부당성, 문제의 심각성 등에 대한 토론을 제시하는 95개조를 게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Opus bonum)로 구원 받는다고 설교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루터가 10월 31일에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개조를 게시한 것은 그 다음날인 11월 1일에 작센(Sachsen)지방의 전제후들과 귀족들, 신부들이 비텐베르크대학 교회에 모여 면죄부 발행의

“
전역에 퍼졌고 한달만에 전 구라파에 보급되었다. 루터가 의도하였던 토론은 열리지 못한채 심각한 논쟁이 전개되어 간 것이다. 11월 1일의 대규모의 행사를 주관했던 테첼은 이 행사가 루터의 95개조 사건으로 무산되자 자기의 스승이었던 코흐(Konrad Koch)박사를 찾아가 루터와 대결할 학문적인 준비를 서둘렀고 이듬해인 1518년 1월 도미니칸수도회 총회에서 106개조에 달하는 항목으로 루터를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아 교황에게 파문을 요청키로 결의하였다. 이때 루터는 브란덴부르크의 슐츠 주교를 찾아가 95개조에



루터는 어떤 도시에서 자기 저서를 불태운다는 소식을 듣고 1520년 12월 10일 교황의 교서를 다른 천주교 법진들과 함께 불태웠다.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시 피력하고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요한 마일 엑크(Johann Mayr Eck, 1486-1543)는 루터의 절실한 친구이자 신학이념을 같이 했었으나 도리어 테첼 편에서 루터를 공격하였는데 이것은 루터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잉골스탁트(Ingolstadt)대학 교수였던 엑크는 이때로부터 루터의 가장 집요한 적수가 되었는데, 그는 오벨리스크(Obelisks)라는 책을 써서 루터의 95개조를 비판하고 루터는 후스(J. Huss)의 사상을 따르며 교황의 수위권을 반대하는 이단이라고 공격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인쇄용어로 별표(*)란 의미를 지닌 아스터리스크(Asterisks)라는 이름의 책을 써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신학논쟁의 시작이었다. 교황은 어거스틴과 수도회 책임자인 가브리엘 볼타(Gabriel Volta)를 통하여 스타우피츠에게 루터문제 해결을 지시하였다.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1518년 4월 하이델베르크에서 모인 어거스틴과 수도회 총회에 40개 항목의 논제를 제

출하고 토론에 임했는데, 이것을 가르쳐 흔히 '하이델베르크 논쟁'(Heidelberg Disputation)이라고 한다. 여기서 루터는 바울과 어거스틴 신학에 의존하여 스킨라주의적 주지주의(主知主義) 신학을 비판하였다. 이때 제출된 루터의 논제는 그가 1513년 시편강의를 해온 이후 형성된 그의 성경주석에 근거한 교리적 작품으로 루터의 복음주의 신학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이 토론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복시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후일 그와 함께 교회개혁운동의 동료가 된 세 사람의 젊은 신학자를 얻게 된 일은 루터에게 커다란 기쁨이었다.

마틴 부처(Martin Butzer 혹은 Bucer)는 하이델베르크의 도미니크수도회 소속이었으나 아퀴나스의 신학을 버리고 인문주의를 따르던 인물이었다. 그는 루터의 논쟁을 보고 복음주의 신학자가 되었다. 그는 후일 스트라스버그의 개혁자가 되었고 칼빈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된 것이다.

또 한사람은 요한 브렌츠(Johann Brenz)였는데 그는 독일 남부지방에서 루터의 신학을 보급하였고 슈바벤

(Schwaben)지방의 개혁자가 되었다. 다른 한 사람은 빌리카누스(Theodore Billicanus)로써 그는 뇌르틀링겐(Nördlingen)의 개혁자가 되었던 바이들 젊은 루터파 신학자들을 통해 복음주의 신학은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

1518년 하이델베르크에서 돌아온 루터는 95개조항에 대한 해설(라틴어 원제는 *Resolutiones disputationum de indulgentiarum virtute*)이란 글을 써서 교황에게 보내며(1518년 6월) 교황의 권위에 순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교황청은 루터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직후였는데 루터의 범죄가 뚜렷하다고 보여져 루터는 이단과 교황 모독죄로 고소되었다.

그해 8월 7일에는 루터는 로마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고, 교황은 독일주제 교황 대사인 카제탄(Thomas Cajetan, 1465-1534) 추기경에게 루터를 체포하도록 지시하였다. 카제탄은 1518년 7월 7일 아우그스부르크(Thomas Cajetan, 1465-1534) 추기경에게 루터를 체포하도록 지시하였다. 카제탄은 1518년 7월 7일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에 도착하여 국회를 통해 정치적으로 루터를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정치적 상황은 루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당시 교황은 황제 막시밀리안과 견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선제후들의 지지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교황은 선제후 프레드리히(Frederich)의 요청을 받아들여 루터가 로마로 가지않고 아우그스부르크에서 카제탄과 변론하도록 허

락한 것이다. 카제탄은 교황의 지시사항 세가지, 곧 모든 것을 취소할 것을 약속할 것,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지 말것, 거룩한 카톨릭교회의 평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루터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카제탄과 신학논쟁을 전개하였다.

이때 루터는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여 교황권위, 공포사상, 성례의 문제 등에 대해 그의 사상을 전개하였고 카제탄은 교회의 권위에 근거하여 그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 두사람은 각기 다른 출발점 위에서 이론을 전개했으므로 논쟁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토론에서 위협을 느낀 루터는 10월 20일 밤 몰래 아우그스부르크를 떠났다. 이와같은 신학적 토론과 개혁정신의 보급의 과정에서 점진적인 변화는 루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즉, 1519년 1월 12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누스는 사망하였고, 그의 손자인 찰스5세(Charles V)가 1519년 6월 18일 황제로 취임하였다. 찰스 5세는 1500년 생으로 그의 나이 약관 19세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일어를 모르는 스페인 사람으로서 독일내정에 깊이 개입할 수 없었다. 이점이 다소 루터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1519년 7월에는 라이프찌히에서 엑크와 루터, 그리고 칼슈타트사이의 신학토론이 전개되었는데 이 토론을 흔히 '라이프찌히 논쟁'(The Leibzig Debate)이라고 부른다. 엑크는 이미 1500년에 잉골스탁트 대학에서 교의학

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표적인 학자였고 루터와 비견되는 학자였다. 칼슈타트(Carlstadt)는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Andreas Bodenstein)이란 이름으로도 불리었는데 루터의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루터를 훌륭한 학자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태리에서 어거스틴 연구를 마치고 돌아온(1516) 이후 1518년에 151개 항목의 논제를 써서 엑크에게 도전한 바 있는 학자였다.

이 논쟁에는 후일 루터의 후계자가 된 벨랑톤도 참가하였는데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세가지, 곧 교황의 신적 권위, 연옥교리, 면죄부와 고해성사였다. 이 논쟁에서 루터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므로 성경보다 교황의 우위성을 말하는 것은 잘못임을 말하고, 교황의 신적권위를 주장하는 엑크를 공격하였다.

엑크는 콘스탄스(Constance) 회의(1415)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위클리프와 후스의 이단이 루터를 통해 다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후스를 버리든지 콘스탄스 교회회의의 권위를 부인하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하였다. 루터는 교회회의도 과오를 범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후스를 처형한 것은 오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토론에서는 루터는 '오직 성경'이라는 성경권위와 성경중심사상에서 논쟁을 이끌어갔고 교부들의 권위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제 개혁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밝아오는 역사의 대낮과 함께 오랜 세월동안 어두움 속에

묵인되어 왔던 교황의 절대권, 공로사상, 성례전적 미신들은 심한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교황청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1520년 6월 15일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교서, 곧 Exsurge Domine를 공포하였다.

이 문서는 "주여 일어나셔서 당신의 소송사건을 재판하소서"라는 말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단어)인데 준과 문적 경고의 교서였다. 교황청은 루터가 1520년 6월에 쓴 로마교황청에 관하여(On the papacy at Rome)에서 41개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60일내로 루터가 그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응시에는 과문장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였다. 루터는 이에 불응하였다. 어떤 도시에서 자기 저서를 불태운다는 소식을 접한 루터는 1520년 12월 10일 교황의 교서를 다른 천주교 법전들과 함께 불태웠다. 그리고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대들은 진정으로 교황의 지배하에서 떠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므로써 양심에 짐을 지우는 것 보다 차라리 모든 위험을 참고 견디려 합니다."

그의 말처럼 루터는 그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더 많은 날들을 견디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서 잠시 루터가 1520년에 썼던 세가지 중요한 문서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첫째로는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이라는 소논문인데, 이 책에서 루터는 교회개혁의 책임은 성직자들에게 있으나 그들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의 귀족들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개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곧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세가지 벽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곧, 영적 문체에 있어서 교황의 절대권,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 교황만이 교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였다. 이 소책자는 1520년 8월에 출판되었다.

두번째로는 교회의 바벨론 감금(Von babylonischen Gefaengnis der Kirche)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루터가 쓴 천주교의 성례전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서이다. 특히 천주교가 가르치는 7성례 중 성경적 근거가 없는 다섯가지 성례, 곧 견신례(confirmatio), 고해성사(penance), 종유식(Extreme unction), 서품식(Orders), 혼인예식(Marriage)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신자들에게 잔을 돌리지 않는 것과 미사를 희생제사로 가르치는 점을 비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루터는 이 글에서 성찬에 있어서 공재설(共在說)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1520년 10월에

출판되었다.

세번째로는 그리스도인 자유에 관하여(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라는 글인데 이 글에서는 그리스도인에서 믿음으로 얻는 자유에 대해 논하였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것에도 종속되지 아니한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은 만민에게 봉사하며 섬기며 모든 것에 종속된다."라는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는데 루터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루터는 참된 신앙은 영적 노예상태에서 신자를 해방시키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다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상의 세 편의 글을 흔히 종교개혁의 삼대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위의 세 편의 글 외에 1520년 5월에 쓴 선행에 관하여(Von den guten Werken)도 귀중한 작품이다. 이 책에서 루터는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설명하고 공로사상을 배격하였다.

1520년은 독일 종교개혁 운동사에서 중요한 한해였다. 각종의 신학토론과 출판이 계속되었고 교회개혁의 불길은 인쇄술에 힘입어 전 구라파로 신속히 전파되고 있었다. 루터가 자기의 입장을 취소하지 않고 교황의 교서를 불태웠을 때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즉 1521년 1월 3일 교황은 루터를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최후의 과문장, 곧 Decret Romanum Pontificem을 공포한 것이다. 이제 루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넜고 교회개혁의 출애굽 사건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고지**

루터와 독일에서의 개혁운동Ⅲ

- / 4월26일 루터는 보름스를 떠나 귀로에 올랐다.
- / 안전보장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 / 루터를 지지했던 선제후 프레데리히는
- / 은밀히 루터를 빼돌려
- / 바르트 부르크성으로 데리고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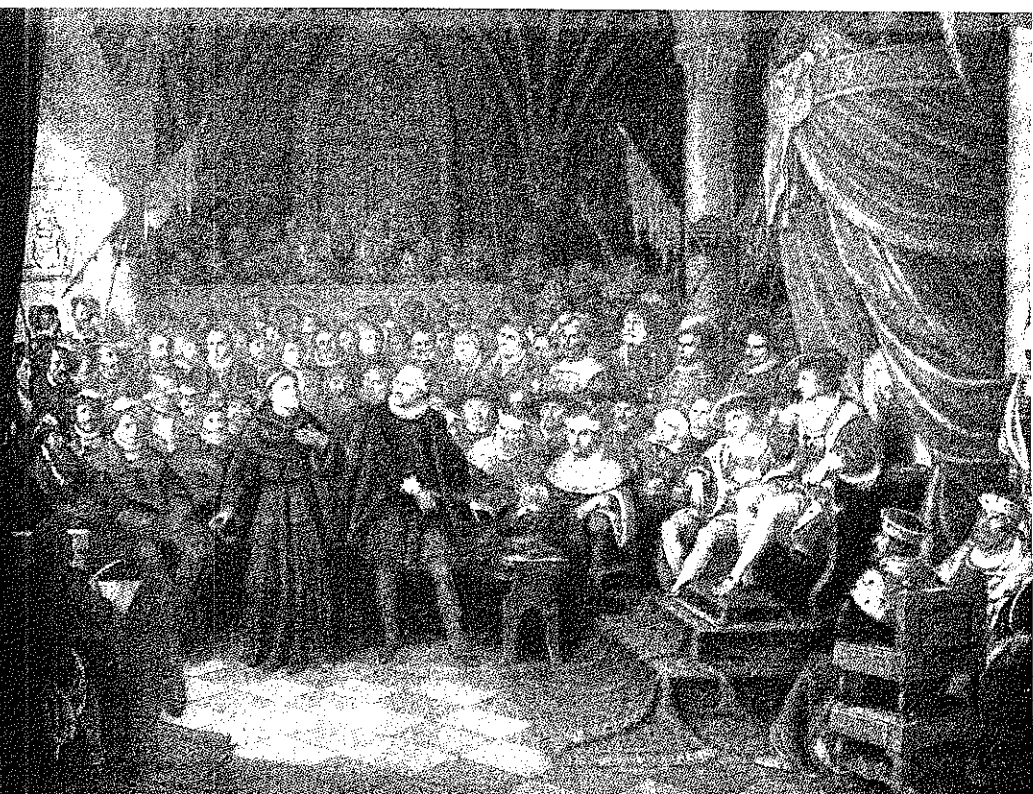
이 상 규 / 고신대학 교수

1521년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은 루터는 이제 황제의 심판석 앞에 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의 국가 교회적 성격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던 정치적 이해관계는 루터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하기로 한 것이다. 교황은 루터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황제와 독일 영주들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므로 각종의 정치적 책략과 술수를 동원하였고, 황제는 프랑스의 프란시스 I세와의 정치적 대립때문에 루터를 미끼로 하여 교황 레오10세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바, 이와같은 일련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결국 1521년 3월 6일 루터를 보름스제국 의회에 소환하는 문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정부는 신변보장을 약속하였으나 루터의 지지자인 선제후 프레데리히 등은

과거 요한 후스(John Hus)의 경우를 거울삼아 보름스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복음을 불경건한 자들의 조소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 보름스로 가기로 작정하고 4월 2일 비텐베르크를 떠나 보름스에 이르는 약 700km의 긴 여정에 올랐다. 보름스에 도착했을 때는 4월 16일이었고 이때는 이미 제국의회가 열리고 있었다.

루터가 제국의회에 출두한 날은 그 다음날인 17일이었다. 제국의회에는 황제인 찰스 5세, 일곱명의 선제후들, 추기경 등 교회지도자들, 지역의 관리들, 외국의 대사 등 지도적 인물들이 대거 참여한 회의였고, 약 5000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회의장 안팎에 운집하고 있었다. 이 회의는 루터의 사활문제가 판가름나는 법정이나 다를 바 없었다.



루터는 “복음을 불경건한 자들의 조소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 보름스제국의회에 소환에 응했다.

트리에르(Trier)의 주교 서기인 요한 엑크(루터의 라이프찌히에서의 논적, 요한 엑크와 동명이인이다)는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는 제국회의 석상의 탁자위에 수집해 둔 책들이 루터자신의 저서들임을 인정하는가, 둘째는 그 책의 내용을 철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루터는 그 책들이 자신의 저서임을 인정하였으나 두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24시간을 허락받은 루터는 하루를 보낸 후 4월 18일 제국의회에 출두하였다. 그는 자신의 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교리적, 혹은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신의 입장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즉 그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따라 확신을 갖게 되지 않는 한……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역하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아주 오래된 초기 기록에는 루터는 독일말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의 답변을 끝냈다고 기록하였다. 즉 루터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소서. 아멘”(Hie stehe ich. Ich kan nicht anders.

Got helffe mir. Amen).

비록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았으나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보름스에 도착하였고, 4월 17, 18일 양일간의 제국의회에서는 두려움없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그의 행동과 그의 양심은 “말씀에 사로 잡혀 있었고” 그의 대답은 이 확신에 대한 내적 고백이었다. 그래서 그는 1천년동안이나 구라파교회를 지배해 오던 국가권력과 교황의 권위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프로테스트(protest)할 수 있었다. 루터에게 있어서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양심이었다. 한국의 많은 신자들은 Coram Deo(코람 데오)란 말이 칼빈의 용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루터가 즐겨 표현했던 용어로서 ‘...앞에서’란 뜻의 라틴어 Coram은 ‘...와 함께’라는 뜻의 Cum과 ‘입’이란 뜻의 or의 합성어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입, 곧 고백이었다.

루터의 답변이 있는 다음날인 4월 19일 황제 찰스 5세는 스스로 작성한 연설을 통해 일천년동안 신봉해 온 로마교회의 전통을 수호할 것과 루터를 억압할 것을 천명하였다. 즉 그는

“우리는 어제 루터의 연설을 들은 후 그를 처단하는데 주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다시는 듣지 않겠습니다.……금후 나는 그를 공공연한 이단자로 간주할 것이며, 여러분도 신자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국의회는 결정되었다. 그러나 ‘보름스칙령’이 발표된 것은 이로부터 40여일이 지난 후였다. 즉 5월 6일 보름스국회에 파송된 교황 사절 알레안더(Aleander)에 의해 작성된 최종적인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지연되다가 루터를 정죄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고 5월 26일 공포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칙령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루터는 교회를 더럽히고 참회를 무시한다.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부정하였다.

……수도사의 복장을 한 이 악마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를 모아 놓은 자이며 그는 ‘열쇠의 권위’를 부정하고 평신도로 하여금 성직자의 피로 손을 씻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가 가르치는 교리는 반란, 분열, 전쟁, 살인, 강도, 방화 및 교계의 붕괴를 조장한다. 그는 짐승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령(敎令)을 불태웠다…….

그는 4월 15일 부터 시작하여 21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루터는 이제 유죄판결을 받은 이단으로 간주된다.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처소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의 추종자들도 그와 같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루터의 저술들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져야 한다.”

보름스칙령은 루터에게 거처를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나 어

종교개혁시대 독일의 도시들



편 형태의 도움을 주는 행위를 금하였고 이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황제 모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루터를 '주님의 포도원의 야수'라고 했던 교황 레오10세는 즉각적인 처단을 기대했으나 루터는 이제 무명의 수도사가 아니라 구라파전역에서 직간접적인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었고, 수많은 농민들의 묵시적 지지를 얻고 있었다. 밤사이에는 보름스시내 도처에 루터를 지지하는 농민들의 대자보가 붙는 일이 적지 않았다.

4월 26일 루터는 보름스를 떠나 귀로에 올랐다. 안전보장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루터를 지지했던 선제후 프레데리히는 은밀히 루터를 빼들려 아이제나흐 주변에 있는 바르트부르크(Wartburg)성으로 데리고 갔다 (루터 일행을 비밀리 체포하였던 이곳을 오늘날 Lutherhuche라고 부른다).

사실 루터는 선제후 프레데리히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후원을 받고 있었다. 프레데리히는 신성로마제국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주는 자기백성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중세적 신념을 굳게 고수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프레데리히는 자신의 정치적 수완을 통해 루터를 교황과 황제 양측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였고, 1518년부터 1521년 여간의 정치적 발전들은 루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래서 루터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개혁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갈 수 있었던 것

이다. 루터는 이번에도 또 한번 프레데리히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이때의 루터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명한 화가였던 알프레드 뉘러(Alfred Düler)까지도 황제의 앞잡이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갔을 루터의 운명을 슬퍼했을 정도였다. 사실 루터는 보호받기 위해 체포되었고 감금되었을 따름이다.

루터는 1521년 12월에 잠시 비텐베르크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1522년 3월까지 10개월동안 이곳에 체류하였다. 이곳에서 루터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 기사(騎士)로 변장을 하고 '웅케르 게울그'(Junker Georg)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유명한 화가 루카스 그라나흐의 1521년도 작품인 '웅케르 게울그'는 바로 루터에 대한 작품인 것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루터는 이곳에서 지내는 9개월동안 신학적 논쟁이나 토론 등 복잡한 환경을 떠나서 잠시동안이나마 자신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개혁운동의 확산을 위해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축복된 날들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기간 동안 루터는 건강이 좋지 못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K.S. Latourette, *Christianity through the Ages*, Harper Chapel Books, 1965, p. 172) 우울증(Anfections)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루터는 열 두 권에 달하는 책을 썼으며 에라스무스(Erasmus)가 편집한 헬라이어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이때 쓴 대표적인 저술로는 시편22편까지의 연구인 시편연구

Operationes in Psalmes 교회설교집 *Postilles ecclesiasticas* 수도원서약에 관하여 *De votis monasticis* 등이다.

무엇보다도 이기간 동안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은 독일민족과 전 그리스도인에게 준 가장 위대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교회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았던 루터는 성경번역의 간박성을 깨닫고 이일을 착수하였던 것이다. 비록 루터의 번역본이 최초의 독일어 역은 아니었을지라도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업적이었다"(Lortz). 번역은 1522년 2월에 완성되었고, 그 이듬해인 1523년 9월에 출판되었다. 신약번역을 끝낸 후 루터는 여러 히브리어 교수들의 도움을 얻어 구약성경을 번역하였고 1534년에는 성경전서가 독일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거듭 거듭 다듬어진 그의 완역성경은 그후 표준적인 독일어 성경의 위치를 점해갔고, 그 표현의 장중함과 적절함으로 인해 독일문학사상(文學史上) 획기적인 업적이 되었다.

루터가 바르트 부르크에 은거해 있는동안 비텐베르크에서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즉 루터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욱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복음적인 예배의식과 함께 미사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였고 성상(聖像)의 사용이나 독신제의 서원을 정죄하였다. 그 결과 그 도시에는 흥분한 군중들의 대대적인 성상파괴운동이 일어났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와같은 급진

운동의 지도적 인물은 칼 슈타트와 쾰빌링(Gabriel Zwilling, 1487-1558)이었다. 쾰빌링은 어거스틴파 수도사 출신이었는데 이 수도원의 40명의 수도사 중 수도사의 서원을 포기하고 이곳을 떠난 30명중의 한 사람이었다. 프레데리히 선제후가 염려스럽게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521년 가을에는 더욱 과격한 개혁이 감행되었고, 결국 비텐베르크시의회가 개입하였다.

루터는 비록 미사의 폐지나 성상제도, 독신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점진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었다. 루터는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자였다. 루터가 1521년 11월에 쓴 미사의 남용에 관하여 *On the Misuse of the Mass* 는 미사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천명한 책으로서 복음적인 미사교리를 확립함으로써 로마교적 미사교리를 비판하였고 '희생제사'(Sacrificium)와 '은혜'(beneficium)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루터가 없는 비텐베르크에서는 온건한 멜랑히톤 중심이 아니라 칼 슈타트 중심으로 과격한 개혁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1521년 12월말 경에는 소위 '쾰비카우의 예언자들'(Zwickau Prophets)이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스토르히(Nicholas Storch), 마르크 슈튀브너(Mark Stübner), 토마스 드레히젤(Thomas Drechsel) 등이 비텐베르크에 와서 칼 슈타트 등과 합세하여 큰 소요를 일으키기도 했다. 쾰비카우는 종교적 혁명 발상지로 알려진 곳인데 1462년에는 27명의 왈도파신자들을 재판하고 탄압했던 곳이기도 하

다.

쾨리케의 예언자들은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강조하였고 기록된 말씀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내재주의적, 주관주의적 신비주의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모든 신비주의가 그러하듯이 이들은 매우 과격하였고 혁명을 통한 신국의 도래를 열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펠랑히톤은 루터에게 비텐베르크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루터는 파문을 당했고 국가의 법으로 추방을 당한, 법의 보

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1521년 12월 4일 비밀리 비텐베르크를 방문하였고 크게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가 비텐베르크에 도착하기 전날 밤 학생들과 시민들은 로마카톨릭 교회에 들어가 미사를 방해하고 사제를 끌어내리는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곳의 개혁운동은 오도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루터는 곧장 바르트부르크성으로 돌아갔고 이때 집필한 소책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진지한 권고: 소

요와 난동을 막아라 *A Sincere Admonition to all Christians to guard themselves against Tumult and Revolt.* 1521, 12)는 글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국가론에 관한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의 존재이유를 신학적으로 조명한 작품으로서 종교개혁은 칼 슈타트와 같은 인간적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이같은 행동은 국가의 힘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글은 루터가 1520년에 쓴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보다는 국가관에 있어서 보

다 덜 낙관적이다.

이제 루터는 더이상 바르트부르크성에 은거해 있을 수 만은 없었다. 그를 야기는 선제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10여개월동안 은거해 있던 이곳을 떠나 1522년 3월 6일 비텐베르크에 도착하였다.

이때로부터 1546년 그가 죽기까지 거의 대부분을 비텐베르크에서 보내며 교회 개혁운동을 이끌어 갔다. [사진]

목양칼럼

박사병

김 관 형 / 전북신학교교회목사

“오늘은 아무개 박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본다.

설교의 전문가는 목사이지 박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가 목사보다 높은 계급인양 교회에서까지 박사님 운운한다.

누구를 지칭하든, 쉽게 말해서 그가 현재 밥먹고 사는 직함을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가 그 학위로 말미암아 교단에 서고 있다면 박사라는 호칭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자

세히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전공한 분야를 말하면서 학위를 말하는 것도 허물이 될 것 없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목사이기에 목장이 주어진 것이고, 또 누구든 설교단에 세워진 것은 목사이기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의 학위에 상관 없이 목사라고만 지칭되어야 옳은 것이다.

“박사란 이제부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들었다.

그러면 목사란 무엇인가?

“양을 치는 목자요 가르치는 선생이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살피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사의 직어야말로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직분이요 이름이다. 몇사람이 의논하거나 학교가 인정해서 수여하는 것이 박사학위이지만 목사직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엡4:11).

그런데 요즘은 박사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백만원만 주면 박사증 얻기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세상이다. 여기에는 교회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들은 박사님을 모시기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려니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십년전 쯤 가박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 추태가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인 오늘 다시 일어나고 있다. 가박 중에 신학박사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교회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선진종들은 학위가 없이도 영적인 감화력을 끼쳤고 존경을 받았다. 며칠간 물건너 다녀오면서 붙여 가지고 온 그 알랑한 학위 앞에 사족을 못쓰는 이 세대가 민망하다.

가박들이여! 십 수년씩 고생하여 얻은 진박들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도적질해 가지 말라. 성도들이여! 인격과 실력과 영력을 겸비한 종들을 존경하자.



이날 설교를 맡은 박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앞서 행하시며 지켜주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남은 날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맺었다.

는데, 김 장로는 1983년 10월에 서 목사는 1982년 4월에 각기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해왔다.

마지막으로 의료원과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 월간고신을 위해 통성기도한 후 구내 식당에 마련된 식사를 나눴다.

초청강연회와 좌담회로 마무리

오전을 마친 오후 1시 30분부터는 경기노회에서 은퇴한 남영환 목사를 강사로 "교단발전과 문서선교"(월간고신 91년 7월에 원고 수록)라는 주제의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이 강연에서 남목사는 교단역사의 증인으로서 고려파 노선이 탄생한 배경과 오늘까지 걸어온 길을 증언하고 이것을 목격하며 기록하고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월간고

신의 사명을 거듭 강조했다.

오후 3시 30분에는 마지막 순서로 월간고신 편집인실에서 월간고신 주간 박정덕 목사의 사회로 월간고신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순서에 앞서서 월간고신 초창기부터 줄곧 주간을 맡아온 박정덕 목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지역 독자들을 위해 종말론 특별세미나를 9월중에 가질 계획인데 9월 2일(월)은 부산 사상교회당에서 이근삼 박사가, 9월 3일(화)은 대구 성산교회당에서 오병세 박사가, 9월 16일(월)은 서울 잠실중앙교회당에서 신현국 목사가 각각 강사로 초빙돼 강연을 갖게 된다. 요즘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고 다녀 이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역별로 많은 독자들의 참여를 바란다.

이진

루터와 독일에서의 개혁운동 IV

이 상 규 / 고신대 교수

비텐 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과격주의자들에 의해 오도된 개혁운동의 실상을 보면서 8편의 강렬한 설교를 하였다. 이 설교에서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고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루터가 기록된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열광주의자들이 기록된 말씀, 곧 외적인 말씀(external word)보다는 성령 혹은 내적인 말씀(inner word)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과격파들은 성령이 하나님께로 부터 직접 믿는자의 영혼속에 말씀하신다고 주장하여 기록된 말씀과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계시를 소홀히 여겼던 것이다. 루터는 또한 어떤 조건이나 동기에서든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바울이 아덴에서 이방종교의 신당과 제단들을 대했을 때의 태도를 예로 들면서 폭력의 사용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쓴 글 가운데서 아무에게든지 폭력으로 사람을 제제하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면죄부와 교황권

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힘으로나 완력으로 한 일은 없었다."고 했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술한 것 뿐이다. 그 밖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비텐베르크에서 행한 루터의 설교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diaphora, essentials)과 비본질적인 것(adiaphora, nonessentials)을 구별하였다는 점이다. 복음, 계시, 이신칭의 등과 같은 기독교 복음의 근본진리가 본질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예배의식, 수도원 입단을 위한 서원, 성상(聖像) 등은 비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루터는 후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았고, 이렇듯대로 환경과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루터의 입장 때문에 루터파(Lutheran)는 천주교의 여러가지 의식이나 요소들을 그대로 전수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칼 슈타트는 주로 이 후자의 것을 개혁하기 위해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을 사용했었다. 루터와는 달리 개혁파는 루터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던 것에 대해서도 성경적 원리에



재침례파 교인들

따라 철저히 개혁함으로써 교회생활 전반에 성경적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혁교회(Reformed church)는 루터파보다 더 성경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의 지도력하에서 '쯔비카우의 예언자'들은 비텐베르크를 떠났고 이 도시는 다시 평온을 회복하였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집필도 계속하였다. 새로운 샘플을 근원에서 마시기 위해 독일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루터는 더 이상 웬스 칙령에 매여 있지 않았다.

이제 루터의 개혁운동은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어갔고 천주교에 대한 항거 또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루터의 작품들이 인쇄술의 힘을 입어 각처로 보급되었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판 신약성경이 1522년 9월에 출판되어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1521년 12월에 출판된 멜랑히톤(Melanchton)의 신학요의(Loci Commues) 또한 루터파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루터의 가르침이 확산되면서 루터의

사상에 대한 오해도 없지 않았다. 종교개혁운동은 단순히 교회내적 개혁운동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계층의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었다. 당시 독일사회에서 불만계층으로는 기사계급(Knights)과 노동자들(the working people) 그리고 농민들(the peasants)이었다. 이들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제후들과 중산층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이 농민전쟁(1524~1525)이다.

농민전쟁이 있기 이전에 '기사들의 항거'가 있었다. 즉 인문주의자였던 훗텐(Ulrich von Hutten)과 지킹겐(Sickingen)을 지도자로 하여 트리에르(Trier) 대 주교의 영지를 공격했으나 이들은 실패하였고 지킹겐은 1523년 4월 살해되었다. 훗텐은 스위스로 도피했으나 그도 그해에 세상을 떠났다. '기사들의 항거'보다 더욱 거센 사회적 요구가 농민들의 전쟁을 통해 분출되었다.

독일에 있어서 농민전쟁(혹자는 농민반란이라고 부른다)은 종교개혁시대

에 급격히 일어난 운동은 아니다. 이미 100여년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농민들의 불만이 농축된 대규모 민중봉기였고, "독일역사상 최대의 정치적, 사회적 집단운동"(W.J.Fuchs)이었다.

그 배후에는 중세기 봉건제도 밑에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음하던 일반농민들의 원한과 불만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더욱이 독일 남부의 농민들에게는 더욱 심각했다. 농민들은 노동하는 짐승과 같았고 종과세에 짓눌려 있었으며 혁명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524년 6월 지방영주들에 대한 작은 반란을 계기로 일어난 농민반란은 1525년 2월에는 독일의 서부, 남부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의 농민전쟁(Bauernkrieg)으로 발전되었다.

그해 2월 27일부터 3월 1일 사이에는 쉼바비아(Swabia) 농민들에 의해 12개조(Zwif Artickel)의 요구조건이 제시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12개조항은 재세례파 인물인 휴프마이에르(Balthasar Hubmaier)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조 개 교회의 목사 청빙권은 개 교회 교구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2조 곡물의 10분의 1세는 바쳐야 될 것이지만 각종의 세금제도(십일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3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자유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농노는 폐지되어야 한다.

4조 사냥과 고기잡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5조 산림(山林)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6조 강제 노동은 제한되어야 한다.

7조 농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역은 피해야 하며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할시는 농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8조 집세 혹은 토지세는 공정해야 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9조 재판은 성문법에 의거해야하며 사형(私刑)은 폐지되어야 한다.

10조 불의하게 점유한 토지는 반환되어야 한다.

11조 유산을 물려받을 과부나 고아가 사망했을 경우 저들의 유산을 사망세(death due)란 이름으로 빼앗아 가서는 안된다.

12조 이상의 조항중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으면 즉시 철회될 것이다.

농민 전쟁의 배후에는 루터의 만인사체직론(Priesthood of believers)과 기독교자의 자유가 곡해 오용된 것이 사실이고 이들 농부들은 루터의 복음주의적 설교와 교황청에 대한 비판이 자기들의 혁명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루터를 환영하는 편이었다.

물론 이들이 루터의 복음주의 신학을 정당하게 깨달았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보았으며 저들의 12개조의 요구문서에 루터도 서명해 주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루터는 농민들의 12개조의 서명을 거부하고 **평화에의 권면: 슈바비아의 농민들이 채택한 12조항에 대한 대답** (*An Admonition to Peace: A Reply to the Twelve Articles of the Peasants in Swabia, 1525.4*) 이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루터가 1520년에 쓴 독일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및 기사들의 반란에 자극을 받고 쓴 작품인 **국가권력에 관하여** (*On the temporal authority*)와 더불어 루터의 국가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루터는 이 권고문에서 교회 영주들의 화정을 비난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도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농민들에 대해서는 반란이 옳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이 글의 전반부는 농민혁명의 책임이 우선 국가에게 있는 점을 들어 제후들을 비판한다. 루터는 제후들이 복음을 모독하였고 농민들을 착취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서 그는 농민들의 봉기와 뮌처같은 혁명적 개혁자의 등장은 제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았다. 루터는 결코 자기의 신학이 농민전쟁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고 제후들에게 폭군 노릇을 버리고 농민들을 잘 다스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후반부에서 그는 농민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망녕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로마서 13장에 기초하여 국가 혹은 세속 권력은 하나님이 그의 섭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신적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권

력에 대한 항거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항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통치자가 아무리 악해도 이것이 혁명을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결국 국가자체가 하나님의 칼을 들었으니 지배자 계급의 악행은 이 국가의 칼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속통치권을 박탈하려는 농민들도 강도요 농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국가의 관료들도 강도라고 하였다. 끝으로 루터는 종교개혁이란 혁명이 아니라 설교된 말씀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민전쟁은 복음의 진수와 너무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되자 결국 농민들은 뮌처(Thomas Muntzer)와 같은 과격주의 개혁자를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속에서 뮌처는 농민전쟁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는 종말론적 희망속에서 인간의 평등과 재산의 공유와 균등한 분배를 역설하였고 이와 같은 임무를 위해서는 폭력의 사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그의 신학적인 개혁의 의지는 사회혁명적 의지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는 슈바벤(Schwaben) 튀링겐(Thuringen) 뮐하우젠(Muhlhausen) 등 여러 도시를 왕래하며 농민들의 단합과 결속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옛 선동지역인 튀링겐과 만스펠트(Mansfeld)로 돌아와서 혁명군을 조직하고 그 선두에 서기도 했다.

루터의 평화에의 권고가 있었으나

농민들의 분노의 행동은 식어지지 않고 삭소니지방까지 파급되어 약탈과 파괴를 자행하자 루터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그는 농민들을 신랄히 비판하고 1525년 5월에 **강도와 살인을 일삼는 농민에 반대하여** (*Against the Robbing and Murdering Hordes of Peasants*)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루터는 제후들의 화정을 비판하면서도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질서를 파괴하는 폭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칼로서 폭도(농민)들을 진압할 것을 촉구하였다.

용기를 얻은 제후들은 1525년 봄부터 농민들에 대한 무력 탄압을 개시하였다.

어떤 조직이나 기초적 훈련없이 싸웠던 농민들의 봉기는 도처에서 영주군에 의해 속명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었다.

1525년 5월 15일 프랑켄하우젠(Frankenhausen)에서는 1만명에 달하는 농민들의 무리들이 헷세(Hesse), 작센(Saxony) 및 브룬스빅(Brunswick)의 연합군(국가측)에 의하여 제압되었다. 이때에 5천명 정도가 들관과 거리에서 죽었고, 300명은 법정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반란의 도시 뮐하우젠은 1525년 5월 19일에 함락되었다. 이렇게 농민전쟁에 희생된 사람은 10만명에 달했다.

전투가 막바지에 달했을 때 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뮌처는 어떤집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사기가 빠진 뮌처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

는 문서에 서명하고 처형되었다. 1525년 5월 27일이였다.

농민전쟁은 루터에게 많은 손실과 오해를 안겨 준 것은 사실이다. 농민전쟁에 대한 루터의 소극적인 태도와 농민들에 대한 탄압에의 권고는 많은 지지세력을 상실했다.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재침례파로 떨어져 나갔고 급진주의자들로부터는 소극적이며 세속적 국가권위 의존적 혹은 행정적 개혁자(Magisterial Reformer)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사실 루터의 국가관, 혹은 '두 왕국설'이 세상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켰고, 그의 복음주의 신학이 세계와 역사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농민들이 흘린 피에 대해 루터는 무관할 수 없다.

농민 반란이 거의 종결되던 1525년 6월 13일 루터는 케더린 본 보라(Catherine von Bora)라는 여자와 결혼하였다. 천주교 수녀였던 그녀는 26세의 나이로 루터보다 16년 연하였다. 루터의 결혼은 당시 많은 사람의 비난거리가 되기도 했다.

에라스무스는 "비극으로 시작된 개혁운동이 희극으로 끝났다."고 까지 했고 천주교의 비난은 이 보다 더욱 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이제 미혼으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신부들의 결혼은 이미 1521년부터 감행(?)되었고 수녀들은 수도원을 떠나 여성으로서의 길을 갔던 것이다.

루터는 1526년 6월 7일 첫 아들을 얻은후 5남매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터와 독일에서의 개혁운동 V

이 상 규 / 고신대 교수

민전쟁은 루터의 개혁운동사에 있어서 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농민이 중심이 된 하층민의 민중운동으로서의 개혁의 요구는 크게 압박되었고 루터 개인으로는 대중적 지지 기반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였다. 루터에게 실망한 다수의 농민들은 재침페파로 넘어갔고 일부는 다시 천주교로 복귀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농민전쟁의 영향으로 루터의 교회관은 1526년을 전후하여 국가교회(Volkskirche)에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농민들의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루터와 지방 영주들과의 동맹은 결국 프로테스탄트적 영방교회(領邦教會 Landeskirchen territorial churches)를 형성하게 했던바 이것은 영적교회(eclesia Spiritualis)론의 약화와 함께 제도적인 국가교회에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비록 국가의 재후들이나 관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가와 교회는 법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과 통일성을 갖는다는 국가교회관은 이미 1515년에서 1546년 어간의 루터의 로마서 강의에서 암시된 '두왕국설'에 기초하고 있고, 또 세상 나라를 낙관적으로 보았던 그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루터의 견해는 교회와 국가는 법적으로 독립 내지는 병립하는 것이라고

보는 개혁과 교회들과 다른 개신교 교회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농민전쟁 이전의 루터의 교회관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1526년 이후의 루터파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농민 전쟁이 끝난후 교회문제는 정치화되었고 제국회의에서 종교문제와 교회 개혁의 문제는 새롭게 토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를 정죄하는 칙령을 발표했으나 시행되지 못했고 1523년 뉘른베르크(Nurnberg)에서 다시 제국회의가 소집되었을 때도 보름스칙령의 수행 요구는 묵살되었다. 이때 교황과 황제가 보낸 대표들이 보름스칙령을 따라 루터의 개혁운동을 제재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루터파에 대한 융화 정책을 결의하였다. 당시의 정치적 배경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유리하게 인도해 가고 있었다.

1526년에는 슈파이에르 제국회의(the Diet at Speier)가 소집되었다.

당시 황제 찰스 5세는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Francis I)와 대결하고 있었다. 사실 찰스 5세와 프란시스 1세와의 대결은 전후 40년간 네차레의 전쟁을 치르는 숙명적 적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황제는

오토만 터어키의 습격으로 인한 위협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도 루터파를 탄압할 여력을 지니지 못했다.

당시 유럽의 제국은 종교적인 문제로 양분되어 있었다. 즉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제후들은 1524년 7월 '라티스본 동맹'(Ratisbon League)를 결성하여 루터파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이에 맞서 루터파를 지지하는 헷세의 필립, 삭소니의 선제후 요한 등은 1526년 6월 '토르가우 동맹'(League of Torgau)을 체결하여 루터파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터어키의 위협 앞에서 양측은 타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26년의 슈파이에르 국회는 타협적 회의가 되었고 루터파의 확산에 유리한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황제 찰스 5세가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 교황 클레멘트 7세를 대항하여 투쟁에 전념하고 있을 때 슈파이에르 국회는 공식적으로 보름스칙령을 철회하고 독일의 영주들의 종교적 선택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록 후일 1555년 '아우구스브르크 평화협정'(the Peace of Augusburg)에서 확정됐지만 "cujus regio, ejus religio," 곧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로' 하는 지역별 종교선택의 자유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이제 이 원칙에 따라 독일의 여러 지역들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제후의 종교에 따라 천주교도 혹은 루터교도가 되도록 한 것이다. 만일 어떤 지역 제후가 루터교도이면 그 지역민들은 루터교신자가 되어야 하고, 반대로 제후가 천주교도이면 그 지역 백성들은 천주교도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이것은 루터파가 로마 카톨릭과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오스트리아와 독일남부 지방의 영주들은 로마 카톨릭을 선택하였고 다른 지방에서는 루터파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다. 이제 루터파는 공식적으로 그 지역을 확대해 가게 된 것이다. '그 땅이 속한 자에게 종교도 속한다'(cujus regio, ejus religio)는 원칙은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으나 '종교 복수주의'(pluralism), 곧 한 지역에서 신앙고백을 달리하는 다원(多元)적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세레파 교회는 여전히 박해를 받았고 루터파 외의 개신교파들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유럽에서 종교와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1648년의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쨌든 1526년 슈파이에르 국회의 결정은 루터파의 확산에 매우 유리한 기여를 하였으나 3년뒤인 1529년에 열린 제2차 슈파이에르 국회에서는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고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 지지 세력간의 일시적 휴전은 1529년 4월의 제2차 슈파이에르 국회에서는 대결의 국면으로 전환 되었다. 불화 관계에 있던 황제와 교황은 화해를 한 뒤였고 황제 찰스 5세와 불란서왕 프란시스 1세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제2차 슈파이에르 국회에서 루터에 대한 보름스칙령을 재확인 하였고 3년전, 곧 1526년의 슈파이에르 국회의 결정사항을 반복하는 결의를 하게 하였다. 이것은 루터파에 대한 황제와 로마 카톨릭측의 일대 반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개혁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은 1526년 제1차 슈파이에르 제국회의에서 부여 받은 자유를 위반하는 1529년의 제2차 슈파이에르 국회의 결정에 대해 항의(프로테스트)하였고 또 항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바로 여기서 항의자들, 곧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날이 1529년 4월 19일이었다.

1529년 이후에는 개혁신앙을 소개할 수도 없고 영원히 로마 카톨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결정에 '항의한 자들'이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란 용어는 이 때부터 신교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이 때 루터의 개혁운동을 지지했던 복음주의자들로는 작센의 요한, 헤세의 필립, 브란덴부르크와 안스바하(Ansbach)의 게오르크, 브른비스크와 루네부르크의 에른스트 그리고 안할트(Anhalt)의 볼프강 등 5명의 군주들과 독일 고지대의 14개 도시들(스트라스부르크, 뉘른베르크, 울름, 콘스탄츠, 린다우, 메핑겐 등)의 대표자들이었다. 이들이 연합하여 황제와 로마 카톨릭 지지자들에 항거했으나 이들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는 보름스제국회의 이후 개혁운동의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연합과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루터의 지지자였던 헤세의 필립(Philip of Hesse)은 우선 비텐베르크와 독일 고지대 사이에 존재하는 교리적 차이를 해소하려고 힘썼고, 더 나아가서는 스위스의 개혁운동까지 포함하는 연합적인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시도하였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스위스에서는 쾰링거리에 의해 독자적으로 교회 개혁운동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 지역의 프로테스탄트들의 연합은 긴박한 요구였

다.

상이한 지역에서의 종교개혁운동은 근본적인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몇가지 차이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의견의 차이를 보인 것은 성찬에 관한 견해였고, 이 견해차는 루터와 쾰링거리간의 현격한 이견(異見)을 나타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마태복음 26장 26절의 성찬식사(Words of Institution, 聖餐式辭)인 "이것은 내 몸이다"(Hoc est corpus meum)는 말씀에 대한 해석 문제였다.

루터나 쾰링거리 양자가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에 대해서는 반대, 비판하였으나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에 임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성찬의 떡과 포도주와 함께(with), 그 안에(in), 그 아래에(under) 그리스도께서 임재한다고 보았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편재설에 근거하여 실제론적 견지에서 자신의 실재 임재(physical presence)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반면에 쾰링거리는 화란인 호엔(Hoen)의 영향을 받아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할 때 '이다'(est)는 실제로는 '의미한다'(significa)라는 뜻으로 보았다. 즉 그는 "이것은 내 몸이다"는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는 뜻으로 보았다. 따라서 쾰링거리에 있어서 성찬의 떡은 갈보리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쾰링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요소속에 '육체로' 임재하신다는 루터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드디어 쾰링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상이한 두사람의 견해차를 해소하고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보기 위해 헤세의 필립 공은 1529년 10월 양측의 인사들을 독일의 마르부르크로 초청하였다.

그래서 그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속된 이 회담을 마르부르크 회담(the Marburg Colloguy)이라고 부른다. 이 회담에 루터측에서는 루터 자신과 멜란히톤(Philip Melancthon), 요나스(Justus Jonas), 오시안데르(Andreas Osiander) 브렌티우스(Johannes Brentius), 아그리콜라(Stephanus Agricola) 등이 참석하였고 스위스 신학자 들로는 쾰링거리(Ulrich Zwingli), 외콜람파디우스(Johannes Oecolampadius, 1482-1531), 마틴 부체르(Martin Bucer, 1491-1551), 헤디오(Caspar Hedio, 1494-1553)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3일간 대화와 토론을 전개했으나 견해차를 해소할 수 없었다. 특히 부체르의 계속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견해를 양보하지 않았다.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다"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This signifies my body)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만찬은 '기념 식사'(a memorial meal)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간의 상이한 견해때문에 결국 루터와 쾰링거리 양측은 결별 할 수 밖에 없었고, 헤세의 필립이 의도했던 로마 카톨릭 세력에 대항한 개신교 동맹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토론의 쟁점이 되었던 15개 조항의 문서에 서명하였다. 14개 조항에 대해서는 신학적 견해를 같이 했으나 마지막 15번째 조항에서는 견해를 달리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 이 성찬론에 대한 신학적 차이점때문에 후일 루터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루터파(Lutheran)를 형성하게 되었고 쾰링거리(후계자는 불링거, Bullinger였다)와 칼빈등 스위스에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개혁파(Reformed)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만일 루터와 쾰링거리간의 성찬론에 관한 신학적 일치를 견지할 수 있었다면 루터파와 개혁파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복음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앞서 살펴본바처럼 루터의 견해에는 다소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는 비록 천주교의 주장인 화체설, 곧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실제로 임재하시고 성례적으로 신비스럽게 연합하신다는 주장은 신비주의적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과거 루터가 신비주의 단체였던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리해서 말하면 성찬론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루터와 쾰링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루터파와 개혁파로 나뉘어 졌다고 할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성만찬을 중시해 왔던 로마 카톨릭의 오랜 전통과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데서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볼때 성찬론에 대한 루터의 융통성없는 고집스런 주장에 대해 "천주교의 오도된 성찬론을 개혁 하려는 열정과 성찬론과 같은 중대한 교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한 결과였다"는 변명은 약간은 진실인 셈이다.

루터와 독일에서의 개혁운동 VI

이 상 규 / 고신대 신학과 교수(역사신학)

독일에서 루터주의는 1526년 제1차 슈파이어르 제국회의를 전후하여 예배의식을 발전시켜갔고, 교회조직을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다. 루터는 전통적인 예식문(liturgy)을 이용하여 독일어 찬송가 가사를 지었으며 음악과 찬송, 가정생활과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는 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전해오던 관습은 반드시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행정당국자들에게 각자의 권한 안에서 예배와 교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제하도록 격려했다. 그리하여 독일안에는 영방교회(領邦教會, Landeskirchen)가 생기게 되었고 그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1521년 당시만 해도 루터는 혼자 보름스제국회의 앞에서 정죄를 받았으나 1529년 제2차 슈파이어르 제국회의의 당시는 결코 루터가 혼자 외롭게 심판대 앞에 나와있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은 하나의 커다란 조직을 갖추면서 독일내에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키며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1529년 슈파이어르 제국회의에서 '로마카톨릭 신앙만이 유

일한 합법적 신앙'이라고 선언했을 때 5명의 군주(제후)들과 14개 도시의 대표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제국회의의 결정에 '항의'(protestation)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530년은 루터파의 역사와 신앙에서 볼 때 중요한 해였다. 황제 칼5세는 오랫동안 불화관계에 있던 교황과 불란서 왕과 화해하였고 1530년 2월 24일 볼로냐(Bologna)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제 그는 독일에서의 종교적 분쟁을 해결할 여력을 얻게 되었고 그 자신이 로마 카톨릭교회와 루터파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9년만에 독일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1530년 6월 20일 제국회의가 아우그스부르크(Augusburg)에서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 로마카톨릭측은 교회에 반역한 무리'들이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을 황제에게 요구하였고, 프로테스탄트측에서는 그들의 문제가 편견없이 공정하게 취급될 것을 요청하였다. 또 한편 다수의 인사들은 이 회의를 통해 양측의 화해와 타협을 기대하였다. 멜란히톤도 그들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적으로 로마교

회측과 프로테스탄트진영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었다.

황제 칼5세는 그간의 사건의 전개와 더불어 양측의 신앙상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신교도들에게 저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와 다른 점들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루터의 동료이자 후계자였던 필립 멜란히톤(1497-1560)은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서'(Confessio Augustana, The Augusburg Confession)이다. 남부독일의 바덴(Baden)지방에서 출생한 멜란히톤은 당대 최대의 히브리어학자였던 요한 로이힐린(Johannes Reuchlin)의 증손으로서 유명한 인문주의자였다. 그는 언어적 재질과 함께 학자로 명성을 얻었는데 로이힐린의 천거로 비텐베르크대학의 헬라어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곳에서 그는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 루터파 신학의 대변자로 불리기도 했다. 이미 그는 1521년에 신학요의(Loci Communes)를 썼는데, 이 책은 최초의 개신교 조직신학서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부연하자면 아우그스부르크신

“
멜란히톤이 작성한
아우그스부르크신조는
공식문서가 되었고
1517년부터 1648년까지의 종교개혁사의
전 기간중에 나타난 개신교 신앙고백문서의
발전과정의 첫 신앙고백서가
되었다.
”

앙고백서 외에도 그해 7월 8일에는 쾰른 글리가 작성한 신앙고백서(신앙의 이유, ratio fidei)가 제출되었고, 이로부터 사후후에는 스트라스부르크, 콘스탄츠, 엠빙겐, 린다우 등 4개 도시의 신앙고백서, 곧 '4도시신앙고백서'(Confessio Tetrapolitana, Tetrapolitan Confession)가 부체르(M. Bucer)와 카피토(Capito)에 의해 제출되기도 했다. 이와같은 일련의 문서가 제출된 후 다양한 입장의 신학적 견해가 논의, 토론되었던 것이다.

멜란히톤이 작성한 아우그스부르크신조는 후일 루터파의 가장 중요한 공식문서가 되었고 1517년부터 1648년까지의 종교개혁사의 전 기간중에 나타난 개신교 신앙고백문서의 발전과정의 첫 신앙고백서가 되었다. 어쩌든 이 문서는 루터주의의 복음적 신앙을 표현하면서도 로마 카톨릭과의 어느 정도 화해를 의도하였기 때문에 로마카톨릭을 자극할만한 교황수위권의 문제, 연옥설 등 7개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토페르(Richard Stauffer)의 말처럼 사실 멜란히톤은 이 문서를 통해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 카톨릭의 기본적 신앙'에서 이

탈되지 않았음을 보이려고 시도하였고 따라서 가능한 한 비텐베르크와 로마를 갈라 놓은 교리적 차이들을 축소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 또 복음주의 교회에 도입된 개혁적 조치들은 로마카톨릭 교회의 폐습들을 교정하려는 데 있었음을 지적하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신앙고백서는 루터파가 받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교회의 폐습들을 개혁하는 한편, 프로테스탄트신앙을 천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 신앙고백서는 전 28장으로 된 문서인데 1장에서 21장까지의 제 1부는 '신앙과 교리'로서 루터파의 기본적인 신앙을 진술하였다. 즉 하나님, 원죄, 세례와 같은 교리는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를 따랐지만, 칭의, 성찬, 선행 등에 대해서는 로마카톨릭과 견해를 달리하였다. 22장에서 28장까지의 제2부 '개정된 폐단들에 대한 논의'에서는 당시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던 폐단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성찬식을 행할 때 평신도들에게 분잔하지 않는 일,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한 일, 미사, 고해, 수도원서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루터는 1521년 보름스제국회의에서 정죄를 받아 법의 보호를 박탈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그스부르크에 가지 못하고 코부르크(Coburg)까지만 갔고 멜란히톤이 루터파의 대표단을 이끌고 아우그스부르크 제국회의에 참석하였고, 이 신앙고백서를 제출하였다. 이 문서는 제국회의 본회의장에서는 낭독되지 못했으나 1530년 6월 25일 황제의 개인접견실에서 200여명의 고위성직자

들이 자리한 가운데 삭소니지방 선제후의 고문이었던 크리스티안 바이어(Christian Beyer)에 의해 약 두 시간에 걸쳐 낭독되었다.

비록 이 문서가 유화적이고 화평을 의도하였으나 제국회의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했던 로마카톨릭주의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제국회의는 멜란히톤과 에크를 대표자로 하는 양측의 위원회를 임명하였고, 로마카톨릭측은 루터의 적수였던 에크로 하여금 멜란히톤에게 응전토록 하였다.

그래서 에크, 파베르, 코흐레우스 등 로마카톨릭 신학자들이 작성한 '아우그스부르크신앙고백서에 대한 반박서(Confutatio Confessionis Augustanae)'를 제출, 그해 8월3일에 채택케 하였다. 그래서 멜란히톤이 제출한 앞서 언급한 신앙고백서와, 로마 카톨릭측이 제출한 반박서를 중심으로 타협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타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실 멜란히톤은 타협의 길을 모색하여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파의 다른 점은 미사에 있어서 독일어를 사용하는데 불과한 극히 작은 것이라고 보는데까지 이르렀고 교황권 자체를 승인하려는데까지 타협적이었다. 반면에 루터는 교황이 그의 지위를 폐지하지 않는 한 그와의 평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제국회의는 1530년 11월회의를 끝내면서 로마 카톨릭측이 제출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대한 '반박서'를 교회의 공적인 답변서를 받아들이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는 1521년 보름스제국회의에서 루터와 그 추종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결정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써 신·구교간의 문제를 종결지었다. 다시 말하면 루터파의 지도자들에게 로마 카톨릭으로의 복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헷세의 필립, 작센의 요한, 브룬스빅-루네부르크의 에른스트등은 이 명령에 불복하였다.

멜란히톤은 한때 로마 카톨릭과의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타협이 결렬되자 다시 루터주의의 신화입장을 강하게 변호하였다. 그것은 코부르크에 와 있던 루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멜란히톤은 그가 작성한 신앙고백서를 변증하는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 변증서'를 1531년 5월 출판하였다(라틴어판). 독일어로는 그해 가을에 출판되었는데, 이 변증서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 대한 신화적인 해설서로서 신앙고백서보다 4배나 많은 분량이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로마 카톨릭과의 타협을 희망하였고 고백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점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희망이 좌절되자 변증서에서는 현실을 시인하고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신앙고백서에서는 침묵을 지켰으나 변증서에서는 교황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고 7성례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황제는 제국회의를 마감하면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1531년 4월 15일까지를 시한으로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력행사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또 한번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만일 황제가 스페인 병력과 독일내의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영주들의 군대를 동원한다면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영주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루터주의를 지지하는 영주들은 동맹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하였다. 그러나 황제에 대하여 정당 방위으로써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결론짓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은 소위 슈말칼텐 동맹(League of Schmalkald)을 체결하였다. 이번에도 정치적 변화는 루터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미 1529년 9월 비엔나를 공격했던 터어키군은 이전의 실패를 설복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터어키인들의 발칸 진입을 저지하는 일은 제국의 가장 긴박한 과제였다.

프랑스왕 프란시스1세도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강력한 대항세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의 지원이 필요했으므로 황제는 1532년 7월 23일 뉘른베르크평화회의(The Peace of Nuremberg)를 통해 프로테스탄트와의 '휴전'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아우구스부르크제국회의에서의 황제의 시한부적 항복 요구는 일단 유보되었고 그대신 프로테스탄트들은 터어키에 대항하여 황제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제 루터주의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 속에서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고 종교개혁을 통해 나타난 양대교파의 하나인 루터파(Lutheran)교회로 발전되어 갔다.

쾰빙글리와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 I

루터와 칼빈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제3의 인물로 불리는
울리히 쾰빙글리는 스킨라철학의
비아 안티꾸아철학과
인문주의적 교육을 받은 박식한
인문주의자였으나 후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서
거목이 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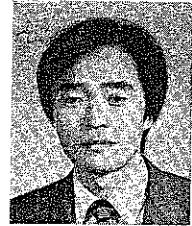
종교 개혁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루터를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개혁을 위한 일련의 활동은 루터 외에도 여러 개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실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세계사적 사건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는 정도의 과업이 아니었다. 1517년 이래로 독일에서 시작된 교회개혁의 불길은 곧 유럽의 여러지역으로 번져갔고 스위스, 스코틀랜드, 화란 등지에서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라는 교회개혁운동의 공통된 기반위에서 약간의 상이점을 지닌 다양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학자는 '종교개혁'(The Reformation)이라고 단수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들' 혹은 '재(諸)종교개혁'(The Reformations)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개혁파교회의 첫 개혁자

쾰빙글리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개혁자



이 상 규
교신대 교수

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루터와 칼빈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제3의 인물로 불리는 울리히 쾰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스킨라철학의 비아 안티꾸아(Via Antiqua)철학과 인문주의적 교육을 받은 박식한 인문주의자였으나 후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서 거목이 된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쾰빙글리를 단순히 루터의 아류(亞流)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미 루터의 개혁운동을 언급하는 중에 지적하였지만 쾰빙글리는 교회개혁의 기본이념을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사상을 발전시켰다. 엄밀한 의미에서 쾰빙글리는 개혁파교회의 첫 인물이라 할 수 있고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가 1531년 세상을 떠난 이후 개혁파

□ 로마교황 비오 9세는 이태리의 해방자였던 빅토르 에마누엘 왕을 저주하였다. 또 이태리를 자유국으로 만들고 로마를 그 수도로 선포한 이태리 정부를 저주하였다. 로마교황의 저주로 이태리는 세계열강의 하나가 되었지만, 이디오피아를 정복하려 떠났던 이태리군을 로마교황이 축복한 후부터 이태리 제국은 다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 가리발디는 그의 모든 애국적인 노력 때문에 로마교황으로부터 파면되었다. 특히 시실리 왕국을 전복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가리발디는 이태리의 영웅이 되었고, 그를 기념하는 기념물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졌다.

□ 비스마르크와 프러시아왕이 제수이트(일명 예수회)사제들을 추방했을 때 로마교황은 프러시아를 저주하였다. 로마교황의 저주는 축복이 되어 프러시아는 세계열강의 하나가 되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격파하였고, 어느날 그 지도자가 로마교황과의 친교관계를 맺는 불운이 오기까지는 수년간 서유럽 최강의 제국으로 군림하였다.

□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내린 로마교황의 저주는 영국에 큰 축복이 되었다. 반대로 아일랜드에 내려진 로마교황의 축복은 아일랜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틴·루터가 로마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받은 저주로 인해 온 세계의 기독교회가 누려온 축복을 여찌 다 헤아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엄히 말씀하시고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라기 2:2).

하나님께서 대원군을 일으키시고 프랑스군함에 실려오는 로마카톨릭교의 세력을 막게 된 바, 한국이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로마화(化)되는 것을 막아 주셨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로마종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오늘날 로마종교와의 일치운동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낭만적인 에큐메니스트 지도자들이 받을 저주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들이 짓는 죄악은 무겁고 분명한 진리인 바, 이 진리가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침통하고 슬픈 것이다.

“거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羊)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 7:15~20).

72

교회와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의 지도력과 칼빈의 신학 활동을 통해 보다 분명하고도 체계적으로 해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쾰링거는 개혁파 교회의 첫 개혁자 입에는 틀림없다.

즉 스위스 취리히를 중심으로한 쾰링거의 개혁운동은 1531년 그의 사후 불링거(Johann Heinrich Bullinger, 1504-1575)에 의해 계승되었고, 불링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칼빈은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을 통합하여 개혁파 교회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루터파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결과로 생성된 가장 대표적인 양대 복음주의 교회가 된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스위스는 명목상으로는 신성로마제국의 일부로 속해 있었으나 유럽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나라였다. 이미 1291년에 슈위츠(Schwyz) 우리(Uri) 그리고 운터발덴(Unterwalden) 등 세개의 산림주(山林州)는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현은 이때부터 벌써 자치주로 발전하였다. 종교개혁 당시 곧 1513년 이래로는 13개 주의 자치현(autonomous cantons)으로 구성된 나라가 스위스였는데 각각의 현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종교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즉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정부의 합법적 활동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또 스위스의 도시들은 문화의 도시였고 인문주의 영향이 매우 컸다. 특히 바젤은 인문주의 운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유명한 대학이 있었다. 에라스무스(Erasmus)가 그의 헬라어신약성경을 편집, 출판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바로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인문주의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스위스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첫째로 스위스의 북부지역인 독일어를 사용하는 현(cantons) 특히 취리히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쾰링거를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고, 둘째로는 남부의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 곧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칼빈의 지도하에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셋째로는 소위 재세례파(재침례파)라고 하는 급진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은 취리히를 중심으로한 쾰링거의 동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재세례파(Anabaptist)의 개혁운동은 스위스와 독일 그리고 화란 등지로 퍼져나갔다.

인문주의에 깊은 영향받아

스위스에서 칼빈의 개혁운동과 재세례파 개혁운동에 대해서는 후론하기로 하고 이제 쾰링거의 개혁운동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쾰링거는 루터가 태어난지 두 달후인 1484년 1월1일 세인트갈(St. Gall) 현에 있는 토겐부르크(Toggenburg)라는 도시의 빌트하우스(Wildhaus)에서 한 농부의 3남으로 태어났다.

그를 가리켜 루터와 칼빈에 이어 제3의 개혁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는 루터와 더불어 제1세대 개혁자인 셈이다. 사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이자 빌트하우스(Wildhaus)지역 행정서기(chiefmagistrate)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힘이 미치지는 않은 최고의 학

교에 보내고자 노력하였다. 쾰링거도 또한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아버지는 그에게 큰 소망을 두고 있었다. 율리히 쾰링거는 8살 때 그의 삼촌 바들로뮤(Bartholomeu)가 교장으로 있던 베젠(Wesen)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0살 때인 1594년에는 바젤(Basel)로 갔다.

그는 바젤의 성데오도르(St. Theodore)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이곳에서 그의 큰 친척으로 알려진 그레고리 뷔즐리(Gregory Buzli)의 지도하에서 3년간 라틴어, 변증법 그리고 음악 등을 공부하였다. 당시 교육은 중세시대와 마찬가지로 3학(Trivium)이라 불리는 문법학(Ars Grammatica), 수사학(Ars Rhetorica), 변증학(Ars Dialectica)과 4학(Quadrivium)이라 불리는 산술(Arithmetica), 기하(Geometria), 천문(Astronomia) 그리고 음악(Harmonica)이 주된 교육의 내용이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서양전통에서 볼 때 3학과 4학이란 지식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 혹은 네 가지 방법을 의미하며 이들을 합친 7교양과목은 로마시대 카펠라(Martianus Capella)에 의해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다. 물론 이들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의 변천을 거쳐왔지만 중세말기 이후에는 곧 쾰링거가 교육 받던 시기에는 7교양과목도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었고 주로 성경연구의 보조과목으로 강조되었다.

쾰링거는 바젤에서 다시 베른(Berne)으로 옮겨가 2년간(1496-1498) 수학하였는데 이곳에서 하인리히 뵐프린(Heinrich Wölflin)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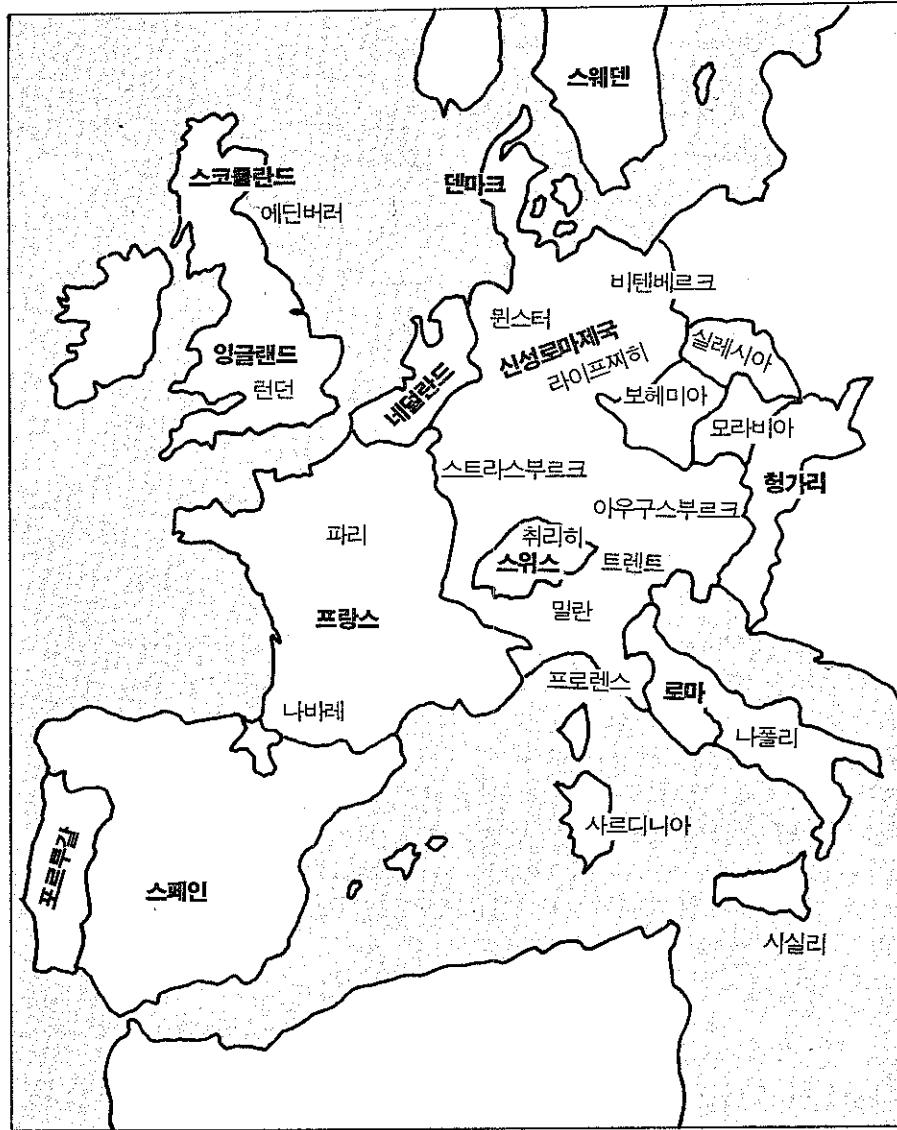
뵐프린은 르네상스식의 인문주의 교육을 이상으로 여겼던 인물인데 그는 쾰링거에게 고전어와 음악을 가르쳤다. 이때 벌써 쾰링거는 고전어와 학문분야에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1498년 가을에는 비엔나(Vienna)로 가서 비엔나 대학에서 수학하였는데(1498-1502) 이곳에서도 특히 고전어와 음악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았다. 1502년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 바젤대학으로 갔고 이곳에서 1504년에는 문학사(B. A) 학위를 1506년에는 문학석사(M. A) 학위를 받았다. 바젤대학에는 유명한 인문주의자 토마스 뵐텐바흐(Thomas Wyttenbach)가 있었는데 그에게서 쾰링거는 인문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에라스무스(Erasmus)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쾰링거의 생애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였다. 에라스무스는 쾰링거의 지적 우상이었고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석사학위를 받았던 해인 1506년초부터 신학수업을 하였고, 그해말 곧 그의 나이 22세때에 쾰링거는 콘스탄츠에서 신부로 임직되었고 글라루스(Glarus)교구의 사제로 취임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10년간(1506-1516) 봉사하였는데 이 기간은 후일 개혁자로서 삶에 든든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곳에서 당시 교회의 문제들을 체험하였고, 그의 해박한 고전어 능력으로 성경과 교부들의 작품을 읽고 연구하였다. 특히 헬라어 연구에 전념하는 한편 히브리어 공부도 겸하였고 에라스무스와 의 교제를 통해 인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에라스무스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그로 하여금 스킨라철학으로부터 떠나 성경연구에로의 길로 인도해 갔으며, 그의 인문주의적 경향성을

바울서신을 윤리적 측면에서 보도록 이끌어갔다(B.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p302)



종교개혁시대의 유럽

1516년 에라무스의 헬라어 신약성경이 편집, 출판되자 이 책을 빌려서 바울서신을 직접 옮겨 적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바울서신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다.

특히 쯔빙글리가 글라루스에서 사역하는 동안 용병제도(傭兵 Mercenary Service)의 문제점과 폐해를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당시 스위스인들은 용병으로 참가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생명의 파괴, 적대적 싸움, 약탈, 성병의 만연, 제도의 오용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특히 스위스인들이 왜 로마나 불란서를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하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는 1513년에서 1515년 어간 두 차례 용병의 종군신부로 참가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체득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1515년부터는 이 제도를 반대, 비판하는 설교를 시작하였다.

음악적 재능을 겸비한 목회자

쯔빙글리는 1516년부터 1518년까지는 소위 순례자의 중심지, 곧 마리아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진 아인지델른(Binsiedeln)의 수도원에서 사제로 일하였다. 그래서 이곳에는 소위 '동정녀 마리아'의 조상(Black Image of the Virgin Mary)을 보려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 들고 있었는데 이들 순례자들에게 속죄부에 대해 쯔빙글리는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소위 공포사상과 선행에 의한 구원교리 등 당시교회 문제점들을 보기 시작하였고 이들을 비판하기 시

작한 것이다.

쯔빙글리가 아인지델른에 머무는 기간 마침 독일에서는 루터에 의해 95개조의 항의문이 게재되었고(1517년) 교회개혁의 기운이 일고 있었다. 쯔빙글리는 1518년 아인지델른에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중단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루터와 거의 동시에 교회 개혁의 행보를 시작하고 있었다.

1518년 10월말경 쯔빙글리에게는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취리히시 강단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나 쯔빙글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경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점과 여성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다. 쯔빙글리는 사실 하프, 바이올린, 플루트, 코넷, 류트 등을 연주할 수 있었고 단 작곡도 할 수 있는 음악 애호가였다.

그는 다윗 같은 인물도 음악을 사랑했던 분으로 음악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목회자 자질의 평가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변명하고 자신의 여자관계에 있어서 한번의 실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였다.

쯔빙글리의 편지를 접한 취리히교회 참사원들은 1518년 12월11일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고 진지한 토의 끝에 첨자 6명의 자녀를 두었던 한 후보대신 쯔빙글리를 청빙하기로 결의시켰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그해 12월27일 아인지델른을 떠나 취리히로 이사하였다.

그래서 취리히는 이제 쯔빙글리의 삶과 목회와 그리고 개혁운동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1518

쯔빙글리와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 II

이 상 규 / 고신대학 교수

쯔빙글리가 취리히에 도착함으로써 이곳에서의 개혁활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취리히는 6천여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서 무역과 제조업으로 번성하였으나, 쯔빙글리가 언제부터 교회의 개혁자로서 복음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 그가 루터의 개혁운동으로부터의 영향이나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이한 견해들이 있다. 쯔빙글리 자신은 "루터의 이름을 듣기도 전에 개혁운동을 시작하였다"고 자신의 독자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루터로부터의 직·간접 영향이 전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쯔빙글리에게 끼친 루터의 신학적 영향은 보잘것 없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일반적으로 1518년 쯔빙글리가 취리히에서 활동을 시작할 무렵 이미 루터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쯔빙글리가 복음적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루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루터는 오랜 개인적 번민과 복음적 진리에 대한 고뇌에 찬 여정을 거친 결

과로 얻은 것이었지만, 쯔빙글리는 보다 실제적 현실적 교회상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즉 쯔빙글리는 인문주의자들의 방법론에 의한 성경연구와 함께, 당시 성행하던 종교적 미신에 대한 분노, 교회성직자들의 부정과 부패 및 용병제도에 대한 비판정신의 결과였다.

쯔빙글리는 1519년 1월부터 마태복음을 강해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순으로 설교하였다. 그는 강단에서 헬라어성경을 본문으로 하여 직접 해설하는 강해설교를 실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설교는 기록된 설교를 낭독하는 당시 설교관행과는 구별된 것이었다. 특히 그는 스위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설교하였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그의 뛰어난 설교로 곧 존경을 받게 되었고 1519년부터 1526년 사이에는 신약성경 전권을 강해하였다. 그는 이런 목회활동을 통해 로마 카톨릭교회의 종교적 남용을 비판하였다.

직접적으로 쯔빙글리는 교황청의 권력 남용을 실감하였는데, 그것은 1521년

교황청의 용병파병 요청이었다.

당시 찰스 5세와 교전상태에 있었던 프랑스왕 프란시스 1세는 스위스에 파병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스위스의 모든 자치주들이 파병하였으나 취리히 만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때 프랑스와 등맹관계에 있던 교황은 취리히도 용병을 보내도록 강요하였던 것이다. 쯔빙글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교황청의 권력남용의 문제를 실감하였고, 그의 설교를 통해 비판했을뿐만 아니라 용병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쯔빙글리의 지도력하에서 취리히는 스위스연방 안에서 점차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쯔빙글리에 의해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었다. 이 변화는 1522년을 경과해가면서 보다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즉 1522년 4월 아인시델른의 사제인 레오주드(Leo Jud)와 취리히교회 지도자들이 사순절(Lent) 금식을 지키지 않고 소세지를 먹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사순절 기간동안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취리히를 관장하던 콘스탄트 주교는 이러한 부도덕(?)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취리히시 의회는 이들을 투옥하였고 벌금형에 처하였다. 이때 쯔빙글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음식을 어느때나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이를 금지하는 교황의 법령은 복음에 의해 선포된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 그는 성경적 관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이들을 변호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1522) 이 작품이 교회개혁을 위한 쯔빙글리의 첫 작품으로서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관하여

(Concerning Creedom and Choice of Food)라는 글이다.

쯔빙글리의 로마 천주교 비판은 그 위를 넘쳐났다. 성직자의 독신제도가 비성경적임을 비판하였고 1522년 7월에는 쯔빙글리와 10여명의 동료사제들이 취리히 의회와 콘스탄츠 주교에게 복음에 대한 자유로운 설교를 보장할 것과 성직자의 결혼허용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청원은 거절되었지만 쯔빙글리는 안나 라인하르트(Anna Reinhart)와 비밀리 결혼하였고 1524년에는 그의 결혼이 공개되었다. 쯔빙글리와 안나 사이에는 8명의 자녀가 있었다.

1522년 쯔빙글리는 '처음과 끝'이란 뜻의 아르케텔레스(Archeteles)라는 제목의 또 한편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이 글은 종교개혁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The clarity and certainty of God's word)이란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쯔빙글리는 이 책을 통해 주교들로부터 영적 해방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만이 필요한 것이므로 교회나, 종교회의, 교황이 성경해석을 독점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는 성경의 우위성, 곧 성경의 명료성과 확실성,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성경 중심사상은 모든 개혁자들의 공통된 사상이었다.

쯔빙글리는 루터의 라이프찌히 논쟁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요구하였고 시의회는 이 요청을 수락하였다.



쾨빙글리의 초상

이렇게 되어 교회개혁을 위한 공개토론이 개최된 것이다.

교회개혁을 위한 공개토론

취리히에서의 공개토론은 스위스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공개토론을 통하여 취리히 시민들은 무엇이 참된 종교이며 무엇이 그릇된 종교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당시 교회적 관행의 문제점과 폐습, 신학적 오류

들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공개토론을 통하여 로마 천주교의 권력 남용과 사제주의의 병폐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시의회는 쾨빙글리의 복음주의를 지지하므로 교회개혁운동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제1차 공개토론은 1523년 1월29일 개최되었다. 로마천주교는 콘스탄츠주교를 대신하여 파베르 박사(Dr. Faber)와

사제들이 쾨빙글리의 논적(論敵)으로 참가하였고 쾨빙글리 쪽에서는 쾨빙글리와 그의 동료 바디안(Vadian), 세바스티안 메이어(Sebastian Meyer), 세바스티안 호프마이스터(Hofmeister) 등이 참가 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취리히시 인구의 약 10%인 600여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쾨빙글리는 헬리어, 히브리어, 라틴어성경을 펴 놓고 논쟁에 임하여 성경적 가르침을 천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쾨빙글리는 교회개혁을 위한 자기 입장을 쉽게 요약, 정리한 67개조(Sixty-Seven Articles)를 논쟁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67개 항, 혹은 67개조 신조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 1522년 작성된 문서로서 루터의 95개항과 비교될 수 있다. 이 67개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15개 조항에서는 성경적인 교리들(positive christian Doctrines)을 제시하는 부분으로서 '성경이 나의 기초다'는 쾨빙글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52개조항에서는 로마천주교 교리들을 비판했는데(objected to Roman catholic Doctrines) 이 부분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다시 말해서 쾨빙글리는 이 문서에서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임을 주장하고 천주교회의 미사제도, 교황제, 금식제도, 연옥설 등은 비성경적임을 지적하였다. 또 교황이 소유하고 있다는 대제사장적 직분, 기별이 아니라 희생(Sacrifice)으로서의 미사, 성자들의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 의무적

인 금식, 성지순례, 구도규칙, 성직자들의 독신제도, 파문의 오용, 면죄부판매, 고행 및 연옥에 관한 교리, 사제(同祭)제도 등 교회내에서 행해지던 각종 인위적 규칙들을 비판하였다.

제1차 토론에서 쾨빙글리는 자신이 작성한 67개조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초하여 변호하였다. 그러나 로마천주교회대표들은 쾨빙글리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쾨빙글리는 승리하였고 취리히 의회는 쾨빙글리의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인정하였다. 또 취리히주(canton)내의 모든 신부들에게 쾨빙글리의 가르침을 시행하며, 반드시 성경에 기초한 설교만 하도록 규제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취리히는 콘스탄츠교구와 결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로마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차 토론에서 승리한 쾨빙글리는 양측간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미사 및 성상(聖像 images)문제를 취급하기 위한 2차 토론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제2차 공개토론은 1523년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350명의 성직자와 10여명의 신학박사를 포함한 약 900명의 취리히 시민이 참가하였다.

로마 천주교측에서는 마아틴 슈타인리(Martin Steinli of Schaffhausen)와 콘라드 슈미트(Conrad Schmid)가 대표로 파견되었다. 이 토론에서 쾨빙글리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성상에 대하여(첫째 날), 미사에 대하여(둘째 날) 비판하였으나 천주교측 대표는 이를 옹호하였다.

이 토론의 결과 미사제도가 즉시로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시의회는 성상을 더 이상 교회안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다. 동시에 이미 있는 성상들은 철거하지 않도록 허용하였다(스피츠, 종교개혁사, p. 150).

2차 토론의 결과 쾰리히 편에서 볼 때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었으나, 쾰리히 시의회가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단지 개혁이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었을 뿐이다.

2차토론이 끝난 후 쾰리히는 요약기독교개론(A brief christian introduction)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1523년). 이 책은 특히 성상 사용에 대한 비판서로서 쾰리히주 내의 성직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의도로 쓴 작품이다. 혹자는 이 책이 급진적인 교회개혁안을 담고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해, 곧 1523년 12월에 쾰리히는 미사 대신에 루터파가 시행하는 성찬식을 도입하려고 하였는데, 시의회는 주저하며 중지를 명한 일이 있었다. 아직도 교회개혁의 길은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었다.

제3차 토론은 1524년 1월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이 논쟁에는 모두 14명이 참가하였는데 시의회를 대표하여 6명, 5명의 성당 참사회 의원, 그리고 엔겔하트(Engelhard), 레오주드, 쾰리히등 개혁을 주장하는 복음주의 대표들이었다. 이 토론에서 로마천주교 대표인 루돌프 호프만(Rudolf Hofmann)은 성상과 성상제도에 대해 상시간 옹호하는 주장을 폈으나 그가 제시한 23개항목

은 거의 모두가 교회의 전통, 교부들, 중세 스콜라 학자들의 문서, 교회회의의 훈령, 교회법 등 성경 밖의 자료들에서 취한 것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상제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전보다 더 쉽게 쾰리히의 성상폐지론을 따르게 된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토론의 결과 미사제도는 여전히 인정되었으나 성상은 폐지되었다. 미사에 대한 토론은 가장 격렬한 토론이었는데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제3차 토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통치자들(쾰리히시 의회)에 의해 미진하게 진행되자 쾰리히와 함께 개혁을 주장하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럽게 이해되었다. 즉 콘라드 그레벨(Conrad Girebel) 펠릭스 만츠(Felix Manz) 등은 보다 철저하고 과격한 개혁을 주장, 요구하였다. 그러나 쾰리히는 교회개혁에 있어 통치자의 역할을 인식하여 통치자를 통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차 때문에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등은 쾰리히와 결별하였고 보다 과격한 개혁운동을 전개해 갔는데, 이것이 바로 재세례파(Anabaptist)운동이다. 이들은 특히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성인이 된후 신자의 세례(belivers' baptism)를 통한 자유교회 설립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보통 재세례파라고 불린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일 별항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제3차 토론이 있던 후 5개월이 지난 1524년 6월15일 시의회는 최후의 결단을 내려 교회당에서의 모든 성상을 제거



하도록 명하였다. 이듬해인 1525년 1월에는 시의회와 과반수의 인사들이 쾰리히를 지지함으로써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이 크게 진전되었다. 그해 4월16일 쾰리히에서는 개혁교회 역사상 최초로 복음적인 성찬예식이 거행되었다. 즉 성찬식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념으로서, 그리고 영적 교제의 의미로 거행되었고, 또 오랫동안 평신도에게 분배되지 않던 포도주를 떡과 함께 분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초로 개혁교회 성찬예식을 거행한 것이다.

이 해에 쾰리히는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다.

곧 세례에 관하여(On Baptism), 재세례와 유아세례에 관하여(On Rebaptism and Infant Baptism, 1525. 4월) 세례에 관한 휴프마이어의 소책자에 답하여(Answer to Hubmaier's booklet on Baptism, 11월)등이 그것이다.

특히 1525년 3월에 출판된 참된 종교

와 거짓된 종교에 관한 주석(Commentary on the True and False Religion)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책은 프랑스 국왕 프란시스 1세에게 헌정된 책으로서 특히 기념(記念)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성찬식을 통해 신자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나아 간다는 자기의 해석을 명료하게 서술하였다.

쾰리히는 위의 책에서 참된 성경의 종교와 미신 또는 전통과 이성에 근거한 거짓 종교를 구분하였다.

앞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쾰리히는 에라스무스 적 인문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그의 생애와 저술 속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신학의 모든 기본원리는 '원천'(the very fountains) 그 자체인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상은 원래의 근원으로부터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인문주의적 형식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고지

쯔빙글리와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 Ⅲ

이 상 규 / 고신대학 교수(교회사)

어떤 주들은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여 개혁을 단행한 반면, 어떤 주들은 계속 로마천주교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 차이는 이미 존재하던 다른 갈등 요인들과 어우러져 긴장이 고조되었고 내란이 불가피하였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취리히에서는 시 의회의 지원하에 광목할만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회당에서 성상(우상)이 제거되었고 오르간의 사용도 금지되었다(오르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쯔빙글리가 음악을 혐오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쯔빙글리는 예술, 특히 음악 애호가였고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였다). 1525년 4월에는 천주교의 미사가 폐지되었고 그 대신 성경적인 성찬예식이 시행되었다. 많은 사제들, 수도사들, 그리고 수녀들은 독신제도의 굴레를 벗고 결혼하였다.

쯔빙글리는 취리히 시의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는 재능있는 설교가이자 조직가였고 행정적인 수완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시의회로 하여금 개혁운동을 지원하도록 이끌어 갔던 것이

다. 이제 취리히에서의 변화는 스위스의 다른 주(canton)들에게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스위스 연맹(The Swiss Cofederation)은 현대적 개념의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법률과 행정부를 갖춘 여러 자치주들의 연합체였다. 이들 주(현)들은 몇가지 공통의 목표들을 위해 연합적 기구를 갖추었을 뿐이다. 독일제국으로부터의 독립도 그 여러 목표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주들은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여 개혁을 단행한 반면, 어떤 주들은 계속 로마천주교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 차이는 이미 존재하던 다른 갈등 요인들과 어우러져 긴장이 고조되었고 내란이 불가피하였다. 당대의 대표적인 코스모폴리탄(보편적 세계주의자 cosmopolitan)이었던 에라스무스와는 달리 쯔빙글리는 열렬한 애국자였으므로 스위스의 모든 주가 교황의 멍에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삼림지역의 주(forest cantons)들은 계속 로마천주교에 남아 있기를 원했다. 취리히에서 개혁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1524년 4월 종교적 위협을 느낀 다섯개의 삼림주, 곧 슈비츠(schwyz), 우리(uri), 운터발덴(Unterwalden), 쯔크(Zug), 루

스위스의 주(州)와 도시들



체른(Luzern) 등은 천주교 신앙수호를 결의하여 연합하였다. 이들 주들은 종교적 문제외에도 취리히가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일련의 변화에 질투를 느끼고 있었고 스위스연방내에서 자기들의 지도적 위치를 계속 고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1524년 소위 베켄리이드(Beckenried)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취리히에게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위험을 의식한 쯔빙글리는 '경건한 연방주들에게 보내는 신실하고 진지한 권면'이라는 소책자를 작성하여 스위스인들이 고백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 그러나 이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로마천주교를 지지하는 주들과 취리히 등 북음주의 신앙을

“위험을 의식한 쯔빙글리는 스위스인들이 고백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 그러나 이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로마천주교를 지지하는 주들과 취리히 등 북음주의 신앙을 지지하는 주들간의 적의는 깊어만 갔다.”

“지지하는 주들간의 적의는 깊어만 갔다. 이렇게 되자 스위스 연방의회는 1526년 아아르가우(Aargau) 주에 있는 바덴(Baden)에서 종교회담(토론회)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은 5월 21일 개최되어 4주간 계속되었다. 천주교측에서는 바젤, 쿠르(Chur, Coire), 콘스탄츠, 로잔의 대표들 외에도 요한 엑크(John Eck)와 요한 파버(Johann Faber)박

사, 그리고 토마스 뮌너(Thomas Murner)를 파견하였다. 요한 엑크는 라이프찌히에서 루터와 토론했던 당대의 일급의 로마천주교 학자였고, 파버 역시 우수한 학자이자 토론자였다.

뮌너는 프란체스코 교단소속의 위대한 논쟁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취리히를 지지하는 복음주의 측에서는 바젤의 외콜람파디우스(Oecolampadius)와 베른의 베르톨드할러(Berthod Haller)를 파송하였다. 외콜람파디우스는 바젤의 종교개혁자로서 바젤대학 성경신학 교수였으며 성마틴교회의 설교자였다. 할러는 베른의 종교개혁자였다. 쾰빙글리는 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요한엑크가 이 토론을 주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쾰빙글리는 참석을 거절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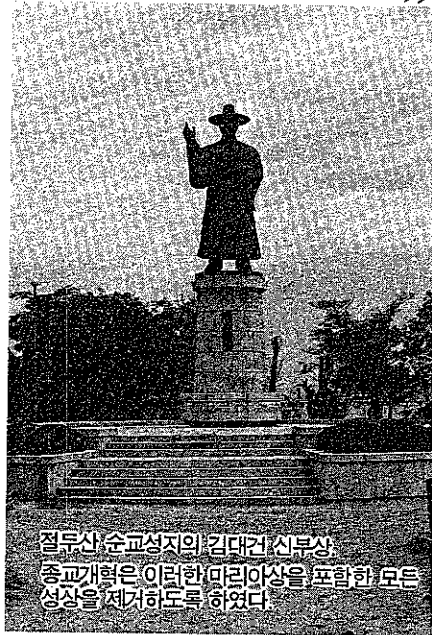
이 종교회담에서는 성찬예식, 원죄, 연옥교리, 성상, 성자송배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바덴 논쟁은 로마천주교측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되자 스위스 연방내의 개신교도들에 대한 로마천주교회의의 압력은 가중되었다. 천주교회를 지지하는 주들은 쾰빙글리를 축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취리히주를 비롯하여 베른, 바젤, 샤프하우젠(Schaffhausen) 등은 이를 반대하였다.

1527년 2월과 3월에는 바젤과 콘스탄츠에서 또 다른 신학 논쟁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개신교측이 승리하였다. 또 1528년 1월에는 베른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은 3주간 계속되었다. 이때에는 베른의 성직자와 주의회 대표들의 예, 독일의 고지대 도시들, 이를테면 스트라스부르크, 콘스탄츠, 진다우 그리

고 메밍겐 등의 대표들도 참석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복음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이들이 크게 승리하였다. 이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베른에서의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당시 베른은 취리히와 더불어 스위스연방의 가장 중요한 주였기 때문이다. 베른논쟁 이후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주들은 천주교회를 지지하는 주들의 베켄리이드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 성찬예식, 은죄, 연옥교리, 성상, 성자송배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바덴 논쟁은 로마천주교측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되자 스위스 연방내의 개신교도들에 대한 로마천주교회의의 압력은 가중되었다. ”



절두산 순교성지의 김대건 신부상
종교개혁은 이러한 마리아상을 포함한 모든 성상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1529년 동맹을 체결했는데, 이 동맹을 보통 '그리스도교적 동맹(christian civic union)'이라고 부른다. 이 동맹에 가입한 주들로써는 취리히, 베른 외에 콘스탄츠, 세인트 갈, 바젤, 그리고 스트라스 부르크 등이었다. 1529년 4월에는 로마천주교회를 지지하는 주들이 스위스의 오랜 숙적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Habsburg)가(家)의 페르디난트 공작과도 동맹을 맺었다. 즉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로마천주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오랜 정적(政敵)이었던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합스부르크가 출신인 찰스5세와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같은 위기앞에서 쾰빙글리는 프로테스탄트 주들이 먼저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른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은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데는 반대하였다. 그러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었으므로 쾰빙글리는 다른 주의 원조없이 1529년 6월 8일 로마천주교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베른은 마지못해 취리히를 따랐다. 그러나 그해 6월 26일 중재적 화의(和議)가 이루어지므로 카펠에서의 결전을 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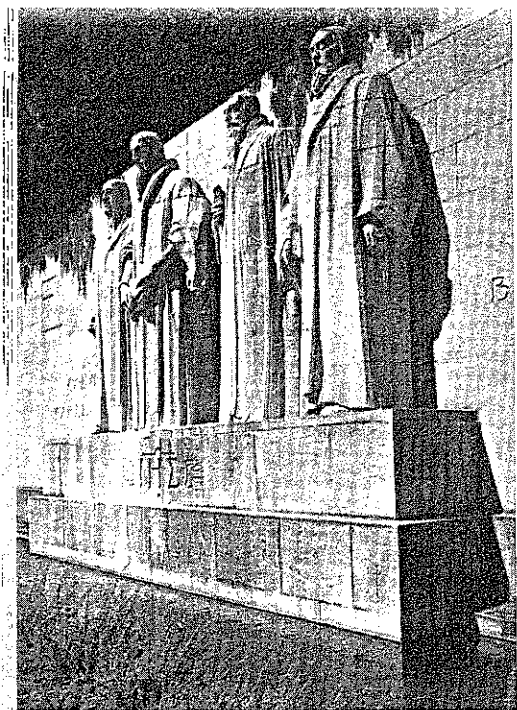
이때 체결된 조약을 보통 제1차 카펠 평화조약(the first Peace of cappel, 1529. 6. 26)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은 로마천주교를 지지하는 주들이 페르디난트와 맺은 조약을 취소하는 한편, 복음적 교회들의 존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비록 일시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양측의 피해는 없었으나 황제 찰스 5세 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었으므로 쾰빙글리는 다른 주의 원조없이 1529년 6월 8일 로마천주교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베른은 마지못해 취리히를 따랐다.

도하에 로마천주교측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자 쾰빙글리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헷세의 필립(philip of Hesse)의 도움을 받아 독일의 루터파와 연합하므로 개신교세력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루터파 역시 정치적인 위협아래서 스위스의 쾰빙글리측과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었던 회담이 이미 언급한 1529년 10월의 '마르부르크 회담'(Marburg Colloguy)이다. 이미 기술한 바이지만 이 회담에서 루터와 쾰빙글리간의 성찬관(觀)은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이들간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아니 종교개혁사에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양자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치적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루터파는 개혁의 본거지인 삭스노지방을 합스부르크가의 천주교 연합세력에 의해 점령당했던 것이 한 예이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독일지방 개혁운동은 루터파(Lutheran)로, 쾰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은 후일 칼빈의 개혁활동과 연합하여 개혁파(Reformed)를 형성함으로써 복음주



종교개혁의 인물들 - 제네바 -

천주교회를 지지하는 삼림주들은 이에 대하여 약 8천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취리히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와 천주교간의 종교전쟁이었다.

의 교회가 양대세력으로 분리되었던 것이다.

어떻든 1530년 전후의 스위스의 상황은 긴박하였다.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쾰빙글리는 천주교측의 선제공격을 내심 두려워하였고, 천주교주들에 대한 밀, 소금, 포도주, 철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경제 봉쇄령을 내렸다. 천주교회를 지지하는 삼림주들은 이에 대하여 1531년 10월 11일, 약 8천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취리히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프로테

스탄트와 천주교간의 종교전쟁이었다. 취리히의 카펠에서 이들과 맞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쾰빙글리도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취리히측의 전사자는 4백명 이상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26명의 시의회 의원과 25명의 목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Lewis W. Spitz, 종교개혁사, p.166) 취리히가 패전한 가운데 이 전투는 휴전이 이루어졌다. 이때 체결된 조약이 '제2차 카펠평화조약'(The second peace of cappel, 1531. 11. 20)이다. 이 조약은 프로테스탄트측에는 불리한 것이었다. 즉 프로테스탄트는 더 이상의 영토확장이 금지되고 현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고 프로테스탄트지역에서의 천주교도의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를 지지하는 주에 속한 신교도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취리히에서는 프로테스탄트신앙과 예배가 허용되었으나 종교개혁의 확장은 중지시킨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역사가 지난 후 돌이켜 볼 때 카펠전투에서의 패배는 오랜기간 스위스에서 신앙고백적 경계선을 그어 놓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초까지 천주교를 지지하는 주들과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주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쾰빙글리가 죽은 후 스위스개혁운동은 레오쥬드(Leo Jud)와 특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에 의해 계승되었다. 불링거는 브렘가르텐(Bremgarten) 출신의 성직자로서 쾰빙글리의 후계자이고, 사위이며, 전기작가이기도 했다. **고지**

개혁주의 신조신학에 대하여 (1)

신조의 가치는 얼마만큼 성경과 일치하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신조신학은 신앙고백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신조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고백하는가를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김 응 수 / 안의교회 목사 거창노회장

개혁 주의 신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학문적인 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며 개혁주의 신조신학에 대한 연구 논문은 더욱 부족하다.

그것은 개혁주의 신조신학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혁주의신조의 범위가 너무 넓고 어디까지가 개혁주의 신조이며 어디부터가 아닌지 그 선을 긋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개혁주의 신조로 취급되는 것이 60여개가 있는데 혹자의 경우에는 60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또는 30여개로 헤아리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개혁주의 자체가 지금도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개혁교회 이전에는 신조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천주교회에 신조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없다고 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들은 교회가 곧 신조이기 때문

에 신앙고백이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통일된 신조가 없다. 그것의 가치 기준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신앙의 선배들이 각기 독특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독특한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면 되었지 약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실제적으로 지역과 시대를 따라 개혁교회들이 각기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상 우리들에게 대단히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개혁주의 신조의 역사적 성립과정을 살피고 그 내용과 의의를 가려서 통일된 신학을 찾아 참된 개혁주의신조 신학방법을 얻어보고자 한다.

개혁주의 신조 현장

신조 발생 현상

로마카톨릭 교회는 신조가 있는 교회(고백교회)가 아니다. 저들은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부족한 점을 느끼지 않는다. 이유는 로마카톨릭



존 칼빈 (John Calvin)

종교개혁사 13

칼빈과 제네바의 종교개혁

칼빈은 칭의론 중심의 신학에서 진일보하여 루터가 무시하였거나 정당하게 강조하지 못했던 다른 측면들에도 깊은 관심과 신학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상 규
고신대학 교수
(조직신학)

이제 우리는 칼빈의 개혁운동에 대해 공부할 때가 되었다. 흔히 칼빈은 루터와 쾰빙글리우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3대인물로 불리지만, 칼빈은 루터나 쾰빙글리우에 비해 한 세대 후배로서 이 전 시대의 개혁정신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상을 발전시킨 저명한 신학자이자 교회개혁가였다. 그는 비록 스위스의 불어 사용지역이었던 제네바(Geneva)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그의 영향력은 전 구라파에 미치는 광범위한 것이었고 제네바를 세계적인 개혁운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칼빈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었다. 루터를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세계사적 사건을 이끌어간 개척자였다고 한다면 칼빈은 루터의 복음주의적 신학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프로테스탄트신학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하였고 사도적 교회상을 회복한 심오한 사상가였다.

루터는 오랜 번민과 정신적 고통을 거쳐 복음주의적 구원교리, 곧 칭의의 교리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이신득의(以信得義)의 교리는 항상 그의 신학을 압도하였다. 그러나 제 2세대 개혁자인 칼빈은 칭의론 중심의 신학에서 진일보하여 루터가 무시하였거나 정당하게 강조하지 못했던 다른 측면들에도 깊은 관심과 신학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산일 루터의 신학의 축을 칭의론이라고 한다면 칼빈의 신학은 특히 성화론(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칼빈은 그의 생애와 저작들과 개혁활동을 통해 16세기는 물론 그 이후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자취를 남겼고 칼빈주의 신학과 교회에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였던 존 몰리(John Morley) 경은 "서양사상사에서 칼빈을 제외하는 것은 마치 한 눈을 감고 역사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칼빈이 프랑스인이며,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복음적 신앙을 가졌으며, 후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프랑스가 종교개혁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일은 칼빈과 같은 특출한 인물을 배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John Calvin)은 1509년 7월 10일, 불란서 파리에서 동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칼디(Picardy)현의 노용(Noyon)에서 다섯 아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생가는 성당의 그림자를 받는 곳에 위치할 만큼 교회와 인접한 곳이었고 그의 가정환경은 교회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제랄드 칼빈(Gerald Calvin, Gerhard Cauvin)은 노용에 위치한 노트담(Notre-Dame) 성당의 참사회의 공증인이자 주교의 비서였고 후일에는 그 교구의 재무관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 잔느 르 프랑(Jeanne le Franc)은 폴란드 출신 여성으로서 여관업자의 딸이었는데 이들은 1500년이 되기 얼마 전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빈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료가 빈약하지만 아름답고 경건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 칼빈의 어머니는 칼빈이 6세 때인 1515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곧 재혼하였으므로 칼빈은 어린시절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끌레주 데 까페트(Collège des Capettes)라는 지방학교를 다녔고 1523년 8월에는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 파리로 갔다. 그래서 그는 그 때 파리대학에 있는 마르슈대학(College de la Marche)에 입학하였다.

이 때가 그의 나이 14세 때였다. 당시 이 대학에는 마튀랭 코르디에(Mathurin Cordier, 1479-1564)라는 저명한 인문주의자가 교수하고 있었는데, 이 분은 후일 개신교로 개종한 분으로

서 칼빈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

칼빈의 저술에 나타나는 논리의 명료성, 분석의 정확성 등은 이 때 받은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로부터 27년 후 칼빈은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Thessalonians)을 집필했는데, 칼빈은 이 책을 꼬르디에에게 헌정하였고 그를 "경건과 학문에 뛰어난 인물"이라고 칭송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꼬르디에의 가르침으로부터 힘입은 바 크다고 회고하였다.

약 일 년간 꼬르디에로부터 라틴어와 인문주의 정신을 배운 칼빈은 보다 유명한 대학인 몽 페규 대학(College de Montaignu)으로 전학하였다. 칼빈이 이 대학으로 옮겨간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존 맥닐(John Mc Neil)은 아마도 사제가 되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칼빈은 이 대학에서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옥캄(William of Ockham), 비엘(Gabriel Biel) 등 후기 스콜라주의 신학과 철학을 배웠고 롬발드(Peter the Lombard)의 조직신학(Sententia)도 배운 것으로 보인다.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Erasmus)도 이 대학에서 수학하였는데, 칼빈은 1528년까지 이 대학에서 공부하여 문학석사 과정을 끝냈다. 엄격하고 금욕주의적 경향이 짙었던 이 대학은 칼빈의 지성을 위한 적절한 훈련소였다.

그러나 이 때 칼빈은 법률학을 공부하기 위해 오르레앙 대학(the University of Orleans)으로 옮겨 갔다. 칼빈의 아버지는 모종의 불화로 성당참사회 및 주교와 심히 다투었고 소송을 하게 되었고, 1528년 11월 2일에는 불공정하게 파문을 받았다. 이렇게 되자 칼빈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 보다는 명예와 재산을 얻기에 유리한 법률

가가 되기를 원했다. 칼빈은 부친의 권유에 따라 1528년 3월 오르레앙 대학으로 가, 이 대학의 유명한 법률가였던 피에르 태상 드 레포알(Pierre Taisan de L'Etoile) 밑에서 법률(civil law)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 법과 대학에는 5명의 민법(民法) 교수와 3명의 교회법(敎會法) 교수가 있었는데, 민법연구도 결코 중세적 기독교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칼빈은 이 대학에 일 년간 체류하면서 인문주의를 배웠다. 그는 성경을 불어로 번역했던 인문주의자 올리베탄(Pierre Robert Olivetan, 1506-1538)의 도움으로 불란서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서클에 소개되었다. 이 곳에서 칼빈은 르네상스 정신과 접촉할 수 있었고, 특히 올리베탄으로부터 기독교의 참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이 곳에서 또 칼빈은 파리에서 온 니콜라스 콕(Nicholas Cop), 헬라이어 선생이자 친구였던 멜키오르 볼마르(Melchior Wolmar)와 교제하였다.

1529년 가을에는 부르주대학(College de Bourges)으로 옮겨갔다. 이태리 출신의 교회법학자인 안드레아 알치아티(Andrea Alciati)에게서 교회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법률학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 대학에서 칼빈은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해인 1531년까지 있었다.

칼빈은 1532년에는 다시 오르레앙 대학으로 돌아갔고 이듬 해인 1533년에는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당시 칼빈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볼마르였다. 칼빈보다 3년 연배이자 호머

(Homer)에 관한 책을 저술했던 볼마르는 칼빈에게 헬라이어 원어로 신약을 읽도록 가르쳤고 성경 원전에 대한 지적 열정을 이끌어 주었다. 아마도 볼마르를 통해 칼빈은 루터의 신학을 접한 것으로 보인다. 후일 칼빈이 고린도후서 주석을 볼마르에게 헌정한 것을 보면 그에게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칼빈은 이제 자신의 희망에 따라 인문학을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부르주를 떠나 콜리지 포르테(College Fortet)로 옮겨갔는데, 이곳에서 칼빈은 헬라이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였다. 이상과 같은 칼빈의 지적 여정은 후일 그의 생애와 저술활동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학문적 능력은 학자로서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칼빈의 최초의 저술은 그의 나이 23세 때인 1532년 4월에 출판된 세네카(Seneca)의 관용론 주석(Commentaire du De Clementia)이었다. 당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나 라틴저술가들의 저작을 주해하는 일은 매우 빈번한 일이었고 학계에 공헌하는 일로 여겨졌다. 세네카는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에게 사랑받는 '선한 이교도'였으며 당시 추세로 보아 관용의 문제는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주제였다. 그러나 칼빈의 첫 저서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식자층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 호자는 첫 저서에 대한 실망스런 경험이 그를 기독교 인문주의자들로부터 떠나 복음주의자의 반열로 돌아서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121

후문에서 본 칼빈교회



칼빈과 제네바의 종교개혁 II

칼빈이 파리를 떠나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1534년 프랑스는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강력한 로마 천주교 신앙을 지켜가며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프로테스탄트 신앙운동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힘썼으나 교회개혁의 기운은 불란서 파리에서도 점차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 상 규 고신대 교수

칼빈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은 그가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판한 후 약 18개월이 지난 1533년 10월에 일어났다. 즉 칼빈은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판한 후 오르레앙 지방에 가서 일 년간 체류하였고 1533년 8월에는 그의 고향인 노옹을 방문한 후 다시 파리로 돌아갔다. 이 때가 1533년 10월이었다. 칼빈은 이곳에서 기왕의 친구였던 니콜라스 콕(Nicholas cop)과 교제하였고 1533년 10월 31일, 곧 '모든 성자의 날'(All Saints' day) 니콜라스 콕은 파리대학 학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이 때의 취임 연설문은 칼빈의 영향하에 작성된 것이었다. 혹자는 칼빈이 연설문을 대신 썼다고 주장 하기도 하지만 이 점은 분명치 않다. 칼빈이 어떤 형태로든 연설문 내용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었다. 이 사건 때문에 니콜라스 콕과 함께 칼빈은 파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연설문에서는 소르본느 대학과 그 신학자들의 완고함을 비판하고,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인용하여 교회개혁운동을

동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적 신앙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속에 신앙과 사랑과 희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으로 인도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할 하나님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의 힘에 의하여 소망 중에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이 연설문 속에 복음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니콜라스 콕은 곧 당국의 소환을 받았고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그는 곧 바젤로 도피하였다. 칼빈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파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미 그는 가택수색을 받았고 그의 책들과 서신들은 압류된 상태였다. 그래서 칼빈은 일정기간 파리에 숨어 있었으나 1534년 초 가명을 쓰고 루이 뒤 툴레(Louis du Tillet)

창간 11주년



동부가천교회

담임목사 : 박삼철
장 로 : 김재도 박복규 외
교우일동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70-4
T. (0598) 2-2631(교)
43-6644(목)

진영교회

담임목사 : 김기수
장 로 : 박자용 반성용 서선용
이기석

강 도 사 : 김진규
전 도 사 : 김은수 외 교우일동
경남 김해군 진영읍 동구 246번지
T. (0525) 42-1383(교)
42-2920(목)

예림중앙교회

담임목사 : 김종문
장 로 : 박수철 양은퇴 박성실
백운기 이장오 박대은
• 은퇴 : 박은수

전 도 사 : 정상울 외 교우일동
경남 밀양군 상남면 예림리 913
T. (0527) 355-6483(교)
355-6481(목)

가솔교회

담임목사 : 원대연
장 로 : 진점석 이영실 김용규
김진신

• 은퇴 : 최인조 허일수
전 도 사 : 지영근 이병학 외 교우일동
경남 창원군 대산면 가솔리 303번지
T. (0551) 91-6187(교)
91-4732(목)

무안동부교회

담임목사 : 성장철
장 로 : 김종환 강신화 강신우
김행구 서무광

• 은퇴 : 강석희
전 도 사 : 안창주 외 교우일동
경남 밀양군 무안면 무안리 826-10
T. (0527) 53-9480(교)
52-0030(목)

진해동부교회

담임목사 : 최상수
부 목 사 : 김기해
장 로 : 정주석 박경태 김광선

전 도 사 : 최혜자(여) 김석술
고성욱 외 교우일동
경남 진해시 이동 62-4
T. (0553) 545-4160(교)
545-4161(목)

창간 11주년



활천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세중
 장로: 손석환
 • 협동: 오성식 정남조
 강도사: 김윤수 김귀하 박진환
 외 교우일동
 경남 김해시 삼방동 113B 1L
 T. (0525) 33-4732 (교)
 32-4733 (목)

금정로교회

담임목사: 김명관
 장로: 김선식 차재기
 강도사: 박중성
 전도사: 김성일 신정민 오종학
 외 교우일동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563-125
 T. (051) 515-1271 (교)
 515-1270 (목)

양산교회

담임목사: 신수인
 원로목사: 김종석
 장로: 장창홍 김현철
 • 은퇴: 김두천
 강도사: 박창규
 전도사: 성삼영 김성애
 경남 양산군 양산읍 중부동 158
 T. (0523) 386-2268 (교)
 83-2268 (목)
 385-9457 (유치원)

덕두교회

담임목사: 이장우
 장로: 박영길 류준하 오길생
 신진준
 전도사: 강성진 조홍래 외
 교우일동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031-1
 T. (051) 98-8385 (교)
 98-1253 (목)
 98-0700 (유치원)

두구동교회

담임목사: 장교종
 장로: 리대영 배성환
 전도사: 김정태 안창민 외
 교우일동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1042-5
 T. (051) 508-2703
 508-2754

금사교회

담임목사: 김명석
 장로: 정재익 우재운
 • 은퇴: 박희명
 전도사: 고창업 진종택 외
 교우일동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33-2
 T. (051) 524-3122 (교)
 522-0307 (목)

집에 은신해 있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칼빈은 루이 뒤 킬레의 장서들을 이용하여 지적 성숙을 이루어 갔으며 이 때의 공부는 후일 기독교강요를 집필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빈이 파리를 떠나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1534년 프랑스는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강력한 로마 천주교 신앙을 지켜가며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프로테스탄트 신앙운동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힘썼으나 교회개혁의 기운은 불란서 파리에서도 점차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루터의 개혁운동에 관한 정보는 구라과 각국으로 국경의 경계망을 넘어 흘러들어갔고 루터의 작품들도 암암리에 회람되고 있었다. 정신, 이념 혹은 사상적 통제는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점차 그 위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1534년 10월 18일에는 소위 '플랭카드 사건'(The Affair of the placards)이라 불리우는 프로테스탄트들의 공개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즉 이날 일군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교황제하에서 실시되는 미사의 오용에 관한 조항..."으로 시작되는 벽보들을 파리와 불란서의 주요도시에 게재하고 신앙적 자유를 주장하였고, 불란서의 천주교 옹호정책을 비난하는 거사를 감행한 것이다. 이 때 벽보는 암보아즈(Amboise)에 있는 왕궁 안 왕의 침실문 앞까지 붙이는 기습적인 일이었다. 불란서 왕 프란시스 1세는 이를 중시하여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탄압을 구체화 하였다. 특히 그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탄압을 정치

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는 주교의 저택에서 벌어진 향연에서 천주교를 반대하는 해독을 철저히 제거하겠노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사실 그는 그의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수백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수색, 체포하였고 그중 35명을 화형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칼빈의 친구 안티엔느(Etienne de la Forge)와 칼빈의 친형제 중 하나는 이때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프란시스 1세는 교황 바울 3세(Paul III)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 영토내의 모든 이단을 섬멸하겠노라는 칙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불란서의 정치적 변혁기에 칼빈은 파리를 떠나 순례자의 길을 떠나, 뒤 킬레와 함께 스트라스부르크를 거쳐 바젤로 도피하였다. 이 때가 1535년 1월이었다. 이 곳에서 그는 프로테스탄트의 최고의 저작이자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고전으로 불리우는 기독교강요를 집필, 출판하였다.

칼빈 연구가들에 의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는 칼빈의 회심에 관한 문제이다. 언제 칼빈이 로마 천주교와 결별하였으며, 또 정확하게 언제 이러한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전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529년에서 1533년 사이에 회심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칼빈은 루터에 비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관심이 적었다. 혹자는 칼빈이 자신의 회심과 그 상황에 대

해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일은 자신의 삶에 대해 과묵하였던 그의 특성의 전형적인 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이 1557년에 출판했던 시편주석 (Commentary on the Psalms)의 서문은 그의 회심에 관해 추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의 부친은 내가 신학을 연구하도록 작정하셨다. 그러나 후에 나의 부친은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나를 법과대학에 보내기로 마음을 변경하셨다. 그래서 나는 문과 공부에서 법과 공부로 바꾸었다. 이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의하여 나는 다시 나의 방향을 변경시켰다. 나는 교황주의의 미신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깊은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회심(subita conversio)에 의하여 나의 마음을 녹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docilitas)하였다...

칼빈은 1534년 초 그의 아버지가 마련해 두었던 성직기록을 거부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로마 천주교의 지원을 사양하고 로마교의 사술에서 홀연히 떠났다.

이렇게 볼 때 칼빈의 개종과 회심은 갑작스런 사건이었고 이 일은 그가 세네카의 관용론주석을 출판한 이후인 1532년 이후 1533년 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칼빈은 일부 인문주의자들의 영향,

칼빈의 개종과 회심은 갑작스런 사건이었고 이 일은 그가 세네카의 관용론주석을 출판한 이후인 1532년 이후 1533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깊은 성경 연구, 그리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한 탐구를 통해 복음주의 신앙으로 회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빈의 회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경륜이었다는 점이다. 칼빈의 후계자이자 처음으로 칼빈의 전기를 썼던 데오도베자(Theodore Beza)에 의하면 칼빈은 그의 회심에 있어서 특히, 불란서 인문주의자이자 그의 친척이었던 올리베탄(Pierre Robert Olivetan)의 영향이 컸다고 했는데 이점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칼빈이 1533년 1월 바젤에 도착한 이래로 그는 학문 연구에 진력하려고 생각하였다. 사실 칼빈은 학문 연구와 저술의 소명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다. 그는 바젤에 도착하기 전인 1534년에 이미 그의 첫 신학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싸이코파니치아(Psychopannychia)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지만 이 책에서 칼빈은 사람이 죽은 후 부활 때까지 영혼의 상태에 대해 설명 하였다. 즉 칼빈은 이 작품을 통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잠을 잔다는 소위 '영혼수면

설'(the doctrine of the sleep of the Soul)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사망시부터 부활의 때까지 영혼은 의식 없는 수면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으며, 느끼며, 활동하고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책은 불란서 등지에서 재침례파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던 영혼 수면설을 비판한 것이므로 칼빈의 첫 신학 작품이자 재침례파에 대한 첫 비판서가 되었다.

바젤에 도착하여 어느 정도 안전을 누리게 된 칼빈은 이제 혼란의 시대 속에서 교회의 바른 신앙을 명백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또 다른 논문들을 저술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일 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의 엄청난 노력의 대가로 또 한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1535년 8월 탈고) 그것이 기독교 강요(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이다. 이 책은 프로테스탄트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전체에 관한 요약물 저술한 것인데, 당시만해도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저술들이 당면한 논쟁점에 대해서만 논급하고 있었으므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는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칼빈은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적 개요 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강요를 집필하게 된 것이다. 칼빈은 이 책을 1535년에 완성했으나 출판된 것은 이듬 해 곧 1536년 3월이었다. 516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전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4장에서는 율법, 신경(信經), 주기도문, 성례를 취급하였고 마지막 두 장에서는 다소 논쟁적인 주제였던 천주교의 오도된 성례관을 비

판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를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요약하였다. 첫 4장의 내용이나 형식을 볼 때, 이것은 루터가 1529년에 썼던 소신양학서(Kleine Keatechismen)를 모방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칼빈이 이 책을 쓴 것은 보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 책이 불란서 왕 프란시스1세에게 헌정된 사실에서 암시되고 있지만, 이 책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간명하게 가르치려는 교육적 의도와 더불어 불란서의 박해 받는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을 옹호, 변증하려는 목적으로 썼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을 통해 프로테스탄트의 교리적 입장을 변호(apologia pro fide sua)하고 복음주의자들은 급진적인 그룹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1534년 10월의 플랭카드사건 이후 박해 받던 불란서 복음주의자들을 변호하려는 변증적 동기에서 이 책을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라틴어로 저술되었던 이 책 초판은 9개월만에 매진 되었고 그 수요는 확대되어 갔다. 칼빈은 이 책을 1539년 증보하여 제2판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출판하였고, 이 때부터 계속하여 개정과 증보를 거쳐 1559년에는 결정판을 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기독교강요이다. 1559년의 결정판(불어역본은 1560년에 나옴)은 1536년의 초판과는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초판은 오직 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결정판은 4권 80장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저술로 변해 있었다. 후에 다시 언급 할

계획이지만 칼빈은 평생 동안 저술 활동을 계속하였고 또 많은 양의 작품을 썼다. 그는 거의 30년 간 저술을 계속하였는데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루터 등을 제외하고는 칼빈 만큼 방대한 저술을 남긴 이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사상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집필 활동을 했다는 점은 특이한 일이다. 루이스 스피츠는 “칼빈은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글을 쓰고, 책을 저술했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놀랄만한 동질성(homogeneity)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그의 종교개혁사, p.206).

칼빈은 1536년 4월 기독교강요를 출간한후 이탈리아로 갔다. 그 곳 펠라라(Ferrara)에서는 공작 부인인 르네 드 프랑스(Renée de France)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의 작은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 곳에서 잠시 머문 뒤 다시 바젤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자신의 종교적 확신 때문에 조국 불란서에서 살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망명의 길을 택하기로 하고 자신의 주변을 정리 할 목적으로 불란서를 방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1536년 6월,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파리로 갔다. 파리에 도착한 칼빈은 그의 형제 앙드레와 이복 여동생 마리(Marie)를 안전한 스트라스부르크로 보내고 자신 또한 재산을 처분하여 조국을 떠나 스트라스부르크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스트라스부르크는 후일 재침략파들에 의해 '의의 피난처'로 불리던 곳으로서 타 도시에 비해 종교적 관용 정책을 쓰던 도시일 뿐만 아니라, 프로

그러나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로 직행할 수 없었다. 이것은 칼빈의 생애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환경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테스탄트들이 득세하고 있었으므로 칼빈이 활동하기에 편리하고도 안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로 직행할 수 없었다. 이것은 칼빈의 생애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환경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당시 프랑스와 스트라스부르크시와는 대결하고 있었고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 스트라스부르크로 향하는 길은 군사작전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그래서 칼빈은 우선 제네바로 가서 그곳을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인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을 택했다.

칼빈은 파리를 떠나 1536년 7월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 곳에서 며칠을 유한 후 다시 스트라스부르크로 떠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 개인의 희망이었을 따름이다. 하나님은 이 곳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보다 거룩하고 소중한 사명을 위해 그를 제네바에 묶어 두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칼빈의 생애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미 어거스틴이 말한 바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측량할 수는 없는 것이다(finitum non est capax infiniti).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한 예수대행진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기독교 대학과 학생들의 사회참여의 방법을 두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부패하고 혼돈된 이 사회를 변혁시키려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어야 된다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인됨을 선포하기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김 신 규 본지 기자

과감히 죄악된 사회를 개혁하고 이 땅에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행사가 부산에서 있었다. 고신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5월 27일 부터 29일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가진 예수대행진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한 고신대 총학생회장 김성은 군(신학3년)은 이번 예수대행진의 개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선 우리 기독교 대학과 학생들의 사회참여의 방법을 두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부패하고 혼돈된 이 사회를 변혁시키려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어야 된다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지금도 계속해서 만연해가는 퇴폐, 향락문화가 마치 주인인양 안주해 버린 이 땅에 주님이 주인됨을 선포하기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 첫날인 27일 약35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총학생회장의 개회 인사와 김성린 부학장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후 2부 순서로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가두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결의문에서 참석자들은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음란·퇴폐·향락문화 추방과 진정한 기독교 문화의 정착, 밝은 사회건설 등 세 가지를 결의했다. 한편 가두캠페인을 할 때에는 구원의 주님을 알리는 전도의 팻말로부터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문제 즉 음란·퇴폐문화 추방, 공해를 비롯한 환경문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집단이기주의, 교육제도개선 등 각종 팻말을 들고 부산역에서 남포동에 이르는 약 4km정도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둘째날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주제로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더불어 찬양의 큰 잔치를 벌였다. 이날 이근삼 학장은 설교를 통해 “우리가

칼빈과 제네바의 종교개혁 IV

제네바에서의 칼빈

제네바에서

의 칼빈의 활동은 제네바 시 교회에서의 바울서신, 특히 로마서 강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성직자로 안수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Harold J. Grimm,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p.267), 그때로부터 1여년 가까이 정규적인 설교자는 아니었다. 단지 그는 파렐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제네바도착 이듬해인 1537년 2월까지의 시 의회로부터 어떤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제네바 시의회 서기는 칼빈을 그저 '저 불란서인'(that Frenchman)이라고 호칭할 정도였다.

그러나 점차 칼빈의 활동과 역할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곧 그의 뛰어난 신학적 통찰력, 법률가로서의 훈련, 그리고 교회개혁을 위한 불타는 정열은 칼빈을 제네바시 개혁운동의 중심부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되 준비된 만큼 쓰시는 분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인사행정은 정확하다.

칼빈은 제네바 개혁운동의 이념과 정신, 그 조직과 활동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고 점차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간 것이다.

이 상 규 교신대 교수(역사신학)

이 당시 칼빈의 안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 안수 여부에 대한 상반된 단서들이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존 맥닐(John Mc Neill)은 상반된 견해가 있기는 하나 칼빈이 "프로테스탄트 회중 속에서 목회를 위해 엄숙히 구별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p.158).

칼빈의 탁월성은 1536년 10월 로잔(Lausanne)에서 있었던 로마 천주교와의 신학토론에서 입증되었다. 즉 이 해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계속된 신학토론은 베른(Bern) 시의 종교적 항배를 결정짓기 위한 목적이었다. 천주교 측에서는 약 200명의 사제들과 수사들이 참석하였으나 그렇게 유능한 토론자는 없었다. 개신교측에서는 파렐과 삐에르 비레(pierre viret), 그리고 칼빈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비록 칼빈은 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로잔으로 갔으나 수일동안 토론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때 토론의 주된 내용은 성찬론에 관한 것이었는데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입재에 대해 칼빈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입재를 확연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이때 칼빈은 초대교회

들의 주장과 저술들을 해박하게 인용하면서 천주교의 주장을 가볍게 물리쳤다. 결국 프로테스탄트측이 토론회에서 승리하였고 베른의 모범을 따라 로잔에 개신교회가 설립되게 하였던 것이다.

칼빈과 파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종교개혁이 단행된 이 도시에 평실상부한 개혁교회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교회규정을 제정하여 개혁이념에 따라 엄격한 처리를 시행하므로 신앙과 생활의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1537년 1월 16일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Articuli de regimine ecclesiae, Articles on the Organizatin of the church and its worship at Geneva)'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문서는 당시 개혁자들의 개혁의 이념과 개혁교회 조직에 관한 기본 이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서로서 매우 중요하다.

주로 칼빈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의 기독교강요에 바탕을 둔 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로 이 문서에서는 매주일 예배때마다 성찬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천주교회 관례로는 연 2~3회 성찬식이 거행되었으나 칼빈은 매주일 성찬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연합해 줄 뿐만 아니라 바른 성찬식의 시행을 통해 권징을 행하며 신자의 삶을 변화되게 함으로써 신앙과 순종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매주일 성찬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다.

다른 한 가지는 엄격한 처리(discipline)의 시행이었다. 이것은 칼빈신학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성화의 삶을 위한 것이었다. 칼빈은 엄격한 처리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성찬의 합당한 시행과 더불어 신앙적 삶을 지키기 위한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이 문서의 일부를 인용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주님의 성만찬을 종종 거행하고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경건과 특별한 경외심 없이는 아무도 감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교회의 질서와 규율이 바로 잡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출교의 권징(discipline of excommunication)이—이 것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을 살피기 싫어하는 자들이 교정을 받는다—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서 개혁자들은 성찬이 자격없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더럽혀지지"않게 위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수찬징지 혹은 출교(excommunication)할 권한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외에도 이 문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의 기본적 가르침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고, 예배시에 시편송을 부를 것과 결혼법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 문서에서 주장한 성찬식의 매주일 진행과, 권징권의 문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칼빈이나 파렐



IOHANNES · CALVINVS ·
ANNO · AETATIS · 53 ·
R.

칼빈은 권징의 문제는 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으나 시의회는 취리히의 모범을 따라 권징권은 시의회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개혁자들과 시의회는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다수의 시의회원들은 교회의 치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시의회의 권력의 일부를 빼앗기는 것으로 염려하였던 것이다.

르그에서 활동하였다. 이 기간동안의 칼빈의 삶과 목회, 연구와 저술은 그 자신의 생애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이 기간동안의 목회와 연구는 그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신학적 깊이를 더했고 신앙적 성숙과 더불어 보다 원숙한 지도자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특히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부체르 등 개혁자들과 접촉함으로써 그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예배와 교회론의 영역에서 그러했다.

물론 이 3년간의 생활이 칼빈생애에 어

이 의도했던 바대로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규례의 시행은 순조롭게 추진되지는 않았다. 결국 성찬식은 월 1회 시행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으나 출교(파문)권의 문제는 총들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칼빈과 파렐은 앞에서 언급한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 외에도 1536년 11월 10일 '신앙고백서'(Confession de la foi, Confession of the faith which all the citizens and inhabitants of Geneva and the subjects of the country must promise to keep and hold)를 작성,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문서는 21개 항의 짧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혹자는 '21개신조'라고 호칭하기도 하는데 특히 로마 천주교회와 재침례파의 위험을 예전하면서 개혁 신앙이 그들과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신앙고백서 제1항은 "우리 신앙과 종교의 규칙을 위해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따르기로 작정한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 율법, 구원, 은혜, 기도, 성례, 교회, 출교, 목회, 정부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언급하였다.

앞에서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교육을 강조하였다고 말했는데, 칼빈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제네바신앙문답서'(Genevan Catechism)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라틴어로 썼으나 불어로 번역되었고 1537년 2월에는 앞서 언급한 '신앙고백서'와 함께 '제네바교회를 위한 신앙지침과 신앙고백서'(Instruction and

confession of Faith, as used in the Genevan church)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칼빈이 신앙고백서를 제출한 이듬해, 곧 1537년 4월 200인회가 제네바 온 시민에게 이 고백서를 따르도록 서명, 날인케 하였을 때 큰 불만이 야기되었다. 개혁자들은 제네바시에 남아 있는 로마 천주교인과, 천주교적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 신앙고백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제네바를 떠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제네바 시민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말았다.

그 이유는 일부의 천주교도들이 여전히 천주교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였고 또 많은 시민들은 복음안에서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교회적 지리(훈련)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개혁자들의 엄격한 치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개혁자와 시의회는 권징권의 문제로 대립하였다. 칼빈은 권징의 문제는 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으나 시의회는 취리히의 모범을 따라 권징권은 시의회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개혁자들과 시의회는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다수의 시의회원들은 교회의 치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시의회의 권력의 일부를 빼앗기는 것으로 염려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1538년 1월 시의회는 목사들의 파문(출교)권을 박탈하였다.

1538년 시 당국과 개혁자들 사이에 잠재해 있던 갈등은 첨예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칼빈과 그 동료 개혁자들은 신앙고백에 반대하고 서명하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의

회는 1538년 1월 4일 저들에게도 수찬을 허락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정치당국(시의회)이 종교문제에 주권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과 파렐은 항거하였다. 특히 1538년 2월의 선거에서는 칼빈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의 다수가 시의원에 선출되자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시의회는 1538년 4월 23일 칼빈과 파렐의 제네바 추방을 결의하고 사흘안에 그 도시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칼빈과 파렐은 바로 그날 제네바를 떠났다. 칼빈이 1536년 7월 제네바에 온 지 꼭 22개월만이었다.

제네바를 떠난 칼빈과 파렐은 베른(Bern)으로 갔고 6월초에는 다시 바젤(Basel)로 갔다. 바젤에서 얼마동안 체류한 후 파렐은 뉘사텔(Neuchatel) 교회의 초청을 받고 그곳으로 갔고 1565년 죽을 때까지 값진 봉사를 하였다. 칼빈은 바젤에 체류하며 학문연구에 전력하기를 원했으나 스트라스부르그(Strassburg)의 부체르(Bucer)로부터 두 차례의 초청을 받고 그곳으로 가기로 하였다. 결국 파렐과 칼빈은 잠시 동안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칼빈은 바젤에 남아서 학문의 길에 정진하려고 하였으나 부체르의 절박한 요청은 이번에도 칼빈의 생애에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칼빈

칼빈이 스트라스부르그에 도착했을 때는 1538년 9월이었다. 이때로부터 1541년 8월까지 만 3년간 칼빈은 스트라스부

편 의미를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주장(단절설)과 긍정적 주장(연속설)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랑(August Lang)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저명한 칼빈학자인 랑 교수는 "칼빈은 이 도시에서 무한히 많은(unendlich viel)것을 배웠다. 그는 이곳에 머무는 3년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한층 성숙했다"고 했다(August Lang, Joannis Calvin, 1909, p.49).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칼빈의 생활과 활동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이 도시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 먼저 언급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스트라스부르크는 독일과 불란서 사이의 라인강 계곡에 위치한 도시로서 수로로는 스위스와 저지대 국가들과 인접해 있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1254년 이래로 제국직할의 자유도시로 있었고 문화와 종교,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다.

이곳에 종교개혁사상이 소개된 때는 1523년 부터인데,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6년 후였다. 이곳에서는 네사람의 개혁자들, 곧 마티아스 젤(Matthias Zell), 울프강 카피토(Wolfgang Capito), 카스파 헤디오(Caspar Hedio), 그리고 마르틴 부체르(Martin Bucer)가 상호 협조아래 개혁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특히 정치인 야콥 슈트롬(Jacob Strum, 1489-1553)이 이들의 개혁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야콥 슈트롬은 그 나라(Alsace)의 '국부(國父)'라고 할 만큼 유능한 정치인으로 이들 개혁자들은 루터파 인사들과 더불어 종교문제에 있어서 매우 관용적이었으므로 유럽의 여러나라로부터 종교적 망명객들이 이곳에 찾아왔다. 그래서 천

주교적 활동과 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미사가 폐지된 것은 1529년 초였다) 재 침체과들도 이곳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다. 또 천주교의 탄압을 견디지 못한 많은 개혁신앙집단도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스트라스부르 그는 '의의 피난처'로 불리기도 했고 다수의 불란서 피난민들이 이주해 왔기 때문에 '프랑스 피난민들의 안식처'라고 불리기도 했다. 또 혹자는 이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만큼 이곳은 종교적 이유로 박해 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도시였다. 이곳에서 개혁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여러 제반조건, 곧 종교적 환경이 개혁운동에 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안디옥' 혹은 '서남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I, pp.364ff).

바로 이 도시에서 개혁운동에 진력하던 마틴 부체르와 카피토는 제네바를 떠난 칼빈을 초청하였고 불란서에서 온 피난민들을 위해 목회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칼빈이 두 차례의 초청을 거절했을 때 부체르는 이전에 파렐이 칼빈에게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진노'란 이름으로 칼빈을 위협하였고 "하나님은 요나처럼 반항하는 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신다"고 했을 때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1538년 9월초 칼빈이 바젤을 떠나 라인강을 따라 스트라스부르로 향하고 있을 때, 칼빈 그 자신이 예견하지 못했던 신령한 복과 더불어 거룩한 책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신

300만원고료

제7회 기독교문에 신인상 작품공모

글 쓰는 이를 사랑하는 월간고신은 매년 기독교 문예작품을 공모하여 신인을 발굴하고 기독교문화창달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올해로 벌써 일곱 번째를 맞아 제7회 기독교문에 신인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문학에 관심 있는 분이든 누구든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써 주십시오. 많은 응모를 기대합니다.

응모조건

신앙수기 /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 (상금70만원 및 상패)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 (상금80만원 및 상패)

시 / 3 편이상 (상금50만원 및 상패)

동 화 / 200자 원고지 30장 내외 (상금50만원 및 상패)

수 필 / 200자 원고지 15장 내외 (상금40만원 및 상패)

● 최우수작 한 편을 원칙으로 하며, 최우수작 없이 우수작만 나왔을 경우에는 상금이 반액임.

응모하는 방법

마감 / 1992년 10월 31일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함)

발표 / 1993년 1월호 월간고신 지상

보내실 곳

602-030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고신대학내) 월간고신사 편집부
T. 257-0045, 248-0045

응모작은 어떤 책에도 발표된 적이 없는 신작이어야 하며, 같은 작품이 다른 잡지나 신문에 당선되면 본지에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자동 취소가 됩니다.

보내실 때는 겹봉에 붉은 글씨로 「기독교문에신인상」이라고 표기하시고 연락처(전화번호)도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일찬 · 永生建設(株) 代表 배환갑 장로 (0556) 73-6000~7
· 靑十字藥品(株) 代表 박노정 장로 (0562) 77-3411~6

※ 주소와 연락처는 응모원고의 발자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칼빈과 제네바 개혁활동 V

이 상 규 고신대학교 교수

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인 것이다.

다섯째,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는 진리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른다고 했지 안 가르쳐 준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여러 성구를 인용하여 각종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믿으며, 따라서 재림 날짜와 시기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장림의 말대로 19절 속에 가르쳐 준다는 말은 있어도 “예수 재림 날짜”라는 말은 없으니 그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군대도 극비가 있고 1급 비밀, 2급 비밀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령관들만 아는 극비가 있고 일선 지휘관들만 아는 비밀이 있고 보초병끼리 주고 받는 비밀 암호가 있듯이 재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만 아는 극비에 속한 것이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재림의 날짜를 모르고 맞이하는 사건을 몇 가지 말할 수 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24:37-39).

위의 본문을 보너 홍수로 인해 멸망되

는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계속했다. 이것은 예수재림시에도 세상은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 평상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주님 오실 날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오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오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마24: 40, 41)고 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오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눅17: 34)라고 하셨다. 이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아침이 되는 곳도 있고 낮이 되는 곳도 있고 밤이 되는 곳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는 혹은 부역에서 혹은 밭에서 혹은 잡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했다는 것이 그런 뜻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된다. 존 웨슬러 목사는 어느 사람이 “오늘 밤 12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때까지 어떻게 지내 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오늘의 계획대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하고 약속한 분과 만나서 식사하고 오후엔 신학교 강의하고 돌아와 저녁식사하고 다음 주일설교를 준비하다가 11시에 잠자리에 들어가 자다가 12시에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구약**

스트라스 부르고에서 칼빈의 3년간의 활동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불란서 피난민들을 위한 목회사역이다. 사실 이 일은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왔을 때가 1538년 9월 초였는데 첫 설교를 한 날은 9월 8일이었다. 이때부터 칼빈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종교적 자유를 찾아온 불란서인들의 공동체를 칼빈은 ‘작은 불란서 교회’라고 불렀는데 교인수는 400명에서 500여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성 니콜라스(St. Nicholas) 교회당에서 회집하였기 때문에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 불리기도 했다. 칼빈은 정기적인 설교, 성경 강해 외에도 예배의식의 확립, 교회음악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칼빈은 부체르의 예배의식을 모방하여 불란서 피난민교회 예배의식을 확립하였는데, 이것은 후일 개혁교회 예배의 모형이 되었다. 교회음악에 있어서 칼빈의

강조점은 시편송이었다. 그는 영창이나 오르간 음악보다는 시편송을 선호하였고 시편송이 예배음악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1539년에는 ‘시편찬송’(Psalmody)을 불어로 편찬, 출판하였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시편보다 더 적절한 찬송은 없다. 칼빈은 시편송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신다고 본 것이다. 칼빈은 음악이나 음악적 기교보다는 가사와 가사의 내용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가 시편송을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복음적 내용 없는 음악적 기교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았다. 곡조는 가사를 위한 것이지, 그 반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칼빈은 월 1회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칼빈은 성찬식을 미리 예고 할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할 이들도 미리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성찬 참여자들에게 신앙을 독려하고 범죄한 이들에게 회개케 함으로써 합당한 성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칼빈은 성찬식을 통한 삶의 변화, 곧 성화적 삶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칼빈의 중요한 사역은 저술 활동이었다. 그의 저술 활동은 그의 계속된 연구의 결과였는데 이 저술 활동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고 이를 공포, 확산해 가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곳에서의 칼빈의 저술 활동 가운데서 대표적인 경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칼빈의 가장 중요한 저술은 1536년에 출판했던 기독교 강요를 증보하여 제2판을 출판한 일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판은 1539년(라틴어판) 출판되었고 불어역본은 1541년 출판되었다. 이 책은 1536년도의 초판에 비해 3배정도의 지면으로 증보되었는데 전 17장 중에서 6장은 전혀 새로운 장이고 다른 6개 장은 수정, 증보된 장이다. 나머지 5개의 장은 1536년도 판의 2개 장을 확장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 강요 제2판은 초판(1536년도판)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증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칼빈의 성경연구와 성경강해, 신학과 교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큰 도움을 주었지만 특히 부체르(M. Bucer)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였던 루이스 벨프르(L. Berhof) 교수는 칼빈의 로마서주석 영역본 서문에서 "민일 칼빈이 기독교강요를 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강요 개정판은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루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판을 읽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칼빈은 성경주석 집필을 시작하였는데, 그가 최초로 쓴 성경주석은 로마서주석이었다. 이 책은 1539년 출판되었는데, 이 저술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작하였고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계속했던 바울서신 강의의 산물이었다. 사실 칼빈의 주석은 현실적 필요성에서 나온 목회적 산물이었다. 칼빈은 단순히 후대 사람을 위해 주석집필을 시작했다고 보기는 자신의 성경연구와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성경강해의 결과로 주석이 이루어져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깊은 그의 주석집필은 일차적으로 목회적 필요에서 저술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석은 통찰력을 지닌 학문적 깊이가 있는 주석으로 많은 칭송을 받았다. 그의 주석은 루터의 그것에 비해 역사적이고 철학적 깊이가 있으며 펠랑히톤의 그것과는 달리 난해 구절 해설에 집중하지 않았다. 칼빈의 로마서주석은 루터에게 있어서처럼 복음적 신앙의 기초이자 칼빈 신학의 구원론적 요체를 해명해 주는 책이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로마서의 주제(argumentum)들을 교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신학적 의미를 해명하였다. 칼빈은 제롬의 라틴어 성경(the Vulgate)에 의존하지 않고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히람이 신약성경(1527) 등 원어성경을 근거로 주석한 것은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칼빈의 주석집필은 그의 생애 동안 계속 되었는데, 요한 계시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의 주석서를 집필하였다. 신약성경주석은 대부분이 1550년대까지 출판되었고 구약주석은 1551년에 출판된 이사

야서가 첫 주석이었다. 칼빈은 약20년에 걸친 긴 기간동안 방대한 주석서를 집필하였는데, 그가 쓴 마지막 주석은 여호수아서 주석이었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저술한 칼빈의 또한 가지 중요한 저서는 사들레토에 대한 답변(Reply to Sadoletto)인데, 이 책은 칼빈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칼빈이 남긴 논쟁적 저술 중에서 이 책은 교회개혁의 의의와 목적, 필요성을 설득력 있는 강력한 주장적 필치로 서술하였다.

자코프 사들레토(Jacopo Sadoletto of Modena, 1477-1547)는 도파네에 있는 칼펜트라스(Carpentras in the Dauphine)의 주교이며 1536년 이래로 추기경이 된 인물인데 칼빈과 파렐이 제네바를 떠난 틈을 타서 제네바 시민들에게 로마천주교로 복귀하라는 강력한 권고의 서신을 보냈던 것이다. 라틴어로 쓴 이 편지에서 사들레토는 개혁자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로마 천주교에로의 복귀를 요구하였다. 이 편지는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칼빈에게 전달되었고 격분한 칼빈은 사들레토 추기경의 편지에 답변하는 형식의 글을 썼는데 이것이 사들레토에 대한 답변이라는 책이다. 1539년 9월 1일자로 된 이 편지 형식의 글은 6일만에 쓰여진 글로서 사들레토의 주장과 요구를 명쾌하게 반박하였다.

이상의 책들 외에도 칼빈은 1540년 기도서(Form of prayers), 우리주님의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Little treatise on the Holy Supper of Our Lord)을 각각 집필하였다. 후자의 책 성만찬에 대한 견해차가 종교개혁을 지

지하는 이들을 분리하고 있는 현실을 염려하면서 쓴 작품인데 이 책은 60개 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하고도 명료한 저술이다. 그래서 이 책은 성찬교리에 대한 평신도들의 지침서로 적절한 것이었다. 칼빈은 이 책에서 로마 천주교의 성찬관을 비판하였고 루터와 쾰링클리간의 견해차이에 대해 상호 이해와 동의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특히 이 글에서 성찬의 빈번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외심 없는 성찬 참여가 죄악임을 강조하였다. 칼빈의 이 책은 1545년 라틴어로 출판되었는데 이 책을 루터가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펠랑히톤의 사위였던 크리스토프 페첼(Christoph Pezel)의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이 책을 읽고 크게 칭찬하면서 "나의 논점이 이전에 이와 같은 훌륭한 저서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들과 일찍부터 화해했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John T. McNeil p. 153). 특히 주목할 한 가지는 이 성만찬에 관한 칼빈의 글 속에는 성령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주장한 마르틴 부체르의 영향이 역역히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중요한 사역은 다른 개혁자들과의 교제였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의 개혁자들, 특히 마르틴 부체르와의 교제를 통해 예배와 교회론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에 체류하는 동안 부체르, 카피토 등과 긴밀히 교제함으로써 많은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부르그를 대표하여 프랑크푸르트(Frankfurt, 1539), 하게나우(Hagenau, 1540),

보름스(Worms, 1540-1541),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1541) 등지의 종교토론회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개혁자들과 교제하며 종교개혁가로 성장하였다. 교회연합을 모색하던 이와같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칼빈이 부체르와 마찬가지로 교회연합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점을 알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회의는 독일황제 찰스 5세(Charles V)가 기독교 연합을 위한 목적으로 소집한 회의였는데 칼빈이 이 회의에 참가했을 때는 1539년 2월 21일이었다. 이 회의에서 칼빈은 비로소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을 만났다. 사실 칼빈은 르페브르(Lufevre), 파렐(Farel), 올리베탄(Olivetian) 등을 통해 불란서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친숙히 알고 있었지만 독일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그로 이주해 온 이후 부체르를 통해서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멜랑히톤을 통해 특히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 칼빈은 멜랑히톤의 교제를 통해 루터의 개혁운동의 진수를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회의에서 처음 만난 칼빈과 멜랑히톤의 교제는 서로 서로에게 유익을 끼쳤고 개혁의 정신을 교양해 가는 데 상호 격려를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 칼빈의 박학함과 신학적 깊이를 확인한 멜랑히톤은 칼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학자라는 점에서 '그 신학자'(the theologian)라고 불렀던 일은 잘 알려진 일이다. 후일 칼빈은 멜랑히톤의 신학요의(Loci Communes)를 불어로 번역하였고, 멜랑히톤은 칼빈이 세르베투스

(servetus)사건으로 비난 받았을 때 칼빈의 입장을 지지했던 점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칼빈은 프랑크푸르트회의 이후 1540년에 하계나우, 보름스, 그리고 1541년에는 레겐스부르크회의에 참가하였는데, 이런 회의를 통해 다른 개혁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과 다른 프로테스탄트 동료들과의 신학적 일치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칼빈은 루터와 만난 일이 있는가? 이 점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루터와 칼빈 양자는 서로를 만나기를 희망하였다. 양자는 서로 서로의 작품을 읽으며 문서와 서신을 통한 교제는 있었으나 직접 만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 칼빈은 그가 참석하는 종교회의에서 루터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루터가 신병으로 불참하였으므로 두 사람간의 역사적인 대면은 무산되었다. 현재 칼빈이 루터에게 보낸 한 통의 서신이 남아 있는데, 1541년 1월 21일자로 된 이 편지에서 칼빈은 "그리스도교회의 위대한 목사 마틴 루터 박사에게, 나의 가장 존경하는 사부(師父)에게"(To the very excellent pastor of the Christian church, Dr. M. Luther, my much respected father)라는 글로 시작하였다. 칼빈은 자신의 저작들 몇 편을 루터에게 보내면서 동봉한 이 편지에서 칼빈은 루터의 지문과 충고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루터를 "가장 저명한 분이자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한 사역자이며 나의 가장 존경하는 사부"(most renowned sir, most distinguished minister of

christ, and my ever-honoured father)라고 호칭하고 있다(Letters of John Calvi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0, pp 71-73).

루터와 칼빈, 양자는 비록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으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였다.

네번째 칼빈은 이곳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파렐의 주례로 결혼하였다. 칼빈은 그의 나이 31세 때인 1540년 8월에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는 리에쥬(Liege)의 장 스토르데(Jean Stordeur)의 미망인이었던 이데레드 뷔레(Idelette de Bure)였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재침례교도이었던 칼빈의 인도로 개혁교회로 돌아왔고 남편이 전염병(흑사병)으로 죽고 혼자 두 남매를 키우고 있던 과부였다. 칼빈이 결혼을 생각한 때가 언제부터 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문헌상으로는 1539년 5월에 칼빈이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다. 그는 파렐에게 쓴 글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인상은 정숙하고 자상하며 까다롭지 않고 검소하고 인내심 있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기 건강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여인이라고 하였다. 칼빈의 신체적 연약성, 특히 그의 병약한 체질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흑자는 그를 "이동하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을 만큼 병이 많았고 몸도 약했다.

칼빈의 결혼생활은 건강 외에는 행복하였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부인마저도 건강이 좋지 못했다. 결혼한지 겨우 9년뒤인 1549년 4월 초 칼빈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1549년 4월 7일과 10일, 칼빈은 비레와 파렐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고 자기 아내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 편지에서는 아내와의 사별에 대한 인간적인 이쁨과 슬픔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칼빈에게는 1542년 아들이 태어났으나 그도 불과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 이 때에도 칼빈의 슬픔이 나타난 편지가 남아있는데 아들의 죽음은 '심한 상처'였으나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위로를 구하였다. 칼빈의 결혼생활은 오직 9년 뿐이었다. 칼빈은 그의 아내 뷔레와 사별한 후 다시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칼빈을 비난하기 위해서 쓰여진 기록에 보면 칼빈의 아내는 답답함과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죽었다고 했지만 이것은 지나친 모함임에 틀림없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보낸 3년간은 칼빈에게 있어서 실로 유익한 날들이었다. 이 기간동안의 그의 목회와 연구, 저술과 다른 개혁자들과의 교제는 칼빈을 더욱 원숙한 신학자로 이끌어 갔다. 특히 이 기간동안 칼빈은 부체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개혁교회적 성례 이해, 예배의식, 교회정치, 치리와 훈련, 그리고 장로제도 등은 부체르에게서 받은 신학적 영향의 산물이었다. 이런 점에서 부체르가 칼빈을 한 사람의 칼빈주의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칼빈과 제네바 개혁활동 VI

이 상 규 고신대학 교수

칼빈이 제네바를 떠나 있는 3년간 제네바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의 정치적인 변화는 칼빈의 생애에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칼빈과 파렐을 추방했던 이들은 실권하였고 제네바시는 혼란과 무질서가 팽배하였다. 칼빈이 없는 제네바에는 종교적 문제는 물론이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되자 칼빈의 제네바 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결국 1540년 9월 21일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

제네바시가 칼빈의 귀환을 요청한 배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랑스와 베른이 제네바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항할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였고, 둘째로는 사들레토에 대한 칼빈의 명쾌한 답변은 더 이상의 논쟁을 불가능하게 했는데 이 결과로

제네바 시민들 사이에서는 칼빈과 같은 유능한 인물을 추방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중적 정서가 크게 작용했었다.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의 귀환을 요청하게 됐던 것이다. 칼빈의 귀환을 요청하는 제네바시 대표단이 스트라스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칼빈은 보름스(Worms)에서 열리는 교회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칼빈은 몇 차례의 귀환요청을 받고도 제네바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던 중 1541년 2월 말에는 파렐의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도 파렐은 강력한 어조로 칼빈의 제네바 귀환을 권고하였고 “제네바의 돌들이 오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고 질책하였다. 이번에도 칼빈은 파렐의 권고를 하나님의 지시로 알고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실험기간으로 6개월 정도만 제네바에 체류하겠다고 귀환에 동의하였다 (Estep, Renaissance and Reformation, Eerdmans, 1989, p240).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6개월이 아니라 칼빈의 전 생애를 그곳 제네바에서 일하도록 선하게 인도하셨다.

1541년 5월 1일에는 제네바시 소의회가 1538년 4월 23일에 결의했던 칼빈과 파렐의 추방령을 취소하고 칼빈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사태가 이렇게 호전되니 칼빈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를 떠나 제네바로 여행의 시작을 시작한 날은 9월 1일이었다. 몇 곳을 거쳐서 칼빈은 1541년 9월 13일(화요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칼빈 자신은 일정기간 곧 6개월정도만 머물 생각이었지만 이날로부터 무려 23년간, 곧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1564년까지 제네바에서 일하였던 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었다.

제네바시의 변화 시작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네바교회를 조직하고 교회규정을 확립하며 제네바시를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개혁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로 귀환한 때로부터 약 10년간은 칼빈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 개혁 운동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이기간 동안의 칼빈의 개혁과 개혁을 위한 투쟁, 교회질서와 치리제도 확립을 위한 그의 싸움은 혁혁한 것이었다. 그래서 에스텝(William R. Estep) 교수는 1541년부터 1553년까지 약 10년간을 교회개혁을 위한 ‘투쟁의 기간’(the years of struggle)이라고

명명하였다. 사실 칼빈도 제네바시를 훌륭한 복음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투했던 기간이었다.

칼빈은 제네바시 개혁운동에서 자유, 질서, 훈련(치리)의 세 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교회규정을 법제화하였다. 이것은 그가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동안, 보고 알게 되었던 독일에서의 개혁운동에 대한 반성적 관찰의 결과였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동안 독일의 여러 개혁자들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보름스, 푸랑크푸르트, 레겐스부르크 등지에서 개최된 교회회의에 참석하여 독일의 개혁운동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특히 칼빈은 독일 교회에서의 신자들에 대한 훈련의 부족, 문제점을 보았고 루터교회의 미진한 개혁을 보았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시에서는 특히 질서와 훈련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로 귀환한 지 약 두 달 후인 1541년 11월 20일 교회법 혹은 교회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규례’(Ecclesiastical Ordinances)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1542년 1월 2일 시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1539년도 관 ‘기독교 강요’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신약성경원리에 따라 4종의 직분을 두었는데, 그것은 목사(Pastors, Pasteurs), 교사(doctors, docteurs), 장로(elders, anciens), 집사(deacons, diacres)였다(엠펙 4:11참고). 칼빈은 신약성경의 원리에 따라 이상의 네 직분, 곧 목사, 교사(교수),

장로, 집사직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들(Jus Divinum)이라고 본 것이다.

교회적 삶과 생활에서의 질서와 훈련(치리)을 위한 교회의 헌법적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문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할 책임을 지며 교사는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는 것과 자격있는 목사를 양성하며 신앙교육의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장로는 시민의 생활을 감독하며 그릇된 행동은 사랑으로 징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를 지닌다. 장로들은 제네바시의 각 구역에서 선출되며 교회 헌법과 규칙이 잘 이행되는지를 살피며 감독케 하였다.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 위임되었다.

이와 같은 4종 직분을 통해, 제네바교회 뿐만 아니라 제네바시를 개혁하고 질서와 훈련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다. 칼빈은 국가 혹은 정치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와 긴밀한

이 감독회는 시민(국가)법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회에 속한 교회적 치리기관이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치리는 수찬정지와 파문까지를 단행하였다. 그 이상의 것은 제네바시법에 의해 다스려졌다.

관계 아래 두었고 제네바시를 하나의 교회적 구조로 이해하였다. 칼빈은 1541년 시민의 입법을 완성하는 일도 위촉 받았었으므로 교회와 세속의 법규가 긴밀하게 조립(祖立)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소위 신정정치(神政政治, Theocracy) 형태였다. 어떤 칼빈은 4종의 직분을 통해 제네바의 질서와 훈련(치리)을 감당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제네바시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감독하고 정화하기 위해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감시위원회, 곧 감독회(Consistorium, Consistory)를 구성하였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종교법원' 혹은 '치리법원'이라고도 하고 종무국(庶務局)이라고도 한다. 감독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네바시의 질서와 훈련을 위한 치리를 담당하는 것(to handle matters of discipline)이었는데 그 구성은 12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들, 곧 2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2명의 장로는 소의회에서 2명, 60인회에서 4명, 200인회에서 6명이 파송되었다.

이 감독회는 매주 화요일 회집되어 질서위반, 위법, 탈법자에 대한 심사와 치리를 담당했는데 그 적용은 매우 엄격하였다.

이 감독회는 시민(국가)법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회에 속한 교회적 치리기관이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치리는 수찬정지와 파문까지를 단행하였다. 그 이상의 것은 제네바시법에 의해 다스려졌다. 어떤 기록에 의

하면 제네바시는 첫 5년간, 56건의 사형선고와 78건의 추방이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제네바시의 도덕과 풍속은 크게 변화되었다. 도박이 사라졌고 무도회는 금지되었으며 음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시민의 오락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제네바시의 5개 처를 지정하여 그곳에서만 오락과 적당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권징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삶에 있어서도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적 삶을 이끌어 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중세 말기 교회의 부패와 무질서, 교직자들의 타락과 무도덕성은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에서 행해진 치리, 그리고 권징은 많은 비난을 받았고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칼빈의 엄격한 제도와 훈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네바를 떠나든지 아니면 칼빈에게 복종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네바에 체류하면서 칼빈의 주장에 반대하고 개혁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항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규정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칼빈의

'교회규제'에서는 제네바교회의 개혁 곧 교회의 질서와 규정을 확립하고 훈련과 치리를 합당하게 시행하기 위한 교회개혁의 이상을 표명하였는데, 청소년을 위한 신앙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칼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1542년 문답 형식으로 된 '신앙교육서'(Catechism)를 작성하였다. 이 신앙교육서는 이를 그대로 '교리문답서'라고도 불리는데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할 때 사용하였던 문서를 제네바 형편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었다. 이 '신앙교육서'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것으로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세례의 성찬) 교리순으로 배열된 것이었다. 이 문서는 앞서 언급한 '교회규제'와 함께 예배와 교육에 관한 중요한 문서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서는 예배모범에 관한 문서로서 '교회의 기도와 찬송의 혁신'이라는 문서였다. 이 예배모범에 관한 문서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의식서에서 차용해온 것으로서 제네바교회 예배에 관한 문서였다. 이상의 세 가지 문서는 칼빈의 교회관과 예배관의 일면을 보여 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칼빈의 스트라스부르크의 목회생활에서 얻은 실제적 경험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칼빈의 교회관 그리고 예배관은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 마틴 부체르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이다. [13]

칼빈과 제네바 개혁활동Ⅶ

제네바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개혁하려는 칼빈의 노력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무엇보다도 신앙적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이들에게 수찬을 정지하려 했던 일은 거센 반발을 샀는데 그 주된 세력이 시 당국이었다.

이 상 규
고신대학교 교수(역사신학)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제네바교회를 성경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고 제네바시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칼빈의 노력은 '교회 규정'이라는 문서를 통해 표명되었다. 이 문서에서 칼빈은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확립된 직제와 치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목사, 장로와 집사 등 네 직분을 두었는데 이것은 목회적인 의도와 신자의 삶 전체를 합당한 질서와 규율로 지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 칼빈이 장로와 집사 등 초

대 교회적 직분을 두게 한 일은 당시로 볼 때 대단한 개혁이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 이래로 장로와 집사직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있었으나 이 직분은 천주교 교권 체제하에서 사장되었기 때문에 칼빈은 이 직분을 다시 회복하였고 초대교회적 원리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의 질서와 치리를 담당케 하였던 것이다.

'교회규정'에 따라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감독회'(Consistory)는 교회적 질서와 훈련, 치리를 담당하였는데, 이것은 제네바시 개혁의 중심기구가

자 동력원(Power station)이었다. 이들은 '복음에 따라 살도록' 시민들을 선의로 지도(fraternal corrections)하고 권면(admonitions)하였고, 교회 규정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신앙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만을 성찬에 참여시킴으로써 점진적인 삶의 개혁을 의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불매 감독회는 교회의 치리를 담당할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오늘의 장로교회와 관련하여 말하면 당회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제네바시의 반대 세력

제네바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개혁하려는 칼빈의 노력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무엇보다도 신앙적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이들에게 수찬을 정지시키려 했던 일은 거센 반발을 샀는데 그 주된 세력이 시 당국이었다. 제네바시 당국은 수찬 정지를 명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이것은 그후 10여년간 감독회와 시정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요인이 되었다. 또 이때 칼빈의 엄격한 개혁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가세하였고 신학적으로 칼빈을 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칼빈의 단호하고도 엄격한 개혁으로 사실 제네바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많은 술집이 폐쇄되었고 간음이나 노름, 부도덕한 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교

회 결석, 예배 도중에 나가는 행위나 신성모독적인 언행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 당시 칼빈의 개혁 운동에 반대했던 세력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반대 세력이었고 둘째는 리베르틴파들(Libertines)이었고 셋째는 칼빈과 신학적 입장을 달리하는 인사들이었다. 사실 이 당시 칼빈과 신학적 견해를 달리했던 이들, 곧 제롬 볼쵸, 장 트롤리에, 세바스티안 카스텔로, 그리고 마카엘 세르베투스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베르틴파 인사였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 단지 이 글의 전개상 편리하게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야미 페렝(Ami Perrin)과 그의 장인 프랑소와 파브르(Francois Favre)는 칼빈의 제네바 복귀를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이었지만 1546년부터는 칼빈을 반대한 대표적인 정치적 인사였다. 야미 페렝은 자신들의 도덕적 상태는 고려하지도 않고 감독회로부터 여러 번 권고받은 일에 불만을 품고 칼빈을 반대하였다. 특히 그와 그의 아내는 1546년 4월 투옥된 일이 있는데 석방된 이후 그의 장인과 더불어 칼빈에 대한 비판자가 되었다. 그가 프랑스 주재 제네바 대사로 있을 때 칼빈을 비롯하여 제네바에 있는 외국인을 암살할 음모를 꾸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베르틴파란 보통 '자유파', 혹은

'방종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기, 특히 1525년 전후에 출현하여 독일, 프랑스, 스위스, 화란 등지에 산재해 있었던 율법폐기론적 성격을 띤 과도한 자유편향주의자들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종교가 생활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이었다. 칼빈은 리베르티파를 제세례파의 한 분파로 보았다. 이들 또한 칼빈의 엄격한 개혁에 반대하고 특히 신학적 이점을 가지고 칼빈에 대항하였다. 이제 이들 중 대표적인 몇 사람에게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칼빈을 반대한 사람들

볼섹(Jerome Bolsec, ? - 1584)은 볼란서인으로 수도사였으나 개신교로 개종하였고 1550년 제네바로 이주하였다. 외과의사이자 신학자였던 그는 그 이듬해 곧 1551년부터는 공개적으로 칼빈의 은총론과 예정론을 공격하였다. 그는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eternal decree of God)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 기초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또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면 이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것이요, 주피터와 같은 이방인들의 우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다.

칼빈은 1536년판 '기독교강요'에서부터 예정론을 언급하였는데 그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목회 경험의 결과로 1539년도 '기독교강요'에서는

리베르티파란 보통 '자유파', 혹은 '방종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기, 특히 1525년 전후에 출현하여 독일, 프랑스, 스위스, 화란 등지에 산재해 있었던 율법폐기론적 성격을 띤 과도한 자유편향주의자들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정교리가 더욱 자세히 언급되었다. 칼빈은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일한 말 씀이지만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런 뜻이 있다고 보고 예정론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볼섹은 칼빈의 예정교리를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그는 칼빈과 칼빈의 견해를 따르는 이들을 우상숭배자라고 비난한 죄명으로 제네바 시의회에 의해 추방되었다. 그후 볼섹은 다시 구교로 개종하였고 칼빈을 헐담하고 극단적으로 비방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이책은 그의 사후 1557년 출판되었다.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 1515-1563) 또한 칼빈에게 대항하였던 인물이다. 사보이 출신인 그는 가난한 가운데 교학으로 당시로서는 이름있는 언어학자가 되었던 인문주의자였다. 그가 스트라스부르크에 체류할 당시는 칼빈과 같이 허숙한 일도 있고 칼빈과 함께 제네바로 돌아와서 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칼빈

과 견해가 다르다는 점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아가서의 정경성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아가서는 옛날의 연가(戀歌)이지 예수그리스도의 기독교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그는 아가서는 외설적인 문서로서 저자 자신의 '분방한 연애 사건을 묘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아가서를 비유로 해석하였으므로 그 정경성을 의심치 않았다.

카스텔리오는 자신의 대가족에 비해 봉급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하였으나 칼빈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봉급을 올려주도록 요청하였다. 카스텔리오가 목사가 되겠다고 청원했을 때 칼빈이 반대한 이유는 그의 신학적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를 떠나 타지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했으나 순조롭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1544년 4월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고 재차 목사가 되겠다고 청원하였다. 이때도 그는 거절되었는데, 그는 칼빈과 그 동료들은 사도바울과 근본적으로 다를뿐 아니라 탐식가이며 방탕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그는 세르베투스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다. 결국 그는 제네바를 떠나야 했고 1553년에는 바젤대학의 헬리어 교수가 되었다. 1554년에는 '이단은 박해 받아야만 하는가?'(Denon Puniendis Gladio Haereticis)라는 책을 가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책을 통해 엄격한 처리를 시행하므로 그리스도

인의 삶 전반에 있어서 성화적 삶을 추구하였던 칼빈 등을 비난하였는데 특히 그는 국가가 이단 처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칼빈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그는 이 책으로 16세기의 가장 유명한 종교적 관용주의자가 되었다.

칼빈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불행한 처형으로 칼빈에게 가장 큰 비난거리를 제공하였던 인물은 미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내과의사로서 그의 병리학적 연구는 의학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학적 견해는 개혁자들과 달랐으며 천주교의 입장에서 심각한 이단이요 요주의 인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그는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였다.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였다. 스페인의 나바르 출신으로 스페인, 빌르뇌브(Villeneuve), 레리다(Lerida) 등지에서 자란 그는 신학과 법률과 의학에 있어서 비범한 재능의 소유자였다. 특히 그는 내과 의사로서 그의 병리학적 연구는 의학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학적 견해는 개혁자들과 달랐으며 천주교의 입장에서 심각한 이단이요 요주의 인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그는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였다. 그는 교회의 이상을 초대교회적 소수성애로의 회복으로 보

있고 나케야 이전 시대를 이상적 시기로 보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였다. 1530년 10월까지 그는 바젤에 체류하였는데 이때 그는 여러 교회적 지도자들과 접촉하였는데, 특히 외콜람파디우스(Oecolampadius)와 접촉하였다. 그는 '삼위일체'에 관한 고전적 정의를 비성경적임을 주장하고 외콜람파디우스를 설득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후 그는 스트라스부르그로 이주하였고 1531년 6월에는 '삼위일체의 오류' (*De Trinitatis erroribus libri septem, The Error of the Trinity*)라는 책을 출판하여 삼위일체론을 공격하였다. 그는 스트라스부르그의 개혁자인 마르틴 부체르의 입장을 비판하였으므로 이곳에 계속 체류할 수 없게 되자 다시 바젤로 돌아왔다. 여기서 다시 쓴 책이 '삼위일체에 대한 두권의 대화' (*Dialogorum de Trinitate libri duo*)이다. 이와같은 삼위일체에 대한 비판은 신·구교 양측에 의해 문세시됐으나 로마천주교측은 1532년 6월 17일 그의 체포를 명했다. 이때 세르베투스도 잠적하였는데, 곧 그는 불란서 리용으로 도피하여 21년동안 미셸 빌르뇌브(Michel Villeneuve)라는 가명으로 칼빈과 서신을 교환하며 신학적 토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는 1553년에는 '기독교의 회복' (*Christianismi Restitutio, Restitution of Christianity*)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콘스탄틴의 회심으로 시작된 교회와 국가간의 유착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며 배교행위였음을 지적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였던 나케야 종교회의(325)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많은 부분이 이전에 출판된 그의 책 '삼위일체의 오류'를 반복한 것이지만 삼위일체 교리라는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는 본래의 순수성에서 떠나 타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박하면서 삼위일체론은 "대가리가 셋인 지옥의 개"와 같은 것이라고 악담하기도 했다.

21년간이나 가명으로 지내왔으나 결국 그의 정체기가 드러났고 1553년 4월 4일에는 리용의 종교재판소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이단혐의로 재판 받았으나 3일후 탈출하였고, 결국 쾰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그를 대신하여 만든 인형을 불태웠다. 도피한 세베르투스는 수주일간 잠적해 있다가 비밀리에 제네바로 가서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였으나 그곳에서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그에 대한 재판은 수주일간 계속 되었는데 칼빈은 그에 대한 38개 항목에 이르는 죄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스토 곤잘레스, '종교개혁사', 은성 1989, P. 113 참고). 칼빈을 반대하였던 일부의 제네바인들은 세르베투스가 이미 천주교에 의해 이단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개신교에서는 도리어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시정부는 스위스의 다른 주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그의 유죄를 인정하고 1553년 10

월 26일 화형(火刑)에 처할 것을 선고하였다. 이때 칼빈은 고통이 덜한 참수형(斬首刑)을 주장한 바 있으나 그 다음날 화형에 처해졌다.

칼빈의 교리적 위치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세르베투스의 처형에 대해 개혁자들, 곧 블링거, 멜랑히톤, 파렐, 베자(Thodore Beza) 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였으나 칼빈을 비난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아니하였다. 소위 방종파라고 불리는 르베르틴과 세바스티안 카스텔로 같은 사람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리 우선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이해되었다. 칼빈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처신이 정당한 것임을 말하기 위해 처형이 집행된 이듬해인 1554년 2월 '성삼위일체의 정통 교리에 대한 변호' (*The Defense of the Orthodox faith in the Sacred Trinity*)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칼빈은 이단인 경우는 사사로운 인정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유스티니안 법전(*code of Justinian*)에서는 재세례와 삼위일체부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이단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법적인 하지는 없었다.

또 당시 이단에 대해 가해지는 형벌이나, 바른 교리를 지켜야 하는 보다 시급한 과제를 고려해본다면 세르베투스 처형에 대한 칼빈에게 보냈던 찬사들을 이해할 수도 있다. 벤자민

워필드(B. B. Warfield)는 칼빈의 종교적 불관용성에 대한 비난을 의식하면서 "칼빈은 우의(友誼)보다는 진리를 선택했다"고 하여 칼빈을 변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칼빈은 의무와 책임, 찬사와 비난, 그 어느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 그도 세르베투스의 처형에 가편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부기해 둘 것이 있다. 세르베르투스가 처형된지 꼭 350년이 지난 1903년 칼빈연구가 에밀 두메르그(Emile Doumergue)의 제안에 따라 칼빈의 후예들은 세베르투스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죽어갔을 그 현장에 '속죄의 기념탑'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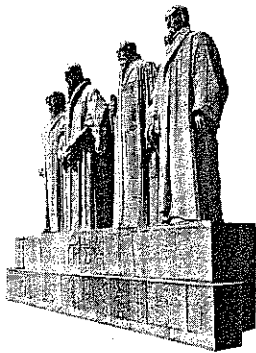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을 반대했던 인사 중 몇 사람을 선별하여 언급하였다. 정치적 입장이나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따른 반대 세력도 있었지만 신학적 견해차, 곧 교의적 차이로 인한 반 칼빈적 인사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신학적으로 방종파, 곧 르베르틴이란 점 외에도 칼빈이 주장했던 주요한 교의를 반대하였다는 점이다. 곧 불색, 카스텔로는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부정하였고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였다. 또 이들은 모두가 의사였으며 모두가 에라스무스와 같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적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 휴머니스트들이었다는 점이다. **▶**

칼빈과 제네바 개혁활동 VIII

이 상 규

고신대 교수 (역사신학)



칼빈은 이 땅에서 55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1564년 5월 27일 베자의 품 안에서 운명하였다. 그의 유언에 따라 모세의 경우처럼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개혁의 본거지 제네바

15 41년 칼빈이 제네바로 귀환한 이후 전개된 일련의 개혁운동은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1555년에는 엄격한 치리와 질서가 확립된 개혁이 이루어졌고 제네바는 개혁과 개혁교회의 중심지로 변화되었다.

제네바는 특히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개혁운동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외적 요인들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인접해 있는 여러 나라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피난민들이 모여 들었고 복음적인 개혁 신앙의 본거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540년부터 1564년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화란 등지에서 거의 1천명이나 되는 이국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여 제네바로 모여 들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개혁자이자 그 곳에 장로교회를 기초 놓았던 존 낙스(John Knox, 1513~1572)도 이곳에 이주해 왔던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제네바는 유럽의 대지(大地)에 개혁의 빛을 전파하는 '영적인 모국'(Spiritual motherland)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 둘 것이 있다. 독일의

루터의 개혁과 더불어 스위스의 취리히를 중심으로 한 쾰링의 개혁운동, 그리고 제네바를 거점으로 한 칼빈의 개혁운동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상호 연합을 위한 시도는 없었는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1529년 루터와 쾰링 간의 신학적 토론이 있었고 상호 연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성찬론의 차이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보다 앞서 1526년에는 루터와 부체르 등이 상호 장점들을 수용하는 '비텐베르크 연합'(Wittenberg Concord)에 합의한 일도 있다.

여러 형태의 연합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독일의 개혁운동과 스위스의 개혁운동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 저들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루터와 쾰링 간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독일의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은 점차 루터파(Lutheran)라고 불리는 별도의 복음주의 신학 운동으로 발전되어 갔고 쾰링의 개혁운동과 칼빈의 개혁운동은 보다 긴밀한 협조와 연합을 시도하게 되었다. 비록 쾰링은 세상을 떠난 후였으나 그 후예들은 칼빈과 함께 1549년 '취리히 협정'(Zürich Consensus, Consensus Tigurinus)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칼빈의 개혁과 쾰링파의 개혁운동은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갔으나 점차 루터파와는 소원해지게 되었고, 하나의 교회를 위한 연합이나 연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취리히 협정'을 따르는 이들

은 '루터란'(Lutheran)이라는 칭호에 대조되는 '개혁파'(Reformed)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네바가 개혁과 운동의 중심지로 인식되어 간 것이다. 여기에는 교회 연합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칼빈의 역할과 영향이 컸다.

사실 칼빈은 루터파와도 연합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즉 데오도 베자와 기욤 파렐의 중재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성찬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칼빈은 성찬론에 있어서 루터와 쾰링의 중간 입장을 취했던 마틴 부체르를 따랐으므로 루터파의 연합도 불가능한 시도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루터파와의 연합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루터의 후예들은 보다 관용적이지 못했다.

1555년 루터란이었던 조아킴 웨스팔(Joachim Westphal)은 칼빈을 비난하는 논문을 출판하고 루터파의 지역인 독일 북부 지방에서의 개혁파의 진출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야말로 성찬에 관한 루터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멜란히톤에게도 칼빈을 비판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루터파와 그 추종자들은 취리히 합의를 받아들인 인사들과 소원해지고 전자는 루터파로, 후자는 개혁파로 발전하여 복음주의 계열의 양대 지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어떻든 칼빈의 개혁활동은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제네바시는 개혁의 본거지가 되었다. 존 낙스는 제네바에 대해 말

하기를 칼빈은 “사도시대 이래 지상에 결코 있어 본 일이 없는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를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

칼빈의 개혁활동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네바 아카데미(Genevar Academy)라는 교육기관의 설립이다. 물론 제네바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공적인 교육기관을 갖고 있었다. 1536년에는 파렐에 의해 중등학교(college)가 설립되었는데 칼빈은 이 학교에 대학교육과정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한 일도 있었다.

사실 칼빈은 ‘미래의 씨를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1541년부터 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혁운동에 대한 여러 반대자들과의 투쟁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가 1559년에 와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1559년 5월에 소의회의 대학설립 허가를 얻고 6월2일 정식 개교하게 된 것이다. 처음 개교할 당시 이 학교의 공식 명칭은 Leges Academiae Genevensis였는데 첫 입학생은 162명이었다. 이 당시 제네바와 인접해 있는 도시인 베른시 당국과 그 곳의 로잔 아카데미 교수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 때문에 몇몇 교수가 해임되고 제네바로 이주해 오자 칼빈은 이들의 협조를 얻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장 겸 회랍어 교수로는 데오도 베자(Theodore Beza, 1519-1605)가 임

명되었다. 칼빈의 친척이기도 했던 베지는 후일 칼빈을 계승하여 제네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최초로 칼빈의 전기를 썼던 인물이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분명한 교육이념, 잘 짜여진 교육목표, 우수한 교수진 등으로 유럽에서 명성을 얻었고 곧 영향력에 있어서는 독일 루터파 신학의 이념적 중심지였던 비텐베르크대학을 능가하게 되었다. 설립된 지 5년 후에는 약 300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이 아카데미의 부속기관이었던 신학예비과정(College)에는 1천 명 이상이 적을 두고 있었다. 아직도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regina scientiarum)이었으므로 다른 학문들은 신학을 위한 준비과정이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는 성경언어와 철학, 변증학, 신학 등이 교수되었고, 아카데미의 예비과정에서는 고전어와 고전(古典), 논리학 등 교양과정이 주로 교수되었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수많은 설교자와 교수, 교사들의 양성소가 되었고 구라과 전역에 개혁신앙을 보급하는 근원지가 되었다. 이 학교에서 수학한 젊은이들이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 개혁신앙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제네바 아카데미가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우르시누스(Zacharius Ursinus)와 함께 1562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을 작성했던 카스퍼 올리비아누스(Casper Olivianus)도 이때 제네바에서 수학한 학생이었다. 사실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 구라과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당신들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는 말은 진실이었다. 그의 말처럼 유럽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젊은이들은 개혁신앙에 불타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후기의 집필활동

칼빈이 비록 1555년 교회개혁의 과업을 거의 이루고 제네바에 소위 신정정치(神政政治, Theocracy)가 확립되었지만 — 사실 존 브랏(John Bratt)은 신정정치라는 표현이 칼빈의 제네바 개혁운동이 이룬 결과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없다면 ‘성경적 통치’, Biblio-cracy 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 칼빈에게 있어서 후식이란 낯선 사치였다.

그는 그의 사역 말기에 해당하는 1550년대 말에도 후식을 모르는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정기적인 설교와 강의, 교수와 집필, 상담과 면담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현재 출판된 60여 권의 칼빈전집(Calvini Opera Omnia)만 보더라도 그의 저술과 집필활동이 얼마나 방대하며 광범위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집필 중 성경주석과 기독교강요의 계속적인 증보는 대표적인 집필 작업이었는데 1540년 로마서 주석을 출간한 이후 주석집필은 계속되었다. 구약주석으로는 1554년 창세기 주석을 집필한 이후 1557년 시편과 호세아서 주석, 1559년 이사야서 주석 및 소선지서 주석, 1561년 다니엘서 주석,

1563년 모세 오경, 예레미야, 애가서 주석이 출간되었고 여호수아 주석은 칼빈의 마지막 주석집필로 임종 직전까지 씌여졌다.

이와같은 주석 집필은 칼빈의 교의학적 관심 뿐만 아니라 주석학적 관심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러한 구약주석 집필과 겸하여 칼빈은 1559년 기독교강요 결정판을 출간하였다. 기독교강요는 1536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계속 증보해 오다가 드디어 최종판을 내게 된 것이다.

1558년 칼빈은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있었으나 기독교 강요를 증보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고 드디어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른 전 4책 80장으로 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게 된 것이다.

칼빈의 죽음

칼빈에게 있어서 건강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겨운 도전자였다. 그는 건강이 좋지 못했고 병약했으며 금식과 산적한 업무 때문에 더욱 쇠약해졌다. 그는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고 부과된 업무 때문에 세끼의 식사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혹자는 병약한 그를 가리켜 “이동하는 종합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후식을 취하도록 요청받기도 했으나, 칼빈은 “당신은 주께서 나를 계으르다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는가?”고 반문할 따름이었다. 꼭 참석해야 했으나 건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들것에 실린 채 모임에 참여한 일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건강이 좋지 못했으나 1563년 초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건강은 악화되었고 기력은 쇠약해 갔다.

그가 친구 비레(viret)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1542년 곧 그의 나이 33세 때 벌써 시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고, 말년에는 두통과 위장병이 심했고 무엇보다도 폐가 좋지 못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1564년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해 2월6일에는 성 베드로성당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는 임종시까지 상한 몸을 가누며 여호수아서 주석을 집필하는 데 마지막 정열을 쏟았다.

그해 4월25일에는 이 땅에서의 날이 길지 않음을 예견하면서 유언을 남겼고 5월에는 오랜 개혁운동의 동료이자 칼빈의 생애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던 파렐에게 편지를 썼는데, 5월2일자로 된 이 편지는 칼빈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이 편지에서 칼빈은 파렐에게 마지막 날들을 함께 보내자고 부탁하였다.

칼빈은 이 땅에서 55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1564년 5월 27일 베자의 품 안에서 운명하였다. 이 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는 55년간 입고 있던 육체의 겹옷을 벗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임종시까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옵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튿날 그의 장례식은 검소하게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제네바 시내에 있는 플랭 팔리에(plain-palais) 묘지에 안장되었다. 어떤 비문이나 묘표도 없이 평범하게 묻혔다. 이것은 칼빈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세의 경우처럼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사람이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무덤에까지 업적을 새겨 두겠는가? 단지 높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신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 이것은 칼빈의 생의 목표이자, 그의 생애를 이끌어간 삶의 철학이었다.

그렇다면 칼빈의 무덤이며 칼빈의 묘표라는 J.C.가 새겨진 무덤은 무엇인가? 저명한 칼빈 연구가인 두메르코에 의하면 그것은 가짜일 뿐, 관광업자들이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 만든 가묘(假墓)일 따름이라고 했다.

칼빈의 임종을 지켜본 베자는 그가 쓴 칼빈 전기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칼빈의 생활을 16년간 옆에서 지켜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첨가할 수도, 더 이상 감할 수도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리고 칼빈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 “해가 지는 그 날,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던 가장 큰 빛이 하늘로 돌아가고 말았다.”

존 칼빈,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a minister of the word of God)였다. **1564**

개혁주의 예배 제3장

고백과 죄의 용서

모든 설교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실제로 용서 받았다는 것과 불신자들에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한다.

안재경

대구 서문로교회 강도사

앞에서 제시한 공예배 순서에서 두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때마다 제거되어야 하는 죄가 남아 있다고 명백히 말한다.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바울 등과 같은 사람들이 항상 가장 깊은 존경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을 생각해 보라.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의식에서 이 부분은 거의 무시되

거나 사라져 버렸다. 카이퍼(A. Kuyper) 같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이 부분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종교개혁에 의해 관습화 된 방식대로 이 부분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십계명은 감사의 부분에 속하지만, 예배의식에서 죄의 공적인 고백과 항상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부분에는 네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언약적인 예배의 쌍방교통을 잘 나타내 준다. 이 네 요소는 ① 십계명 ② 죄의 공적인 고백 ③ 용서의 선포 ④ 찬양과 감사의 노래 등이다. 각각의 요소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십계명(↓)

영국에서의 개혁운동 I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개혁

이 상 규

고신대 교수 (역사신학)



헨리 8세

헨리8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정치적 감각과 학문적 소양과 신학적 식견을 가진 매우 영특한 사람이었다. 1499년 에라스무스는 영국을 방문하여 아직 소년이었던 헨리를 만나본 후 그의 영민함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루터를 중심으로 한 독일에서의 종교개혁, 곧 교회개혁운동과 쾰링거의 개혁운동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루터의 개혁운동은 후일 루터란(Lutheran), 곧 루터파를 형성하였고 취리히를 중심으로 한 쾰링거의 개혁운동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전개된 칼빈의 개혁운동과 더불어 개혁파(Reformed) 교회를 형성하였음을 이미 살펴 보았다.

이제 우리는 유럽의 틀판은 뒤로 하고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가고자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개혁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영국'이라고 말할 때 지금의 대영제국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16세기 당시는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별개의 국가였고 상호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겪기도 했으므로 많은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영국이란 이름 그대로 잉글랜드를 의미할 뿐이다.

그런데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독일과 스위스, 혹은 스코틀랜드에서의 개혁운동과는 판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루터나 쾰링거 혹은 칼빈은 순

수한 신앙적, 신학적 동기에서 출발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에서 반 교황적, 반 교권적 복음주의 신학운동을 전개하여 고난과 탄압의 여정을 겪었으나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그 기원과 동기에 있어서 종교적(宗敎的)이거나 신학적(神學的)이지 못했다. 도리어 정치적(政治的)이었고 교회정책적이고 행정적이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영국에서의 개혁운동은 영국 왕 헨리 8세(Henry VIII, 1509 - 1547)의 이혼문제로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영국의 교회를 천주교회와 행정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소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 본 대륙의 종교개혁과 스코틀랜드에서의 개혁운동은 교회의 인물들, 곧 개혁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국왕에 의해 주도되었고 국가의 보호하에 이루어졌다.

헨리 8세의 이혼문제(King's great question)로 야기된 영국교회의 로마와의 결별은 영국인들의 교회로서의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 곧 '성공회'(聖公會)라는 국가적 혹은 민족적 기독교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에 배경이 된 것은 영국의 영방교회적(領邦敎會的) 성격이다. 크게 발전된 영방교회는 로마와의 단절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국교회를 민족적 교회로 발전하도록 민족주의적 성격을 더하여 주었다.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란 이름 자체가 민족주의적이지 않는가?

영국에서의 개혁은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교황의 행정적 지배와 간섭, 그리고 천주교회와의 행정적 단절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영국교회'(성공회)의 위계제도, 전례와 의식, 신앙과 삶은 전통적 천주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헨리8세가 영국의 교회들을 로마와 분리하여 소위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 교유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 영방교회 외에도 보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즉 대륙의 교회개혁의 영향, 미미하게나마 꾸준히 이어져 왔던 위클리프 파의 영향도 그 중의 하나이다. 또 종교적인 인본주의자들과 교황의 교회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대한 불만, 국왕의 결단력 있는 행동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고 특히 대륙의 종교개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나 영국에서의 개혁은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사실 '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단지 교황의 행정적 지배와 간섭, 그리고 천주교회와의 행정적 단절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영국교회'(성공회)의 위계제도, 전례와 의식, 신앙과 삶은 전통적 천주교회의 특징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국교회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에서의 개혁은 중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천주교로부터 떠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천주교적 전통을 지니고 있고 개혁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루터나 쾰링거, 그리고 칼빈의 개혁이념과는 먼 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중도적 개혁(中道性 moderation)에 머물고 있다.

혹자는 이 중도성 혹은 중용적인 성격을 영국의 종교개혁의 특유성이며 독자성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호평(好評)이다. 이미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영국의 종교개혁은 교황제와 극단주의 사이의 '중용의 길'(via media)을 걸었다고 평하였는데, 이 표현은 영국에서의 개혁의 근본적 미흡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제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운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헨리8세

영국에서의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헨리 7세로부터 시작되는 가계와 결혼, 그리고 권력계승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영국에서의 개혁운동은 헨리 8세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전임자인 헨리 7세의 아들이다. 헨리 7세(Henry VII, 1457 - 1509)는 튜더 왕조(Tudor Dynasty)를 창건한 인물인데 1485년

10월 30일 즉위하였다. 그는 에드워드 6세(Edward VI)의 장녀 엘리자베스와 결혼하였는데, 여기에는 혼인을 통해 양가의 상징인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연합시킴으로써 후일의 내란 가능성을 소멸하고자 하는 정략적 동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헨리 7세 치하에서 반란과 음모는 계속되었고 평화는 꿈이었을 뿐이다.

그는 그의 자식들도 정략적 목적으로 당시 주요 권력자들에게 결혼시키는 소위 혼인 외교를 폈으나 이것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즉 그는 장남 아더(Arthur)를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왕(King Ferdinand)과 이사벨라 여왕(Queen Isabella)의 딸인 아라곤의 케더린(Catherine of Aragon)과 결혼시켰다. 당시 스페인은 프랑스와 함께 최대의 강국이었으므로 스페인과의 혼인을 통한 외교관계수립은 국가 보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딸 마가렛(Margaret)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James IV)에게 출가시켰고, 또 다른 딸 메리(Mary)는 프랑스의 루이 12세(Louis XII)에게 주었다.

헨리 7세의 장남이었던 아더가 결혼할 때는 14살이었는데(1501년)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왕위 계승자였던 그가 사망하자 자연스럽게 그 동생 헨리가 왕위 계승자로 지목되었다. 과부가 된 아더의 처였던 케더린은 아직 15살의 10대 소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케더린과 헨리와의 결혼이 자연스럽게 거론되었다. 이는

의 역시 정략적, 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스페인은 아직도 10대 소녀에 지나지 않는 케더린을 청상과부로 남겨둘 수 없었으므로 그녀의 남편 동생으로써 이제 왕위 계승자가 된 헨리와 제혼하도록 제안하였다. 영국쪽에서도 스페인과의 외교관계와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재혼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교회는 이같은 결혼을 반대하였다. 사실 헨리가 형수였던 케더린과 결혼하는 데는 교회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에 파견되어 있던 영국대사는 교황에게 특별사면을 요청하였으므로 당시 교황 줄리우스 2세(Julius II)는 '인족 장애'(姻族障礙)를 면제해 주었다. 이것은 케더린이 시동생이었던 헨리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특별조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 역시 정치적 배려였다. 그래서 케더린은 아직 12살에 지나지 않았던 7살 연하의 헨리와 약혼하였고 헨리가 즉위한 후인 1509년 결혼식을 올렸다.

에라스무스는 헨리와 케더린의 결혼을 '사랑과 정절의 이상적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화된 칭송을 보냈으나, 이 결혼이 후일 영국의 정치는 물론 영국교회의 장래에 그토록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헨리가 아버지 헨리 7세를 이어 헨리 8세(Henry VIII, 1491 - 1547)란 이름으로 왕위를 계승했을 때는 1509년 4월 22일, 그의 나이 18세 때였다.

헨리 8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정치적 감각과 학문적 소양과 신학적

식견을 가진 매우 영특한 사람이었다. 1499년 에라스무스는 영국을 방문하여 아직 소년이었던 헨리를 만나본 후 그의 영민함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L. Spitz, 「종교개혁사」, P. 253).

헨리는 르네상스 풍의 가정교사들에게 사시를 받았기에 언어적 재질과 학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각종 운동에 능했고 사냥, 승마를 즐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 케더린에게도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헨리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루이스 스피츠에 의하면 헨리는 "소년 시절 때부터 사람들에게 우상과 같은 대접을 받고 성장하여 고집이 세고 기회주의적이고 자기본위의 이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케더린이 남자를 생산치 못한 것이었다. 사실 케더린은 두 남자를 포함하여 6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딸 메리(Mary)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서 죽고 말았다. 그래서 케더린이 아들을 낳아 왕위를 계승하는 데 실패한 일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아녀자가 국가를 통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딸 메리를 왕위계승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영국에서는 처참할 정도의 왕위계승 전쟁을 경험한 후였기 때문에 헨리에게는 왕자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제는 케더린에게서 남아출산을 기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보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헨리는 자기 가문의 장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고 그 염려는 궁중의 젊은 미모의 여인 앤 불렌(Anne Boleyn, 1507·1536)에게서 새로운 소망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케더린과 헨리간의 결혼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교황이 과연 형수와 시동생의 결혼 금지 원칙을 유보시킬 권한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었고 헨리와 케더린 사이에 남이를 얻지 못한 것은 불의한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레위기 20장 21절은 이 점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인식되었다.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나 그들이 무자하리라.”

이제 해결책은 자명해졌다. 헨리는 케더린과 이혼하고 앤 불렌과 결혼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헨리는 케더린과 이혼한다기 보다는 케더린과의 결혼 그 자체를 무효화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케더린과의 결혼을 무효화해 줄 것을 교황청에 요구하였다. 이때가 케더린과 결혼한지 18년이 지난 1527년이었다. 헨리는 위의 성경 구절에 기초하여 형수와의 결혼금지 원칙은 교황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교황의 인족장애에 대한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헨리와 그 형수사이의 결혼은 불법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진정한 결혼관계가 성립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결혼 그 자체를 무효화 하도록 했던 것이다. 공은

이제 교황에게로 넘겨졌다.

당시 교황 클레멘트 7세(Clement VII)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헨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황제 찰스 5세는 케더린의 조카였으므로 케더린에게 불리한 결정은 찰스와의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당시에는 찰스의 영향력이 매우 컸으므로 교황은 황제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교황이 헨리 8세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다. 헨리는 철저한 천주교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옹호자였다.


1517년 마틴루터가 95개조를 발표하고 천주교회의 면죄부판매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취소를 요구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논문을 써서 루터를 공격했던 사람은 다름아닌 헨리였다. 그래서 그는 당시 교황 레오 10세(Leo X)로부터 ‘신앙의 수호자’(Defensor Fidei, Defender of the faith)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교황 클리멘트 7세는 사실상 헨리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없어 의도적으로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다.

헨리와 케더린과의 결혼관계와 이혼에 관한 토론은 그 이후 7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헨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사실 교황은 이미 1530년에 헨리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볼 수 있다.

교황으로부터 기대했던 해답을 얻지 못한 헨리는 혼인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그는 캄브릿지 대학 교수였던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를 이용했다. 헨리는 그를 통해 혼인무효화 관철을 위한 자문을 구했고, 왕의 총애를 받은 크랜머는 1533년 3월 캔터버리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1530년 경부터 헨리는 로마와의 결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각종 반(反) 천주교적 법안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1533년 앤 불렌과 은밀히 결혼하였다. 캔터버리 대주교로 임명된 크랜머는 헨리의 케더린과의 결혼이 무효임을 선언하고(1533년 5월 23일) 앤과의 결혼이 합법적임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메리는 왕위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사생아로 전락하였다.

왕은 영국의 교회를 천주교회와 분리하여 천주교와의 행정적 단절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영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의 유일한 대표임을 선언하는 ‘수장령’(首長令)을 발표하였다. 이때가 1534년이었다. 영국 의회는 국왕이 영국교회의 수장(Supreme head of the Church of England)임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왕을 가리켜 분파주의자, 혹은 이단이라고 칭하는 행위 자체를 모반죄에 해당한다고 못박음으로써 영국교회의 분리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법률적으로 봉쇄하였다. 이렇게 해서 영국교회는 천주교로부터 분리되었고, 이것은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 

월간고신 한 부로 문서선교를 합시다

(월간고신 한 부 보내기 운동 전개)

임머누엘의 은총을 기원하며 삼가 인사드립니다. 그 동안 교단지 월간고신을 몰입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문서운동은 1948년 12월 과수군 창간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45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지금까지 책의 제호가 13번이나 바뀌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일간지 123종, 주간지 1,753종, 월간지 6천여 종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월간고신은 1981년 7월 창간한 이래 한국교계와 세계교회를 향하여 문서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월간고신을 보내 달라는 요청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월간고신 한 부 이상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1부 보내는 1년 후원금은 송금료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21,600원입니다. 군 부대, 군목,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공공기관, 대학도서관, 선교본부, 해외 유학생, 일가친척, 선교사님께 월간고신을 보내는데 목사님, 교역자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고신은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지입니다.

월간고신사 운영위원장(총회장) 박 유 생